배타적 공동체에서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변화를 통한 1.2 세대간의 관계 개선안 연구

The Study of Communal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1 and 2 Generation through an Exclusive to Receptive Church Community Meeting

By

Kim, Sung Ji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Rowland Heights, California

2011

ABSTRACT

The Study of Communal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1 and 2 Generation through an Exclusive to Receptive Church Community Meeting

by

Kim, Sung Jin

What is the most important for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for future? If you ask to people, who are attending Korean American Church about above question, they may answer that raise their Second Generation Children in the relation of Church education is the most critical challenges. But what have you helped your Second Generation Children to be an active Church community member in your Church? If you ask to people again, they may answer 'I am sorry I have no idea what our church has supported for our Second Generation children. They may do something.' I believe that this is the very situation of the most of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for Second Generation people.

In this isolated situation between 1st and 2nd generation, our Second Generation children have told their 1st generation parent that we have Worshipped two God. Most of Second Generation children will tell us that they know who Jesus is and that Jesus died for their sins. Most of Second Generation children will tell us that they are saved and have put their faith in Jesus Christ is the true God that we Worship together on Sunday. But unfortunately at the same time, most of 2nd generation has told to their parent about the other god they worship. They worship school, college, SAT, academic institute, parents' pressure on them.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in many of 2nd generation' lives than Jesus Christ. It is good to receive good grades and to attend a good college, but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2nd generation children begin to suspect about their parent's faith. Why are they different in home? Do we have same faith with them? This is reason why Second Generation children are leaving their mother church.

Korean American Immigration churches have been established by people who came to America and have made up of their sweat, blood, and sacrifice for a community of faith. Unlike traditional Korean church, Korean American Immigration churches have developed their unique religious culture and tradition in the relation of American environmental situation. When the Korean American churches are settle here first, they were thinking about not only their congregation but also community, which they belong. But after 1980 to 1990, more immigrants coming here, Korean American church started to changed their church policy that they tried to focus on their individual church's development and growth without relationship with community. From that time, Korean American churches grow rapidly and have exclusive nature toward other race, language, and culture.

In this situation, Second Generation have separated from the Korean American church because of they are different with their First Generation parent in the relation of language and culture. This is why they have separated from First Generation centered Worship and church activities and they silently leave their mother church.

"Children obey your parent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on the earth. Fathers, do not exasperate your children; instead, bring them up in the training and instruction of the Lord (Ephesians 6:1-4)."

I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reconcile between two generations should meet as the same church community member. Making common ground with church Worship and

activity together is the first step to Communal Improvement of Relationship between 1 and 2 Generation. And then with this effort of two generation, they have feel that we Worship same God and same church member of the Korean Grace Presbyterian Church.

ACKNOWLEDGEMENTS

지난 12 년간 미국장로교 성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고 적용하고 싶었던 이슈들을 이번 논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되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배타적 공동체에서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변화를 통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안' 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제 자신이 먼저 Youth Group Pastor 로 2 세대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절실히 깨닫는 계시가 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탁상 위에서의 행정적인 적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과업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이민 목회를 해 나아갈때에도 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2 세대들을 포용하고 참 만남과 대화의 기회들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세대간의 장벽을 허물수 있도록 노력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주신 백창건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공부하는 동안 모두가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준 동역자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교회의 현장에서 늘 기도하며 부족한 저를 도와 함께해 주었던 Site Team 들과 뒤에서 아무말 없이 항상 인자한 웃음으로 힘을 보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 년간 NYTS 신학교 에서의 공부는 저에게는 커다란 기쁨이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위해 보낸 시간과 노력들은 제 목회에 커다란 자양분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들을 허락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지금도 부족한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님께 감사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2011 년 5 월 California Rowland Heights 에서

김성진

목차（Contents）

Ⅰ. 서 론

이민 교회는 일반 적으로 한국의 교회에 비하여 이민자들과 이민 사회에 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의 적응과 정착을 돕고, 한인 기반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이민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1] 그결과 1965 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 해마다 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 시작했고, 한인 이민 교회들도 함께 성장해왔다.

이러한 이민 교회들 만의 독특한 Context 속에서 적지 않은 수의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인 이민 교회에 참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요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 이와같이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의 새로운 환경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섬김의 정신을 통해 큰 도움을 받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성장한 한인 이민교회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측면 즉 제사장적, 봉사자적, 그리고 선지자적 교회의 사명을 수행함으로 이민자들을 대변하는 커뮤니티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로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2]

그러나 동시에 한인 이민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늘어가는 한인 이민자들과, 그들의 보다 높아진 교회를 향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한인 이민 교회들이 기존의 커뮤니티 기반의 교회적 이미지를 버리고 대신 프로그램과 교회 울타리내의 교인 관리에만 집중하는 교회의 이미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개 교회 화된 한인 이민 교회들의 이미지는 한인 이민자들이 그들의 고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보수적 신앙과 이곳의 특수한 상황에

---

[1] Pyong Gap Min, *Asian Americans.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Thousand Oks, New York: Pine Forge Press, 2002), 235.

[2] Eleanor Scolt Meyers, *Envisioning the New Cit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211.

맞물려 보다 더 강력한 종교적, 보수적, 그리고 배타적 경향의 교회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한인 이민 교회들이 1 세대만을 위해 준비한 예배와 프로그램에 2 세대들이 참여하지 못 하므로 발생하는 대화와 만남의 부족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 현상이다. 그러나 교회는 본질적으로 개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예배와 프로그램을 통해 나눌 수 있는 모든 유용성들은 모든 세대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 다른 인종들을 돕고 선교하는 일에 모든 세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인 이민 교회들의 이와같은 노력을 통해 1 세대와 2 세대가 함께 힘을 모으고 동참할 때 진정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 질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인 이민 교회는 보다 건강한 민족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 성장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1. 성은 장로교회 현황분석(The Collective Sense of Identity of KGPC)

1) 역사

1860 년대 부터 시작한 한인들의 이민의 역사는 이후 많은 시대를 거쳐 1965 년부터 남미, 유럽, 중동, 북미로[3]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북미 대륙을 향한 이민의 문은 1965 년 이민법의 개정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1980 년대에 이르러서는 3000 명 이상이[4] 이민의 길에 오를 정도로 점차로 확대 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민의 증가와 함께 한인 이민 교회들도 Los Angels 와 New York 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이민의 역사 속에서 뉴저지 성은장로교회는 1983 년, Bergen County New Milford 에서 뉴저지 성도교회와 뉴 밀포드 한인교회가 합동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됐다. 이후 Fair Lawn, Paramus, 그리고 Rutherford 를 거쳐 2004 년 7 월 4 일 Fort Lee 에 있는 루터 교회를

[3]양명득 편,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42.

[4]이원일, "제 2 세대 한국계 미국인"(Korean American)의 청년기에 대한 기독교 교육과정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No. 21 (2008 년 12 월), 109.

구입했으며 미국 장로교 동부 한미노회(The Eastern Presbytery of the PC.U.S.A）의 회원 교회로써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뉴저지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의 평균 이민 생활은 10 년 이상으로 이들의 자녀들 중 상당수는 이 곳에서 태어난 2 세대[5]들이나 이민의 증가에따른 새로운 교인들의 증가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자란 1.5 세대[6]들의 숫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은 장로교회의 예배 출석 인원은 2009 년 기준으로 성인이 약 100 명 정도이며 어린이와 중.고등부 교회학교 약 50 명과 함께 1 세대와 2 세대가 같은 시간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2)지역적 배경

New Jersey 는 과수원, 꽃, 정원이 많아서 'Garden State'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뉴욕에 근접해 있다. 산업 중심의 뉴저지 주는 Hawaii, Coneticut, Delaware, Rode 다음으로 작은 주이다. 주민의 85%가 지방 도시에 살고있고,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다. 주(州)의 주요 생산 도시는 Camden, Elizabeth, Jersycity, Newark, Peterson, Trenton, 등이며 Atlantic city 시를 포함하여 50 여 개의 휴양 도시들이 대서양 연안에 있다.[7]

성은 장로교회는 뉴저지의 북동부 끝에 위치한 Bergen County 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욕 맨하튼과의 근접성과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한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Bergen County 는 뉴저지 내 County 들 중에서도 가장 인구가 많고[8] 전 미국 내에서도 전체 중 18 번째로 1 인당 수입이 높은 지역이다.[9] 백인이 약 80% 가량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이긴 하지만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지난 20 여년 동안 꾸준히 늘어 현재는 전체 인구중 10% 이상을 아시아계

[5] 1.5 세대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고등학교 졸업 전에 미국에 온 세대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의 말과 문화에 익숙하며 때때로 2 세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낀다.

[6] 미국에서 태어난 2 세대들(일반적으로 "ABKs" for American – Born Koreans 이라고 불리는) 은 한국의 말과 문화에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를 1.5 세대 들로부터 구분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7]정석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서울: 쿰란출판사, 2005), 85.

[8] 2006 년 센서스에 의하면 현재 904.037 명의 사람들이 살고있다.

[9] 미국 전체 카운티의 수가 3.770 개임을 감안하면 이 통계는 상위 0.6%안에 드는 수치이다.

이민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적 이점 때문에 버겐 카운티 내의 한국인 이민자들의 수가 뉴저지 전체 한국인 이민자 수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성은 장로교회는 Bergen County 의 Fort Lee 에 위치하고 있고 한인들이 대거 밀집해 살아가고 있는 Palisade Park[10]과 인접해있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해마다 적지 않은 수의 한인 이민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1 세대 한인 이민자들이 이곳에 정착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구조 속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여전히 한국의 문화와 삶에 깊숙이 관계를 맺는데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11] 따라서 이러한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한인 교회들 이 이 지역과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

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 중 60% 정도가 Rutherford 와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교회 주변의 지역에 살고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5 년전 성은 장로교회가 이곳 Fort Lee 로 교회를 사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교회 안에 직업과, 학벌, 그리고 생활 환경과 같은 서로다른 지역적 배경을 가진 두 그룹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섞이게 됨에 따라 서로 비슷하고 익숙한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이기를 원하는 두 그룹들 간의 배타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단절의 분위기는 더 나아가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문화 유산적 배경

전통과 문화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다 더 의미있고 가치있게 만들기 위한 의미와 가치들의 재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성은 장로교회 구성원들의 문화 유산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자가 해결하기 원하는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와 이를 통한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

---

[10] 미국 동북부 뉴저지 주에 있는 카운티로 2000 년 센서스 때 인구는 17,073 명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중 36.38%가 한국계로 미국 전역의 자치단체 중에서 한국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다.

[11] Tony Carnes and Fenggang Yang, eds. *Asian American Religion:* The Making and Remaking of Borders and Boundaries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4), 192.

것이다. 먼저, 성은 장로교회 1 세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적 배경은 집단주의 사상[12]이다.

한국문화 (집단주의)[13]	**미국문화 (개인주의)**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 –(Implicit passivity in relation to nature)	자연의 관리자로서 인간 –(Active explorer of nature)
집단 내 태도의 조정 및 조절	개인에 의한 태도 조정
상호 의존적	자급 자족할 수 있는
개인의 목표가 집단의 목표에 종속됨	그룹과 개인의 목표가 관계되지 않음
그룹 내부의 조화가 중요시됨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의 의사가 강조됨
그룹 안에서의 공동 운명체	개인 운명체(그룹 안에서 덜 의존적)
그룹이 심리적 배경의 중심	개인이 심리적 배경의 중심

표-1

집단주의 사상 속에서 개인은 자기의 정체감을 그가 속한 집단과 관련하여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 보다는 자연스럽게 집단속에서 자기의 자아와 가치관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은 성은 장로교회를 방문하는 1 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공통된 이유 이기도 하다. 민족 성향이 강한 1 세대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과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사회 및 경제적 여건이 완전히 다른 이곳 미국에서 새롭게 정착하게 됨에 따라 불안하고 초조한 사회적인 심리를 느끼게 되는데 이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나'라는 한 개인의 소수 민족으로 살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기댈 수 있고 안전한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 보다 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14]

두 번째로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적 배경은 수평적인 관계 보다는 수직적인 관계 구조에(Hierarchical System)보다 더 익숙하다는 것이다.

---

[12] 집단주의 사상은 보통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성격으로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과 같은 서양 문화권 국가에서 이해되는 개인중심 개념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이라고 생각한다.

[13] Timothy D. Son., "Identity Formation During Identity Crisis: Reflection on the Significance of Religio-Existential Aspect of Identity Formation,"in Asian American and Christian Ministry, ed. Inn Sook Lee. Timothy D. Son, (Seoul: Voice Publishing House, 1999), 114-115.

[14] 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 교육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44.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나이와 계급이다.[15] 따라서 사회 통념상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반말을 해도 예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유(You)'라는 말 하나로 누구든지 편안하게 부를 수 있다.[16] 이러한 비교는 한인 이민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성은 장로교회 내에서 조차도 신분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시되며 실제로 수직적인 구조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은 장로교회 구성원들의 유교적 전통에 의한 위계 질서적인 존중과 권위 지향적인 순종이라 할 수 있다. 1 세대 중심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연하자는 연장자가 하는 대화에 끼어서도 대꾸해서도 안된다.[17] 반면 미국 문화는 어른이든 아이든 예외없이 개인의 의견과 권리를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다.[18]

이러한 유산적 배경들을 통해 이곳에서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1.5 세대와 2 세대들은 그들 부모들과 조상들의 문화(Ancestral Tradition)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문화의 가치와 전형(American Cultural Values and Paradigm)으로부터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19] 그러나 이와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1 세대 한인 이민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유산적인 배경을 바꾸려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복합 문화가운데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가는(From being to a new being) 2 세대들의 갈등과 정체성의 혼란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4) 상황적 배경

"교포가 있는 곳엔 교회가 있다"[20] 이 말은 이민교회가 교포사회 속에서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문구이다. 실제로 이민 교회들은 이민 초기의 교포들을 위하여 그들의 안내 역할을 담당해 왔고, 또 그들이

---

[15] Ibid., 46.

[16] Ibid.

[17] 이러한 위계질서적이고 권위주위적인 배경은 한인 이민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 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대 교육목회, 49.

[19] Inn Sook Lee, Timothy D. Son, 115.

[20] 박종근, "이민교회의 어제, 오늘, 내일," *생명샘*, No. 11, (1983 11 월), 46-47.

미국사회에서 새 생활을 개척하고 터전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일익을 수행해왔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와도 같이 교회는 지친 이민자들에게 사랑과 대화의 광장이었고, 고도로 발달된 이질문명 속에서 겪는 이민생활의 고달픔을 교회를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고, 그리하여 교회사회를 지도하는 개척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왔다.[21]

성은 장로교회도 역시 창립된 이후 지난 25 년 동안 다른 한인 이민교회들과 마찬가지로 1 세대 성도들의 신앙적 성숙과 정신적 평안함(comfort mind), 교제(opportunity of fellowship), 공동체의식(sense of community), 이민정보(job problem), 그리고 언어 및 새로운 문화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한국과는 다른 이곳 이민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고유 기능인 신앙인으로서 이민자들을 돌봐주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곳 미국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민자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사역을 통해 돕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해 왔다.[22]

그러나 성은 장로교회가 창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1 세대 이민자들을 지원해온 사역의 중심에는 한국 교회만의 보수적이며 또한 동시에 이를 통한 강력한 성서 신학적인 전통이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성은 장로 교회만의 전통은 강력한 복음주의 신앙(Strong Evangelism in Theology), 빈번하고 자발적인 예배와 기도모임(Frequent or Diligent Worship and Prayer Meeting), 그리고 강력한 조직(Strong Organization) 을 통해 지난 25 년간 성은 장로 교회만의 독특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정체성(Collective Sense of Identity of the KGPC as the Faith Community) 으로 이민의 생활에 지친 1 세대 한인 신자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구심체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성은 장로교회의 이러한 복합 사역이 다른 이민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성도들 상호 간의 온전한 상호 교류와 이에 따른 진정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비로서 그 소명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도들 상호 간의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곳에서 태어나 말과 문화가 다른 2 세대들과의 관계단절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로 1 세대들은 지난 25 년간 1 세대

[21] Ibid.

[22] Asian American Religions 의 저자 Tony Carnes 와 Fenggang Yang 은 한인 이민교회들의 Socioeconomic Service 에 대한 언급에서 미국에 있는 Asians American Religious Group 들 중에서 한인 이민교회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 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한국으로 부터 가지고 온 복음의 순수성[23] 과 강력한 신앙과 신학의 실천을 통해 얻은 신앙 공동체적 정체성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는데 성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1 세대들의 신앙 공동체 속에 포함될 수 없었던 2 세대들은 서서히 그들의 부모들을 향해 열려져 있었던 마음을 닫아 버리고 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수의 2 세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의 품으로 부터 벗어나자 마자 그들이 자란 모 교회를 버리고 자기들과 말과 문화가 통하는 외국 교회로 떠나고 있다.

이러한 현 성은 장로교회의 상황은 교회 내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이 그 동안 1 세대 위주로 진행 되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생겨난 1 세대 중심의 배타성을 통해 무 의식적으로 지난 시간 동안 1 세대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려왔던 기득권을 조금은 양보하고 희생하여 2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성은 장로교회가 1 세대들이 경험해온 긍정적인 신앙의 유산들을 2 세대들에게 2 세대들과의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나눠주지 못하고 이를 통해 보다 긍정적이며 상호 신뢰적인 신앙 공동체로 발전하지 못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말과 언어가 다르다 하더라도 1 세대와 2 세대는 서로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양 세대 공히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들을 통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1 세대들은 자기들이 지금껏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2 세대들에게 양보하고 2 세대들 역시 1 세대들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희생과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 받으므로 명실공히 민족 신앙 공동체로서 화합과 하나됨을 통해 다가올 미래의 이민 교회의 미래를 두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연구목적

---

[23] 여기서 한인 이민자들이 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복음의 순수성 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복음을 가져왔다는 말로서 19 세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고 유지되어온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를 의미한다.

1) 한국적 신학을 통한 주변성 극복

한인 이민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말과 언어가 다른 이곳 미국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1 세대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태어나 공 교육을 받은 2 세대들에게까지 적용되는 문제이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상처와 Minority Complex 를 가지고 있는 각 세대들은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와 만남을 통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신학을 통한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에 보다 친근한 방법으로 1.2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주변성의 문제를 극복함으로 양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른점 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긍정적 민족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Silence Exodus 방지를 위한 1 세대와 2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기법 연구

정의적 영역으로는 현재 이민 교회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동시에 왜 2 세대들이 그들이 자라온 한인 이민교회를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2 세대들의 이와같은 교회 탈출 현상을 막기 위해 세대간에 적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방법의 기독교적인 방법을 통해 한인 이민 교회내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3) 성서의 아가페와 유교의 인 사상을 통한 Korean-American 공동체의 회복

본 연구는 성서에 나타난 아가페 사상과 한국인의 고유 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인 가정과 교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의 아가페는 인간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구약 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그리고 긍휼하심을 표현한 헤세드와 일맥상통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교는 지루 하다는 선입관으로 현대적인 시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사상으로 이해하여 왔다. 그러나 유교가 지난 2000 년간 동 아시아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한국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Korean-American 으로서 유교적 삶의 방식에서 완전히 떠나서 사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한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한인 가정과, 교회의 상황에서 한인 이민자의 가정과 교회에 의식적 또는 무 의식적으로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유교적

영향력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도 보다 Korean-American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가페와 인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인 이민자 공동체 안에서의 세대간의 화합과 하나됨을 돕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유교적 사상 (인:仁)과 기독교의 사랑(아가페) 개념의 새로운 접목을 통해 한인 이민자 교회 안에서의 한국적 전통의 건전한 토착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것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로서의 한인 이민 교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Ⅱ. 만남을 주제로 본 요한복음과 쉐마

1. 요한 복음에 나타나 있는 3가지의 만남

요한 복음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접근 방법은 기독론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러한 기독론적인 접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보기 보다는 만남의 입장에서 대화와 관계의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1) 반감적 만남

이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 하시기 위해 오신 분 즉(로고스)[24]임을 거부하는 만남이다. 세상과 유대인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반감적 그룹은 유대인들[25]이다. 이들은 항상 예수의 적대자들로 나타난다.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신문하고(1:19-28, 5:16-18, 8:12-59), 예수의 모든 증언들을 거부하고(5:31-58),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않으며(5:38, 8:46, 12:34-40), 예수를 잡아 죽이려하고(5:18, 7:1, 19, 25, 30, 8:40, 10:39, 11:45-46, 57), 예수를 모욕한다(7:20, 8:48-52).[26] 그 밖에 가롯유다, 가야바, 안나스,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빌라도 역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불신했는데 이 세상 역시 예수를 창조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지으셨고, 오래전부터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

[24]요한복음의 특별한 사상은 '로고스' 사상이다. 로고스 사상의 배경은 주전 6세기의 헬라클리튜스(Heraclitus)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로고스를 우주의 창조과정에서 이성원리(理性原理)로 보았다. 플라톤(Platon)은 물질의 세계가 아닌 더 높은 관념의 세계 (Idea)가 곧 로고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토아(Stoa)학파(BC. 5C-4C)에서는 로고스는 만물을 다스리는 이성이며 [내재하는 로고스]와 [우주적 로고스]로 구분하였다.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 (BC. 20 - AD. 50)는 눈에 보이는 우주는 신의 이성(理性)이 나타난 것이라고 하였다. 우주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물질계에 접할 수 없어서 로고스를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였다고 했다.

[25]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로는 바리세인, 대제사장들, 통치자들, 레위인들, 그리고 그들의 추종자들이다.

[26] 김춘기, "'만남'의 주제로 본 요한복음", *신학과 목회*, No. 25 (2006년 봄), 162.

못했다. 전지전능 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유한자를 창조하시고 그 유한 속에, 역사속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한자인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27] 결국 이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다른 표현인 것을 "알지 못하고"(1:10), 알지 못했기에 그를 "영접하지 못하는"(1:11) 부류들이다. 이들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은 예수에게서 투영 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춰서 예수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2) 호감적 만남

이 만남은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 들이기는 하지만 단지 예수를 하나의 해결사로 인식하는 경우이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나 니고데모[28], 아리마데 요셉[29]등이 여기에 속한다. 예수를 피상적이고 외적으로 이해하는 만남이다. 이 만남은 예수에게는 호감을 지니지만 예수의 세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여하지 못하고 인간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30] 이러한 만남은 일시적으로 나마 감정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더 이상의 깊은 내면의 만남을 통한 상호 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3) 공감적 만남

이 만남은 신앙에 근거한 만남이다. 예수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보다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만남이다. 인간 자신의 문제보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깨닫는 경우이다. 요한복음은 이 공감적 만남을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하나는 실명의 제자들의 만남이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의 제자단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만남의 특징은 긍정과 부정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와는 진정한 만남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만남인

---

[27] 김호현, "요한복음대의 연구", *대한신학교 논문집*, No. 6 (1986년 봄), 458.

[28] 그는 요한복음에서 세 번 나오는데 (3:1-10, 7:45-52, 19:38-42), 나올 때마다 예수에 대한 그의 행동은 애매하다.

[29] 그는 제자의 숨겨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밤에 찾아 온 니고데모의 경우와 같이 그의 숨겨짐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 보인다. 이점에서 그 역시 예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시 예수와 하나되는 과정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30] 김춘기, 171.

것이다.[31] 이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왜 이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만남이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려는 궁극적 만남은 애제자로 상징되는 익명의 제자들과의 만남이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으로 사마리아 여인, 왕의 신하, 간음한 여인, 나면서부터 맹인인 자, 애제자 등이다. 실명의 제자들과 달리 익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만나 그를 믿고 그와 함께 하면서도 예수에 대한 오해 없이 예수에 대한 그들의 신뢰성은 실명의 제자들을 능가한다.[32]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표적과 기적이 없이도 예수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감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녀는 제자들 조차 보지 못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을 보고 그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분을 통해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2.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1)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여인의 종교, 역사적 상황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로 부터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다.따라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요단강 건너편 베뢰아 지방으로 우회하여 갔다. 그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해묵은 감정 때문이었다.[33]

(1) 종교적인 이유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멸시를 받게 된 종교적인 이유는 그들이 혈통과 종교에 있어서 '혼혈 유대인'이었기 때문이다.[34]사마리아는 일찍이 이스라엘왕 오므리가 건설한 도시로서, 북 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기원전 8세기 북 왕국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수 많은 앗수르 주민들이 북 이스라엘에 정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

[31] Ibid.

[32] 김춘기, 165.

[33] 조연형,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호서대 연합신학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19

[34] Matthew Henry, *요한복음*, 이기문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7), 175.

결혼을 하였으며,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의 피는 그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원전 6 세기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재건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피가 더럽혀졌다 하여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그리하여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요새를 쌓고 있다고 거짓 고발을 했다(스 4:1,10).[35] 이들의 고발로 인해 유대인들은 성전건축 작업을 거의 포기해야 했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웠으며[36] 자신들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상속자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그리심 산에 세워진 북 이스라엘의 성전을 이방 종교와 혼합된 더럽고 배교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기원전 135-104 년 사마리아의 세겜과 그리심 산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사마리아 성읍은 하스몬네어 왕국에 의하여 파괴되어[37] 사마리아와 유대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다.

(2) 정치적 이유

기원전 1 세기에 이르러서는 로마의 폼페이가 사마리아를 재건하면서 사마리아는 자연스럽게 더욱 더 친(親)로마적이 되었고 이것을 보는 유대인들의 눈에는 사마리아가 더 이상 같은 유대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게 되었다.이러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단절을 가속화 시킨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기원후 6 년과 9 년사이, 유월절 한밤중에 몇 몇의 사마리아인들이 죽은 사람들의 뼈를 예루살렘 성전 뜰에 뿌림으로써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혔으며[38], 이 사건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가중 시켰을 뿐만 아니라 둘 사이의 미움과 분노는 더욱 더 심화되었다.

2)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

[35]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30.

[36] G.R.Beasley-Murray, *Word Biblical Commentary: John*,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1), 208.

[37]이화진, *요한공동체 안의 여성 제자그룹*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41.

[38] 박수암, *요한복음*, 130.

(1) 내적인 대화의 필요성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배교자요, 이방인이었다. 또한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부도덕한 삶을 통해 이 여인은 유대인들
에게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잘 알고 지내던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로부터 멸시와 배척을 당해야 했다.[39]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민자로서 미국의 주류사회 속에서 영원히 방문객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들의 마음과 상태를 대비해주고 있다. 예수님은 사람과 공동체로 부터 배제 되고 포용 되지 못했던 이 여인을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동등한 존재로 여기시고 대화하신다.[40]

오늘날 이민교회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풀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의 차이와 다름으로 인한 1 세대 이민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들간의 단절과 갈등의 문제일 것이다. 1 세대들은 이민이라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2 세대 자녀들의 미래와 가정을 위해 아낌없는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화를 잃어버린 교회와 가정에서 1 세대 중심적인 전통과 문화는 양 세대간의 관계를 더욱 더 멀어지게 했으며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느끼는 불신과 공허함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단절된 채 하나의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공동체로 살아아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민 사회의 미래와 한인 이민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세대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대화를 통한 참 만남의 기회가 절실히 필요하다.

(2)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만남과 대화의 방법

① 힘의 근원으로서의 연약함과 포기함

요한복음 4 장에서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3 중적 고통의 짐을 지고 있었던 주변인이었고 사회에서 가장 나약한 마이너리티 이였다. 그녀는 유대의 종교적인 정결법에 의해서 성전의 지성소로 부터 쫓겨났고, 또한 지역주의에 의해서

---

[39] Elizabeth Joy, "달릿의 입장에서본 사마리아 여자", *민중과 신학*, No. 9 (2002 년 봄), 72.

[40] Young Lee Hertig, *Cultural Tug of War: The Korean American Immigrant Family and Church in Transi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268.

정치적으로 소외 되었으며, 그리고 또한 가난한 자요 문화적으로는 가부장 문화 아래서 억압 받는 밑 바닥의 여인이었다.[41] 이러했던 여인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직적 권위, 문화적인 표준, 그리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우월감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상처받아 엉망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동일하게 상처받은 마음으로 만나신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으로서의 모든 힘과 기득권과 권력 마저도 내어 놓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반대로 상대적인 약자가 되어 도리어 여인에게 다가가 물을 좀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요한복음 4:6-7).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난 예수의 연약함과 패배하는 듯한 모습은 다른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막 7:24-30). 예수는 여인에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당치 아니하니라”(27 절)는 뜻밖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을 개로 전락시키는 예수의 모멸에 찬 야유와 갈갈이 찢겨진 자존심을 뒤로하고 예수와 합리적인 대화를 이끌어가길 원했던 인내의 사람이었고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지성과 믿음의 사람이었다.[42]

이러한 여인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었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28 절). 이렇게 여인은 유대인 다음으로 무한정 순서를 기다려야만 딸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예수의 논리를 단호히 거부한 것이다. 유대인과 남성이 다 먹기까지 기다릴 순 없다는 것이다. 이방인이라도 남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43]

수로보니게 여인은 의지의 사람이었다. 이 여인의 강경한 태도와 대답에 예수님은 자신의 입장을 바꿀 수 밖에 없게된다. 더불어 이 여인은 신약성서 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과 논쟁을 하여 이긴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이 이 여인이 강한 의지로 예수와의 논쟁에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의 패배와 연약함이 복음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 한 불쌍한 여인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

[41] 채수영, *요한복음의 여성신학을 위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58-59.

[42] 조태연. 차정식. 유승원, *뒤집어 읽는 신양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29.

[43] Ibid.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 진정한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열리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44]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의 연약함과 패배를 통해 그녀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과거 자신을 올가 매었던 수직적인 정치.종교적 위계질서와 옛 관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예수와의 연합을 통해 과거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에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와같은 확신 속에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확신과 신념의 사람으로 과거 자기와 같이 종교,역사,그리고 지역적 배타성으로 인해 주변인들처럼 고통받고 있는 처지가 같은 다른 사마리아 인과 여인들에게도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나눠주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예수의 연약함과 패배 하심에서 시작되었다.

성별, 인종, 계급, 그리고 종교 등 얼음처럼 차가운 장벽을 녹이는 것은 무력의 힘이 아니다.[45] 그것은 의무적으로 내몰린 문화가 약점이라고 정의하는 연약함을 통해서 가능하며 예수님은 연약함을 통해 가장 어려운 이데올로기의 간격을 다리 놓으셨다.[46] 이민 생활에 지치고 고달픈 한인 이민자 1 세들도 스스로 연약해 지시고 포기 되셔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의 모습을 통해 이민자로서의 아픔과 말못할 상처들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미국에서 주류 사회에 포함될 수 없는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운명 이지만 도리어 이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이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두 문화와 전통 속에서 방황하고 혼동 스러워하는 2 세대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1 세대들은 이곳 복합문화 속에서 주변인과 마이너리티로 살아오며 2 세대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 희생 해왔던 모든 것들이 2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며 도리어 이러한 연약함이 단절된 2 세대들과의 새로운 관계 개선을 위한 힘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사마리아

---

[44] 조태연, 유승원, 차정식, 31.

[45] Ibid.

[46] Young Lee Hertig, 269.

여인처럼 자신의 과거 부 적절하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아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1 세대 부모들도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감없이 2 세대들과의 대화와 참 만남의 열망을 통해 2 세대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그 동안 1 세대들과 단절되어 닫쳐진 그들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화의 문이 열려지게 될때 그 동안 이민 교회와 가정에서 수직적, 일방적 으로 이루어졌던 대화가 쌍방간의 아름다운 상호 존중적인 대화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진정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될 것이다.

② 일방적 대화가 아닌 상호 대화[47]를 통한 참 만남

헨리 나우엔은 미래 크리스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힘을 통한 지배의 리더십이 아니라 무력(Powerless)과 겸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48] 그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해서 힘과 권위에 의한 대화가 아닌 사랑으로 이끄는 대화와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힘의 사용을 포기하는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영적인 삶에서 힘이 없다는 것과 겸손하다는 것은 줏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생명을 찾고 또 풍성히 찾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다가오는 내일의 리더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이나 여벌 옷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여행하는 철저히 가난한 리더여야 합니다. 가난해서 육익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가난은 우리가 인도받는 자가 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참 지도력을 발휘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곳으로 바르게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풍요와 부는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거대해진 복합적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 점점 더 힘들어 하고 있다.

---

[47] 여기서의 상호 대화란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공감적(Empathy)대화를 의미한다.

[48] Henri J.M. Nouwen, *예수의 이름으로,*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8), 84.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만남, 참 만남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상호대화를 통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대화에 지친 우리들에게 참 만남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득권자 이셨던 예수는 먼저 연약함과 포기의 모습을 통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한 부분과 마주할 수 있게 한다 (요 4:10-18). 그러자 자기보다 월등한 사회적 힘과 권력을 가진 예수의 이러한 모습을 본 사마리아 여인은 드디어 자기의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고 이처럼 진실한 상호 대화를 통한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간의 신뢰를 통한 공감대는 마침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며 왜 지금 그녀에게 와 계신지 그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대화 하시려는 예수를 마음에 받아 들이게 된 이 여인은 그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과거의 잘못된 관계로 부터 벗어나서 도리어 자기를 힘들게하고 부끄럽게 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압박을 받던 객체에서 이제는 반대로 주체로 해방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예수와의 상호 대화를 통한 참만남을 통해 가능했던 것이었다.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여자와 남자, 과거와 현재의 선지자들, 그리고 지역감정 사이에 있는 외부적인 장벽에 대한 논쟁은 더 이상 문젯 거리가 되지 않는다.[49] 예수가 보여준 연약함을 통한 상호 대화를 통해 이민 교회와 가정들은 기존에 1 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적, 수직적,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들을 조금은 양보하고 이제는 반대로 1 세대들이 지금껏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신앙적, 문화적 전통들을 강요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겸손하고 연약하며 솔직한 마음으로 2 세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1 세대들의 노력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처럼 2 세대들도 처음에도 조금은 어색해 하고 놀랄지 모르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을 향한 1 세대들의 마음의 중심과 진정성을 깨닫고 자기들 만의 아픔과 이야기들을 1 세대들에게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쌓여진 상호 신뢰와 공감대를 통해 2 세대들의 아픔과 상처 뿐만 아니라 치열한 이민 생활에 지치고 고달픈 1 세대 이민자들의 아픔도 회복될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 온전하게 치유된 양 세대가

[49] Young Lee Hertig, 275.

새로운 신뢰 관계로 하나가 될때 이민교회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1 세대들만이 아닌 이제는 2 세대들과 함께 공유함을 통해 1.2 세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 공동체가 사회의 소외된 자들과 주변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총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참여자들이며[50] 이러한 포용성을 통해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공동체가 남성 지도자 중심의 예언적 종말론적인 공동체를 넘어서, 소외되고 고난 받았던 사람들이 해방자 예수와 연합 함으로서,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수평적인 묵시적 종말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역할을 통해 나타난 평등 공동체 적인 해방의 영성은 거대한 로마 제국주의와 가부장 적인 남성 중심의 예루살렘 제사 종교에 대항하여, 사마리아 지역의 교대 교회 차별과 억압이 없는 평등 공동체가 되게 하는 기점이 되었음을 요한복음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다.[51]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이민교회와 가정들은 상호 존중과, 이해, 그리고 화해의 공동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2 세대들과의 진정한 대화와 만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한 힘과 권력은 외부의 조건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서 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천한 요한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주고 인정해주며 새롭게 화합하며 하나되는 1.2 세대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쉐마[52]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유대인의 역사는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들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역사이다. 4 천년이 넘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나라를 가져본 시기가 솔로몬과 다윗 왕조시대의 불과 100 년 남짓 이라는 사실로

---

[50] Robert Kysar, *John the Marerick Gospel,* 나운채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6), 296.

[51] 채수영, *여성신학을 위한 연구,* 60.

[52] 쉐마는 신명기 6:4-9, 11:13-12, 민수기 15:37-41 절에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며 유대인 신앙 교육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본 장에서는 쉐마가 지니는 교육적 기능중 절기 교육에 촛점을 맞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미루어볼때 이 민족이 경험한 시련과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5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토록 오랜 방랑과 유랑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성을 유지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조상때로부터 물려받은 위대한 책 성경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민족적 신앙이었다.[54]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신앙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민족적 신앙은 분명코 지금까지 이어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과 민족적 전통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까지도 그들의 이러한 전통을 계속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교육의 대강령인 '쉐마'의 중요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 쉐마는 '들으라'는 뜻으로 신명기 6:4-9 을 지칭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매일 두 번씩 고백하여야 했으나 어린이, 여자와 노예는 여기서 제외되었다. 어린이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이 쉐마를 외우게 되고, 그 어린이가 노인이 되어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외우는 말씀이 바로 쉐마이다. 이 경우에서 보듯이 쉐마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 구조와 삶의 전 영역에 뿌리 박힌 신앙 고백이요, 유일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변함 없는 충성심을 나타내는 고백이다.[55]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쉐마를 통해 그들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교육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들의 신앙과 같은 민족으로서의 전통을 계승하여 온 세대를 아우르는 민족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라나게 된다.[56] 이와 같은 그들의 철저한 신앙과 자녀 세대를 향한 민족의식 교육은 부모와 자녀의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

[53] 권혁승, "'쉐마'와 유대인의 신앙교육", *활천*, No. 530 (1998 년 8 월), 47.

[54] Ibid.

[55] 정정숙, "이스라엘 종교교육 연구: 신명기 6:4-9 를 중심으로", *신학지남*, No.3 (1981 년 가을), 279.

[56] 한동구, *오경이해*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300.

역할로서 두 세대가 대화와 만남을 통한 공동체적 상호 공감대를 이루고 더불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내는데 크게 이바지 해왔다.

1) 의식 교육을 중심으로 본 쉐마

신명기 6:8-9 에서는 이스라엘의 교육방법 가운데 의식교육[57] 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의식교육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뉜다. 즉 도덕법(Moral Law)과 시민법(Civil Law), 그리고 의식법(Ceremonial Law)이다. 이중에서 의식법은 성결법 등의 비 의식적인 것들을 말한다.[58]

(1) 만남을 통한 축복의 교육

의식 교육속에는 하나님 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중심의 생활 교육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확실성 즉 메시아 교육이 포함된다.[59] 그러나 이 쉐마의 의식교육은 만남을 통한 축복의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의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된 백성들이 만나는 장(場)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의식 교육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며 동시에 의식에 따라 온 공동체가 여기에 참여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체험을 통해 일치감과 하나됨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한다.

(2) 세대간의 참여와 경험을 통한 공동체 교육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모든 예배 의식과 종교적인 의식에 연장자로 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참여함을 통해 진정한 신앙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60] 특별히 의식교육 중에서 절기행사는 유대인들을 세대에 상관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유대인 남자들은

---

[57] 의식교육은 보통 모세의 율법과 절기 교육을 의미하며 크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교육, 속죄를 통한 메시아 교육, 그리고 만남을 통한 축복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58] 정정숙, 290.

[59] 정정숙, 291.

[60] 한혜은, *유대인 가정교육 형식에 대한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48.

1 년에 3 번씩 즉 3 대 절기[61] 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준수해야 했다. 그러므로 가정 단위의 절기 준수와 지역 단위의 절기행사 그리고 민족 단위의 대 절기 행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경험에 의한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다.[62] 공동체 속에서 유대인 부모와 자녀들은 단절과 갈등 그리고 분리됨이 없이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세대간의 관계를 더욱 더 곤고하게 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가정 안팍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예식들은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방식에 따라 일방적으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대신 참여와 경험을 통해 1 세대들이 경험한 신앙과 역사를 2 세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2 세대들은 특별한 거부감 없이 이 전통에 참여하게 됨으로 1 세대 부모들이 가진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되며 동시에 그들 또한 한 사람의 신앙과 전통의 계승자로서 자라나게 된다.

Louis Sherill 은 예식에 두 가지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학습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를 자극하여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하여 고정적인 지식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
는 자료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다.[63] 가정이라는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행해지는 예식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왜 그렇게 하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다. 부모들은 이 질문들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의미를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그리고 예식에 참여한 자녀들은 곧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식에 기쁘게 참가하며 나중에 그들도 부모와 같은 행동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반복하게 된다.[64]

③ 절기의 축제화와 이를 통한 세대간의 화합

성서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절기(축제)가 등장하고 있다.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큰 감명을 받고 이스라엘 이라는

---

[61]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다.

[62] Ibid.

[63] 박은혜, *유대인 가정교육에서 비춰본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법 모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32.

[64] Ibid.

큰 민족 공동체 속으로 조직화 하게된다.[65] 특별히 성서에 나오는 여러가지 절기들 중에서 유월절[66] 이 가장 중요시 되었는데 이유는 바로 '출애굽의 사건' 즉 이스라엘의 기초적인 신앙체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사건을 기억하며 이 축제에 참여하는 행위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이며 동시에 이 축제가 단순히 개인의 구원체험에 대한 회고가 아닌 민족 공동체의 구원 체험을 위한 기념이 되는 것이었다. 또한 어린아이 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축제에 참여하여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음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현실의 어려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자녀들에게 상기시켜 주며 과거 조상들의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에서도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의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된다. 이와같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공동체는 그들 자신을 축제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축제는 개인이 아닌 세대가 모두 하나가 되는 민족의 축제요 그 속에서 민족의 통합을 이루는 동시에 예배와 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현재화를 이루게 된다.[67]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체험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자리로 역사적 체험, 그 느낌과 감동, 그리고 실제적인 결과 등을 가져오는 것을 뜻한다.[68] 한인 이민 교회들도 성경의 절기(축제)가 주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겨보고 Korean American 의 전통과 역사 그리고 신앙에 바탕을 둔 우리만의 절기(축제)의 개발을 통해 그 동안 단절되었던 1 세대와 2 세대간의 끊어진 신뢰감과 공감대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고립된 공동체가 아닌 열린 공동체 즉 민족적 공동체로서의 발전을 통해 이곳에서 자라나는 2 세대 들에게 Korean American 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정체성을

---

[65] 허영엽, *성서의 풍속*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6), 271.

[66] 유대인들을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한다. 그리고 절기 전에 누룩을 넣은 빵과 과자들을 모두 제거한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하는 저녁 약간의 빵을 숨겨놓는데 가장이 회당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 어린이들이 그 chomets 을 찾도록 한다. 찾은 다음에는 하얀 천에 그것을 싸서 다음날 아침 식사 후 그 남아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불태워 버린다. 절기의 의식이 어린이도 함께 참여하여 행동과 경험을 통해 의미를 배우게 된다.

[67] 한동구, "신명기의 교육사상", *복음과 신학*, No.1 (2008 년 봄), 21.

[68] 허영엽, *성서의 풍속*, 271.

심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이민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를 개발하는 데에도 이제는 한인 이민 교회와 가정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쉐마 교육과 같이 우리 한인 이민 교회들도 우리의 정서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만의 신앙과 복음을 개발하여 2 세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후일(마하르)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야훼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69] 이 쉐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녀들의 종교 교육은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야훼를 향한 민족 신앙은 어떠한 교육보다도 앞설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존재양식 이기에 그들에게 종교와 율법(토라)없는 이스라엘의 교육이나 생활 규범은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70] 이스라엘이 4 대 종교교육[71] 을 통해 대를 물려가면서도 이스라엘 민족과 전통을 바탕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면면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이민 교회들도 민족 종교가 아닌 한국 기독교를 우리의 정서와 공감대에 맞는 성서와 복음으로 발전시켜 이것을 통해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한겨레의 전통과 유산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도해 가는 민족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 2 세대 들에게 이것들을 함께 나누고 가르침으로 그 동안 단절되었던 세대간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민족적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온 세대가 힘을 다해 한국 기독교와 이민 교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한인 이민교회 내 세대간의 참 만남을 위한 노력

교회는 무리(群)이고 무리는 만남이다. 교회는 이러한 만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인 것이다.[72]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있다.[73]

---

[69] 신명기 6:20.

[70] 이병렬, *히브리민족 신앙의 뿌리와 역사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서울: 요단출판사, 1985), 261.

[71] 쉐마, 토라, 모라(선생), 그리고 호라(이스라엘의 부모).

[72] 임종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대한기독교서회*, No. 5 (2003 년 5 월), 268.

교회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간의 만남의 공동체 이다.[74] 따라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성도와 성도 그리고 1 세대와 2 세대간의 상호 관계를 통한 만남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감과 상호 일대치를 통하여 세대간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75]

교회는 서로를 나누어 고르게 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마침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한인 이민 교회들 역시 1 세대와 2 세대간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관계의 회복을 통해 한인 이민 교회가 지향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인 이민 교회는 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세우고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이민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1.2 세대 모두 마음을 열고 한인 이민 교회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세대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참 만남의 실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에서 분석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여섯가지 전통 가치가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76]

(1) 친예성 : 친구관계나 계약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보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

(2) 안면성 : 아는 사람을 남과 다르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는 의식.

---

[73] 고린도전서 1:2.

[74] 임종수, 269.

[75] 요한복음 17:21,23.

[76]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 삼성복지재단, 1996), 175.

(3) 형식성 : 내용 뿐 아니라 내용을 표현하고 제시하는 격식과 절차를 중요시 하는 성향.

(4) 서열성 : 나이에 따른 서열을 중시하여 서열이 높은 나이 많은 윗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에 따르려는 성향.

(5) 의존성 : 부모는 자식을 책임지고, 자식은 부모를 봉향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성향.

(6) 획일성 : 한 단체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좋고,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

기성 세대들의 이러한 전통적인 가치에 반하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다음의 7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77]

(1) 합리주의 : 인간관계나 과업에서 정실에 치우치기 보다 합리성을 추구.

(2) 다원주의 :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

(3) 개방주의 : 모든 일은 은폐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식.

(4) 개성주의 : 개성을 중시하고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

(5) 감성주의 : 분석하고 따지기보다 느낌과 직관을 중시하는 성향.

(6) 경제주의 : 일을 처리할 때 , 경제적 문제와 능력을 중시하는 성향.

(7) 여가주의 : 여가를 즐기는 것을 중시하는 성향.

이와같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가 내놓은 이 열 세가지의 특징들을 분석하면, 기성세대의 특징 중에서도 청소년들이 비교적 강하게 내면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특징 중에서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들보다 더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78] 즉 어떤 가치는 청소년들이, 어떤 가치는 기성세대가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으며, 어떤 가치는 양 세대가 공히 내면화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이다.

---

[77] Ibid., 218.

[78] Ibid.,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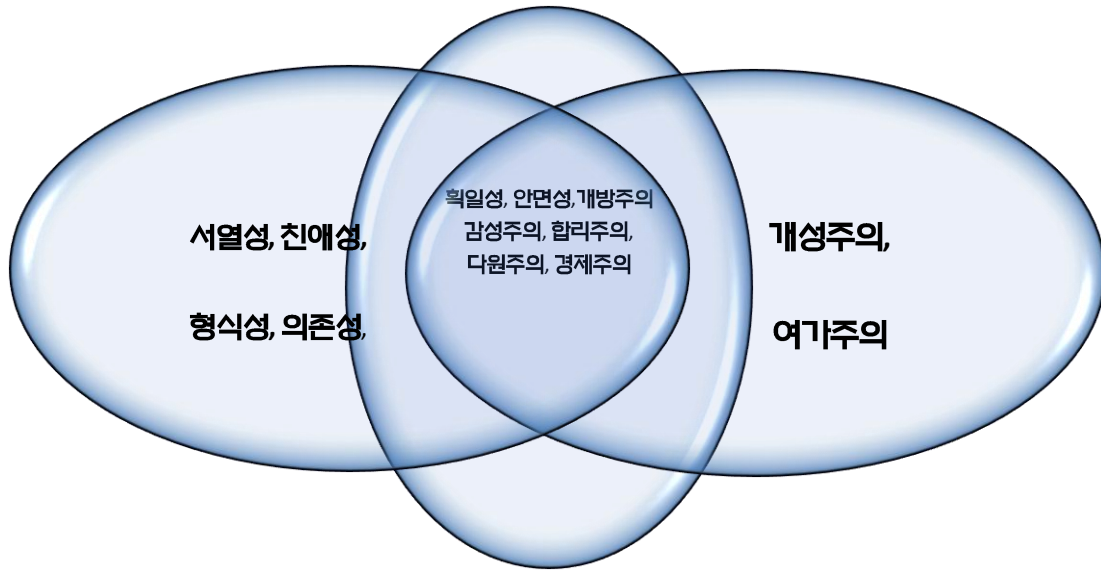



표-2

위의 도표가 보여주는 바와같이 기성세대들의 특징과 청소년들의 특징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양 세대가 거의 특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만의 특징들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인 이민교회들은 2 세대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양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감대를 통한 예배와 프로그램 그리고 커리큘럼의 개발 및 장기적으로 교회비전 수립과 같은 교회행정에 이러한 공감대적인 요소들을 적용함으로 대화와 만남을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인 이민교회와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세대간의 화합과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1 세대들은 2 세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통한 봉사와 섬김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한 이러한 마음을 통해 그들의 다치고 상한 마음들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한 참 만남을 통해 어루만져 줄 수 있어야 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연민과 치유는 단순히 값비싼 동정도 그리고 이를 통해 군중들의 경외감을 유발하려는 인위적인 행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통한 사회적인 갱생과 전 인격적인

치유 곧 공동체의 회복이었다.[79] 예수의 연민과 치유의 사역들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은 바울의 '화해의 신학'으로 그리고 '평화의 신학'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혀진 담을 헐어내는 동시에 이제는 교회의 공동체 안의 그 누구도 언어와 문화 나이와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화해와 평화를 선포한다.[80]

이처럼 한인 이민 교회들도 2 세대들과 대화를 통한 진정한 만남을 통해 예수가 가르쳐주는 대로 2 세대 들의 입장에서 수용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포기하고 수용해 줌으로 복음의 역사를 통한 사랑과 화해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2 세대들 또한 1 세대들이 지금껏 노력해왔던 희생과 눈물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부모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감대를 통해 세대간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인 이민 교회들 역시 한인 이민 교회만의 전통과 문화의 축제화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참여함으로 자연스러운 세대간의 유대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진정한 민족 신앙공동체로 발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신약 성서에 보면 '서로 함께하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만남과 상호 관계의 회복은 오직 가족만이 줄 수 있는 친밀한 분위기를 통해 서로 수용되고 인정되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격려와 친밀감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따라서 현재 이민 교회들은 세대간의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상호간의 갈등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을 가정의 회복을 통해 두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통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1.2 세대 모두가 서로 나누어진 공동체가 아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로서 인정받고 수용되는 진정한 만남, 상호 소통적인 관계의 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79] 차정식 외, *한국인을 위한 최신연구 신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18.

[80] 조경철, *신약성서가 한눈에 보인다* (서울: 땅에쓰신 글씨, 2007), 249.

Ⅱ. 참 만남을 통한 Korean-American 들의 주변성 극복

1. 주변성 (Marginality)

1) 주변성의 의미

일반적으로 말해서 주변성은 변두리, 끝 또는 집단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집단을 지배하는 중심, 중앙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변두리에 속한 사람은 비록 그들이 그 집단의 일부분으로 여겨진다 할지라도, 지배 집단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외자이다. 그들은 지배 권력의 구조 밖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약하고 무기력하다.[81]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변화된 사람들이라고 말할때는 중심으로부터 배척받는 인종적 소수자들, 여성 실직자, 가난한 사람, 문맹, 노숙자, 장애인, 에이즈 감염자, 그리고 동성 연애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82] 이와같이 주변인들은 일반적으로 소수인종, 여성, 가난한 사람, 아픈사람, 그리고 희망 없는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같이 주변성은 매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특별히 앞으로 다루게 될 이정용이 주장하는 주변성[83]은 인종과 문화에 한정된다.[84]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주변성은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요인과 배경에 의해서 발생되게 되는데 이정용에 의하면 인종과 문화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또한 문화적 요소와는 달리 인종적인 요소는 결코 바꿀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2) '주변성' 개념의 발전

---

[81] 이정용, "주변성: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신학적 방법", *세계의 신학*, No. 15 (1983 여름), 102.

[82] 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32.

[83] 이정용 교수가 주장하는 주변성은 정치, 경제, 교육, 성, 그리고 문화적 요인에 의한 주변성이 아닌 인종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차별과 거부 그리고 냉대를 통한 주변성을 의미한다.

[84] 김현수, *이정용의 신학 방법론: 음양상징적 사유와 주변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 대학원, 2010), 46.

전문적 용어로서 “주변성” 또는 “주변인”이라는 말은 사회 과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다. Robert Park 과 Everrett Stonequist, George Simmel, 그리고 Warner Sombert[85]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주변인 이라는 개념은 두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두 문화 중 어느 편에도 속해 살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표현하기위해 사용 되어졌다. 이들 중에서 Stonequist 는 주변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사람(주변화된)은 그의 영혼을 반영하는 조화와 부조화, 매력과 혐오 이러한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사회 사이에 있는 심리적인 불안정 속에서 균형이 유지된다. 하나는 종종 다른 것에 지배적이다. 구성원은 출생 혹은 조상 (인종 혹은 민족)을 창출하는 토대가 된다. 그리고 배척과 결합해서 관계 집단의 시스템으로부터 개별적인 것을 제제한다.[86]

주변인은 두 세계에 살아 가면서 어느 세계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두 세계 혹은 그 이상의 세계에서 살아 가지만 모두의 세계에 끼어 (In-Between)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경계선 상의 인생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권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 다양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어느 곳으로 부터 환영 받고 소속될 수 없는 운명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Stonequist 와 같은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한 주변화 개념이 이와같이 수직적이고, 경직화된 조직과 사회 구조 소외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위축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변화의 모델로 삼았다면 네덜란드의 인류학자인 Arnold van Gennep 는 이러한 주변화의 개념을 ‘margin’ 또는 ‘limen’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Arnold van Gennep 의 뒤를 이어 Victor Tuner 는 이것을 더욱 더 발전시켜 ‘Liminality’ 라는 개념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된 주변성의 개념이었다.[87] 이러한 Liminality 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원치 않는 인종적 장벽에 의해 좌절감과 큰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두 세계의 틈 (In-

---

[85] 이정용, *주변성: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신학적 방법*, 102.

[86] E. Stonequist, *Marginal Man: A Study in Personality and Cultural Conflict*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61), 138.

[87] 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eds.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ilgri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58.

Between) 과 두 문화의 경계선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의 모습을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의 저자 Ronald Takaki 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수 많은 아시아인들 중 대부분은 이 땅에서 본국의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손자들과 증 손자들 까지도 그들이 미국에 초대 받지 않는 손님 같다는 고백을 한다. "우리는 마치 어느 집에 초대 받지 않은 게스트 같다" 고 National Director of the Japanese American Citizen League 의 3 세 Japanese-American 인 Ron Wakabayaski 는 말하고 있는데 "집에서 식탁 밑으로 발을 뻗는 것 같은 편안함을 이곳에서는 느낄 수 없다" 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88]

아시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초대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갖을 수 밖에 없게된 근거로 Takaki 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한 이들에 대한 중심부 사람들[89]의 편견 때문이라고 주장한다.[90] 따라서 미국 안에서 아시아 이민자들이 '낯선인 (Strangers)' 으로 변화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이 낯선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보다는 보다 더 분명한 역사적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들이 유럽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에 비해 중심부의 사람들로 부터 낯선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사실이다.[91]

이와같이 한인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다른 아시아인들 역시 두 세계로 부터 거절 당하는 주변인으로 서의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혈연적으로도 거주지에서도 속할 수 없는 이곳 미국 땅에서 피부색과 언어가 달라 소수 민족과, 낯선 사람들로 살아가야만하는 것이다.

2. 한인 이민 가정들과 주변성

1) 한인 이민자들의 주변성

---

[88] Ronald Takaki,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Boston. New York. Lond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89), 11.

[89] 소위 우리가 말하는 W.A.S.P. (White, Anglo Saxon, Presbyterian) 을 의미한다.

[90] Ibid.

[91] Ibid., 12.

1 세대 이민자들이 이민을 결정하게 된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녀들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진지한 염려와 걱정 때문일 것이다.[92] 미국에 사는 Korean American 들은 미국 주류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인종적 차별과 멸시를 당하고 또한 두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경계선적인 삶을 살아야 했지만 가정과 자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그들은 기꺼이 희생을 감수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1 세대들이 경험한 변두리성은 단순히 무시해도 좋을 만큼 가벼운 것은 절대로 아니었다.[93] 그것은 1 세대 이민자들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 복합문화 속에서 매일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던 현실이며 동시에 이민자로서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아픔과 쓰라린 상처를 주는 것 이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인정과 용납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존재이다.[94] 그 이유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주어진 하나의 사회 안에서 하나의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존경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은 결코 살아갈 긍지를 가질 수 없다.[95] 따라서 이곳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그에따른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 주류 사회로부터의 외면과 불신을 통한 주변성 (Marginality)과 사회적 지위의 불 일치성 (Status Inconsistency)[96]은 한인 1 세대들을 정체성의 혼란으로 내몰았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그들만의 보상 심리는 한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통해 보상 받고자 하는 심리로 작용하고 있다.

2) 주변성이 한인 이민 가정들에 미친 영향

전 세계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핵 가족화와 세계화에 따른 빈번한 이동과 이주는 기존의 전통적 가족이라는 가치와 권위를 잃어가게 하는 큰 요인이

---

[92] 1990 년대 이후부터 이민의 특징은 교육형 이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형 이민의 증가 원인은 세계화라는 국제 정세속에서 미국이 가지는 위상과 가치로 인해 영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또한 한국 내의 사교육비 과대 지출과 부담 및 이에따른 공 교육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93] 1 세들이 낯선 미국 땅에서 경험하게 된 주변성은 그들의 심리와 정서에 심각한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한국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잃어버린 권위를 통해 더욱 더 심각하게 자녀들과의 정상적인 대화과 관계를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94] Sang Hyun Lee, eds. *Korean American Ministry* (New Jersey: Han Geul Printing Co, 1987), 46.

[95] Ibid.

[96] 유의영, "이민교회의 미래", *기독교 사상*, No. 10 (1990 년 10 월), 181.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현대의 가정들이 변화하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과 언어가 완전히 다른 다른나라로의 이민은 가정을 더욱 더 어려움 속에 빠트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가정 내의 구성원들마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97]

* 가정에서 보여지는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차이점[98]

북미문화	한국 문화
자기 생각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미덕이라고 생각함	남에게 정면으로 대하는 것은 무례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가족의 일원과 조화를 강조
자기 용돈은 스스로 해결하여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음	수입은 가족 공동의 것, 가장이 가족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지게 됨
가족의식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	가족의식이 매우 중요함
가족들과의 대화는 필수적이고 의무적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함

표-3

위의 예에서 처럼 같은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도 미국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에 따라 구성원들 간에 원치 않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세대들은 언어와 문화가 전혀 다른 이곳 환경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족성 (Ethnicity)에서 찾으려는 반면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2 세대들은 공 교육을 통해 북미 문화와 쉽게 순응[99]해 나가면서 1 세대 중심의 가정과 이곳 문화에 익숙한 2 세대들 사이에서 원치 않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같은 세대간의 갈등은 이민 가정의 특성상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부모들과 자녀들간의

---

[97] Young Lee Hertig, 166.

[98] 권상길, *코메리칸 자녀교육*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9), 54.

[99] Melting Pot 이론의 창시자 Zangwill 의 동화 개념처럼 접촉, 경쟁, 갈등, 순응, 그리고 동화의 단계에서 주변화된 사람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는 단계가 바로 순응 단계이다. 이정용 교수는 이 순응의 단계에서 한인 2 세대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들은 이곳에서 완전한 공교육을 통해 1 세대 부모들의 문화적 전통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이곳 주류 사회에 완전히 동화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류 사회로부터 받는 인종차별은 오히려 한인 2 세대들의 이곳에서의 완전한 동화를 방해하고 동화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더 주변화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대화와 감정 전달의 서로다른 이해를 통해 두 세대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1) 부모와 자녀와의 부족한 관계성

이민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가정 내에서 자녀들을 보살펴주고 다양한 교육적 사례를 통해 자녀들을 이끌어줄 부모의 부재 현상이다.[100] 부모의 역할 가운데 자녀들에게 올바른 습관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교육자로서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카운셀러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101]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 자녀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한인 이민 가정들의 부모들은 이와같은 역할을 감당 하기에는 여러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다. 실제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되어 10 년 미만의 정착 단계에 있는 한인 이민자 부모들은 생계를 위해 밖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안정적인 미국 가장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느끼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그들의 2 세대 자녀들과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인 이민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현실을 Cultural Tug of War 의 저자인 Lee Young Hertig 는 그가 인터뷰한 미연이라는 학생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미연은 엄마가 가정에서 일을 시킬 때 자세하게 일의 내용을 말해 주거나 인도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미연의 말에 따르면, 엄마가 거의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식이기 때문에 미연이 피곤할 때나 별로 할 기분이 아닐 때는 힘들다고 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냉담하고 방임적이다. 그는 매일 밤 텔레비젼이나 한국 비디오를 보는 것으로 도피한다. 셋째 딸인 미진은 슬프게 말한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와 전혀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요. 그들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 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그리고 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많이 고함을 지르는 것 외에는 거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싫어요."[102]

---

[100] 김종선, *디아스포라 신앙의 자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9), 13.

[101] 민병갑 외 9 인, 미국속의 한국인 (서울: 유림문화사, 1991), 231.

[102] Young Lee Hertig, 170.

이곳의 복합 문화 속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 초기 끈끈했던 가족 구성원들간의 유대감은 가족들 각자가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받게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여러가지 부정적인 증상들을 통해 약화되게 된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의 감정을 더 이상 배출할 수도 받아줄 기능도 잃게 된 가정은 결국 가족 상호간의 분리와 단절을 가져오게 되고 마침내는 가정의 해체라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한다.

(2)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세대간의 갈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일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문화의 산물인 만큼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1 세대와 2 세대가 선호하는 문화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간의 차이[103]

대인관계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동등한 관계 (수평)	상하 관계 (수직)
모든 것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	상대방을 상하 관계로 파악함
비형식적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짐	형식을 갖춘 상호 관계가 이루어짐
대화와 행동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음	언어와 행위의 법칙이 매우 복잡함

가치관

미국 문화	한국 문화
개인 권리 중심	책임과 의무 중심
개인의 권리가 우선된다.	상하 위치의 차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개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적절한 기능 수행을 강조한다.

태도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자기 주장 및 자신의 표현이 중요	권위 존중과 순종을 강요
개인의 권리를 절대 주장함	복종을 강요당함
개인의 생각과 감정표현이 자유로움	할당한 임무에 순응하여야 함

[103] 권상길, 50-51.

주체의식

미국 문화	한국 문화
개인 능력과 성취	집단 내의 개인의 지위
개인 능력, 성취, 성공이 중요함	가족 단위, 교회 회사 등 집단의 성취가 중요함
개인의 특이한 자질을 개발하는 분위기	집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자기 개발만 허용
자주활동으로 개인의 성공을 도모함	집단의 성공과 유익이 최우선임

사회활동

미국 문화	한국 문화
적극적 참여	관찰과 계승
참여를 통하여 결정에 동참함	보고, 듣고, 행함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교환함	명령 및 요구로써의 대화가 이루어짐

사고방식

미국 문화	한국 문화
분석적, 체계적	전체적, 인상적
인식적 문제와 감성적인 문제를 구별하고 객관적 문제와 주관적 문제를 구별함	인식적, 감정적, 그리고 객관적, 주관적 의식이 혼합되어 있음
순차식 대화 교환	자연적 혹은 동시적 대화 교환
자유로운 사고와 교육 방식	형식화된 교육 방식

표-4

보통 미국에 처음 정착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미국 사회에 쉽게 동화되거나, 이렇게 쉽게 동화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미국사회 속에서 한인사회 건설을 지향하기도 하며, 또한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사회에 공헌하며 더불어 한국인의 전통을 이어 나가려고 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분리해 볼 수 있다.[104]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 막혀 한인 사회의 인종적, 문화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인 이민자들의 특징에 대해 퀸스 칼리지의 민병갑은 "한국인 이민 1 세대들은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식으로 식사를 하고 한국 이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민족성을 유지해 나가는데는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지만 반대로

[104] 윤 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 년의 발자취와 비전: 미국 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한인의 모습을 찾아서* (서울: 보이스사, 2002), 26.

미국 사회에서의 동화는 매우 느리다”[105]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미국 문화에 익숙한 자녀들과의 원할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통해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속에서 2 세대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두 세계[106] 모두를 이해하여 줄 수 있는 부모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와같이 세대간의 원할하지 못한 의사소통이 양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언어를 통한 문화적인 갈등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1 세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2 세대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분명히 다른데, 1 세대들 대부분은 이곳 미국에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자신들 역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이민자로 서의 꿈을 자녀들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교육적인 기회들을 2 세대 자녀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1 세대들과는 반대로 이곳의 문화에 익숙한 2 세대들은 1 세대들의 이러한 외부적인, 외향적인 자아의식[107]과 성취 지향적인 세계관에 비해 1 세대들의 이러한 체면문화, 겉치레 문화 보다는 그들 스스로 능력껏 정당하게 노력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내면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대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 세대들은 자기들을 위해 이민자로서 낮선 이곳에서 고생하고, 희생하는 1 세대 부모들의 모습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부모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지금 보다 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다. 따라서 원할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통한 세대간의 갈등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의 다름에서 오는 차이 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결과일 수 도 있음을 Lee Young Hertig 교수는 2 명의 한인 2 세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난 그 문제를 부모님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아버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주 늦게 집에 온답니다. 그러나 그건

[105] 민병갑, 미국의 소수민족 (뉴욕: 가나안인쇄, 1991), 178.

[106] 1 세대 중심의 보수적이며 유교적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자기들에게 익숙한 미국문화와 학교생활.

[107] 이와같이 1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 외부적 자아의식 (체면)은 한국인의 세계관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사상이다. 그러나 외적인 삶이 내면적인 삶에 비해 더 강조되는 삶은 진정한 삶을 버리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외부의 삶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살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괜찮아요. 엄마와도 이야기를 하려고 시도해 봤지요. 그렇지만 엄마는 내가 대관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내가 모든 걸 설명하고 나면 엄마는 멍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지요. 나는 친구들에게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들이 내가 어떤 걸 겪고 있는지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좌절했던 것은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에요. 나는 부모님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내 내게 화를 내고 나는 곤경에 처해 버렸어요. 머지 않아 나는 그들에게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괜히 이야기해서 어려움에 처하겠어요? 부모님은 본인들이 내 삶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서는 이내 내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곤 해서 날 좌절케 했어요. 나는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하면 내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권리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이 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내가 그들에게 충고를 털어놓고 싶을 이유가 있겠어요?" [108]

여기 두 명의 한인 2 세대들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1 세대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좌절감은 언어적인 장벽 보다는 2 세대들을 대하는 1 세대 부모들의 비 언어적 표현[109] 즉 무관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민 생활의 고단함이 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1 세대들은 언어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2 세대 자녀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자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상황은 1 세대와 2 세대의 관계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한인 이민 가정에서 1 세대와 2 세대와의 언어를 통한 갈등은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건네는 상호간의 의사 소통이다.[110] 비록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다른 세대를 향한 사랑과 관심은 이곳의 복합 문화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1 세대와 2 세대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 따라서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1 세대들의 2 세대들을 향한 비 언어적인 관심과 사랑은 2 세대들과의 참 만남의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양 세대간의 상호 공감대를 통해 미래 한인 커뮤니티의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

[108] Young Lee Hertig, 208-210.

[109] Ibid.

[110] Ibid., 226.

3. 한인 이민가정의 주변성 극복과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신학[111] 적 제안.

(1) 이정용의 초월적 의미(In-Beyond) 를 통한 주변성의 극복

이민자의 정체성은 주변인성과 경계성이 특징이다. 문지방(Limen) 밖에서는 가게 직원이지만 집 문지방을 통과하는 순간 아버지가 된다. 문지방은 인간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112] Victor Turner 는 이 '리미널' 상태에 놓인 개인이나 집단은 주류 집단에 의해 비가시적인 존재, 어중간한 존재, 익명의 존재로 규정 되지만, 사회 변화는 그러한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구조적 애매성 속에 있는 자들의 창조적 역할[113]을 강조하고 있다.[114]

이러한 주변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정용은 먼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으로서의 주변성[115]과 더불어 두 세계 모두를 긍정하는 주변성[116]을 강조하고

---

[111] 본 연구자는 여기서 한국 신학을 Korean Contextulized Theology 즉 한국과 한국인의 상황에 맞는 신학적 방법에서의 한국 신학을 제안한다.

[112] 옥성득, 미국 한인 개신교회의 사회적 책임,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28 (2008 년 가을), 182.

[113] 경계성의 창조적 기능은 첫째, 새로운 것에 대한 포용성, 둘째, 이타적 관계로 이루어진 진정한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의 구조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포함된다.

[114] 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55-69.

[115]이정용 교수는 주변성 극복을 위해 먼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과 긍정적 마음은 자기의 색깔 즉 인종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한인 이민 2 세들을 보면 안타깝게도 그들 스스로 백인들에 대한 외모와 색깔 컴플렉스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그들은 백인들의 모습을 그들의 롤 모델로 삼고 그들과 닮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 수록 더욱더 백인들로부터 외면 당할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자신의 정체성 마져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 이정용 교수는 한국인 이민자들과 아시아 이민자들 모두가 더 이상 백인들과의 비교를 통한 열등한 이미지로서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다 더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아시아인의 이미지로서 자기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피부 색깔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주변성이 자칫 지나친 민족주의 성향으로 매몰되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배타적인 방향으로 기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정용 교수는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이정용 교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주변성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주변성의 인식을 통해 자기 중심적이고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를 주변화시킨 중심부의 사람들에게 까지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정용 교수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는 모두 두 세계 (In-Both)속에 살고 있으며 동시에 모든 곳(In-All)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주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포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로서 더 이상의 색에 따른 인종의 구분 없이 모두가 동등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보고 노력하는 주변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의미의 주변성 극복 방안을 확대 해석한 초월적 의미로서의 주변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이정용이 말하는 초월적 의미의 주변성이란 두 세계 사이(In-Between)와 두 세계 모두(In-Both) 의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주변성을 의미한다. 이정용 교수는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정의 모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에 의해 제시되는 주변인에 대한 새로운 통전적 정의는 두 세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주변인 즉 초월적인 삶(In-Beyond) 을 사는 사람이다.[117] 이와같이 이정용 교수의 새로운 주변인에 대한 정의는 주변성에 대한 통전적인 정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주변인의 삶은 두 색 모두다 두 세계 사이의 삶이 섞임 없이 상호 공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시아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Korean-American 의 1.2 세대 이민자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과거의 고전적이고 부정적인 주변성의 이미지로 표현되는 고단하고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동일화시켜 왔다. 그러나 이정용 교수에 의하면 이제는 이러한 중심과 지배 집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형성되어온 이러한 부정적이고 나약한 이미지는 과거의 일방적인 이미지(In-Between) 와 긍정적 이미지(In-Both) 양쪽을 포괄하는 통전적 이해를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

[116] 여기서 이정용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주변성은 앞서 이야기했던 전통적 의미의 주변성을 대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성의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현대적 해석을 내리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고전적 의미의 배타성에서는 두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변두리 즉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In-Between 이라는 단어로 정의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변성의 정의에서 주변화된 사람은 무 존재 (Non-Being) 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현상을 통한 주변화된 사람이 느끼게되는 문화의 이중성에 대한 경험은 동시에 그들 개성의 이중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는 주변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지배적이고 중심부적인 사람들 때문이다. 따라서 중심이 존재하는 한 상대적으로 그 중심의 밖에는 주변부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정용 교수는 이와같은 전통적 의미의 주변성을 현대적 의미의 주변성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새롭게 재 해석된 주변성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와같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이정용 교수는 더 이상 두 세계에 끼어 (In-Between) 주변인으로 사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두 문화의 경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문화의 경계에 낀 (In-Between)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두 세계 모두 (In-Both) 에 속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주변인인 아시아인도 중심부인인 미국인도 아니라는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아시아인과 미국인은 하나라는 의미이다.

[117] 김현수, 65.

이와같은 관점에서 Korean-American 1.2 세대 들은 지금까지 그들을 이방인, 타인, 국외자, 그리고 비 실존자로 규정해온 부정적인 주변성(In-Between) 으로부터 벗어나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118]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그리고(그 세계를 뛰어) 넘어서"(In and Beyond) 이제는 새로운 정체성을 통해 과거 상처받은 주변성을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인 소수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119] 이러한 새로운 자기 정체감에 대한 정의를 통해 한인 이민 1.2 세대는 이제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바로 바라보고 이를 신학화 함으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통해 역설적으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두 세대간의 화합과 하나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며 마침내는 두 세대를 화합할 수 있는 초월의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Korean-American 1.2 세대 들은 더 이상 두 사회 사이에서 또는 두 사회 밖에서 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두 세계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넘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다.[120] 과거에 Korean-American 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소수 인종들은 아시아인도 미국인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양쪽 어느 곳에도 속할 수 없었던 주변인들 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정의를 통한 부정적 주변성으로부터의 해방과 더불어 새로운 이민자로서의 긍정적 정체성의 회복을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소외된 사람으로 두 세계 속에서 속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도록 위임 받았다는 사실[121] 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Korean-American 이민자들은 한국인 이상이며,

---

[118]여기에서 말하는 '포용' 은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있다는 실감을 하나도 잃지 않은 채, 동시에 타자의 관점에서 공통의 사실을 체험하면서 사는 태도를 의미한다. 뒷 부분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부버는 이것을 타자의 입장에서 경험하는 것 이라고 말한다.

[119] 이정용, 주변성: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신학적 방법, 105.

[120] Ibid.

[121] 이것에 대한 보다 확대된 해석으로 프린스톤 신학대학교의 이상현 박사는 Korean-American 들을 순례자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로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 이방에서 거주하는 나그네의 길로 부르셨던 것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고 있는 나그네, 주변인의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국인 이민자들을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가를 초월하여 큰 꿈을 가지고 인류를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도성을 이 땅에서 추구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한인 이민자들에게 주셨다는 순례자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미국인 이상이다.[122] 그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지배적인 사회의 주변부, 끝, 그리고 경계선에 속해 있지만 그들의 주변부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며 이제는 오히려 두 세계를 넘어 오히려 두 세계의 중심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주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Korean-American 이민자들은 해방된 된 사람들이며, 자유로운 사람들이며, 그리고 갈등하는 두 세계를 자신 안에서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123] 또한 중심부의 사람들과는 달리 두 세계의 동향과, 깊은 사고와 자료들을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124] 이러한 의미에서 이정용 교수는 새로운 주변인을 화해자, 두 세계를 향한 상처입은 치유자로 묘사한다.[125] 중심의 기준과 관점에서 주변은 중심자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차별과 거절 그리고 소외의 상황들만이 발생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두 세계를 초월한 주변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때 이제는 주변을 통하여 진정한 소통과 대화 그리고 조화와 화합과 같은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상황 속에서 Korean-American 이민 1.2 세대들도 과거의 아픔과 소외되었던 기억으로 부터 벗어나 새로운 주변인으로 서의 정체성과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긍정적이고, 포용적이며, 희생적인 새로운 주변인으로 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마주보고 공감하며 결국에는 치유할 수 있는 상호 존중적인 견고한 Korean-American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간의 단절과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정용 교수와 같은 다인종적인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신학적 관점에서 두 세대 모두 미국이라는 이곳에서 주변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주변인으로서의 이곳에서의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두 세대가 머리를 맞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온 세대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공감대를 통해 이민자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이러한 형편과

---

[122] Ibid., 106.

[123] 김현수, 66.

[124] Peter C. Phan, Jung Young Lee, eds. *Journey at the Margin: toward an Autographical Theology in American-Asian Perspectiv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9), xx.

[125] Jung Young Lee, 63.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있음을 모든 세대가 깨닫고 먼저 1 세대들이 2 세대 자녀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서 세대를 억눌러왔던 주변성의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는 첫 단추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2) 조원희의 정(Jeong) 이론을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

① Korean-American 1.2 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한 (恨)

사회학자들은 우리 민족을 한(恨)[126]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한다.[127] 이 말은 다른말로 한국인의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서로 한을 통해 한국인의 감정과 심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한은 그 유일성으로 인하여 한국적인 것이라는 보다는 한의 맺힘이 많은 역사를 지내 왔다는 의미에서 한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한은 곧 한국인의 근원적인 심성이며 한국 문화의 정신으로 표상화된 한국인의 집단적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128] 또한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The Wounded Heart of God)의 저자 Andrew Sung Park 은 한(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한은 불공정한 정신적 압박이나 또한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압력에 의해 상처 받은 마음으로 정의 될 수 있다. 한은 또한 죄와 폭력에 의한 희생자의 마음으로 확대될 수 있고 슬픔과 좌절 그리고 증오를 통해 표현 되어지기에 복수를 동반하게 된다. 이와같이 한은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영혼과,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혼한 가정의 자녀들, 아동학대 희생자들과, 그리고 직업을 잃고 쫓겨난 사람들 속에서 울려퍼지고 있다.[129]

[126] 한(恨)이라는 단어는 한문이지만 이미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적응하게 되면서 원래 한자의 의미보다는 한국의 정서에 맞는 독특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한(恨)은 마음을 뜻하는 심(心)과 가만히 멎어 있다는 뜻인 간(艮)과의 조합된 문자이다. 나무 뿌리가 땅속에 가만히 멎어 있기에 근(根)이듯이 마음속의 상처를 가만히 간직하고 있는 상태가 한(恨)이다. 달리 말하면 외부의 충격을 반사하지 않고 마음속에 수용 처리하는 과정으로 한이 차지하는 의미공간 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의미 공간에서 원의(原義)의 한은 원한을 품은 상태, 그리고 원한을 품게 한 외부족 요인을 증오하고 그 원한을 품은 자신을 슬퍼하는 그런 속성을 내포한다.

[127] 이호우, "민중(民衆)신학과 한(恨)사상에 대한 연구", *일립전총*, No. 7 (2001 년 봄), 119.

[128] 손호익, *민중의 한(恨)과 공동체성*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3.

[129] Andrew Sung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The Asian Concept of Han and the Christian Doctrine of Sin*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10.

이와같이 한의 발생 원인은 개인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또한 이와는 반대로 사회 구조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恨)에 대한 복잡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恨)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 삶에 가장 널리 뿌리내리고 있는 우리 민족의 숨결과 함께해온 보편적인 감정을 이해함으로서 한국인의 참 모습 즉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30] 또한 이로서 우리는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이며 이러한 강점과 약점을 통해 세대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恨)의 여러가지 발생 원인들 중에서도 Korean-American 이민자들의 주변화된 삶과 연계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편견[131]과 차별[132]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한(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곳 미국에서 Korean-American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인종 차별주의는 그 나름의 체계를 지닌 하나의 종교이다.[133] 그 주요 교리는 어떤 인종들이 다른 인종들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인종 차별주의는 한 집단이나 정부의 방침에 이른바 우수하다는 인종에 대해서는 호의를 베풀고 열등하다는 인종에 대해서는 냉대를 하는 것이며, 또한 한 인종이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적 행위 및 증오를 말한다.[134] 이와같이 다른 인종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증오심은 당사자(Victim) 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분노와 적개심을 유발시키고 결국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분노와 적개심은 그 당사자의 주변화된 상황과 맞물려 한(恨)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② 정 이론(Jeong Theory) 을 통한 한(恨)의 극복

---

[130] 김은심, 배향자, "한(恨)의 개념분석", *노인간호학회지*, No. 2 (2000 년 가을), 144.

[131] 여기서 편견은 상대방과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하지 않고서 그들에 대해 미리 판단을 내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132] 여기서 차별은 이성적으로 볼 때 그 상황에 부적절한 기준이나 이유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말한다.

[133] 신정식, *한(恨)의 치유(治癒)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26.

[134] Ibid.

Korean-American 이민자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 조원희는 한인 이민자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의 어려움에 관해 한(恨)의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조원희 교수에 의하면 한인 이민 1 세대들과 2 세대들의 관계가 쉽지 않은 것은 그들 양세대가 살아온 삶의 정황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복합문화 속에서 경험해온 인종적 차별에 의한 한(恨)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세대가 소통하며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이 한(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조원희는 정(Jeong)[135]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한(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부정에 대항하는 풀리지 않는 감정으로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는 반면에 정(情) 은 한국인의 일반 생활 및 관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가 미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원희 교수는 정(情)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말하고 있다.

> 정은 개인과는 다른 것 즉 동정, 사랑, 약점 그리고 삶을 향한 본질로서 이질성의 용납과 같은 관계성을 중심으로 한 복잡한 것들을 품는 한국적 방식의 표현 방법이다. 이것을 부드럽고 혹독한 느낌(증오와는 반대되는) 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실제적인 자각을 가진 두 부분으로 부터의 이동함을 통한 복잡한 상황속에서 맺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136]

한국인의 대인관계에서 정(情)은 가까움과 밀착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심리적, 내적 경험이며 속성이다.[137] 그리고 동시에 관여된 두 사람 또는 많은 사람들 간의 친밀과 밀착의 정도를 기술하여 주는 척도로써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조원희는 정을 통한 한인 이민자들의 한 극복과 이를 통한 세대간의 관계

---

[135] 정(情)에 대한 국어사전의 풀이를 보면, 느끼어 일어나는 마음과 사랑이나 친근감을 느끼는 마음으로 풀이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정(情)은 인간의 칠정(七情)에서 비롯된 모든 감정 즉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욕(慾)의 모든 감정을 담고 있다. 따라서 정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감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의 현상과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36] Wonhee Anne Joh, *Heart of the Cross: A Postcolonial Christ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xxi.

[137] 최주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관한 연구: 정과 한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 대학원, 2009), 26.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정(情)과한(恨)이(Jeong/Han) 연결되어 함께 논의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정과 한 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울감은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으로 대체된다. 이러한 감정이입은 개인의 흥미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의 한을 인식함을 통해서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작은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역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을 초월하려고 시도할 때 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도와 필요는 사랑과 이해를 통해 조절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정용이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은 단순히 안과 밖으로 투사되는 증오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정한의 적극적인 특성과 기질을 담아냄을 통해 보다 깊은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138]

고통과 부정에 대항하는 풀리지 않는 감정으로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정적 개념의 한(恨)이 긍정적이고 밝은 면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정(精)과 함께 사용될 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한(恨)과 정(精)이 함께 사용될때 한의 어둡고 부정적인 측변은 정을 통해 사람과 사물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바뀔 수 있게 되고 마침내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 Jeong/Love 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바뀌게 된 정과 사랑(Jeong/Love) 사회 안에서 약자들과 주변화된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악하고 무정한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제공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정(精)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희생을 바탕으로 한(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서 조원희는 이제 정과 사랑(Jeong/Love) 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최종적인 정의 힘(Power of Jeong) 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한과 대상으로부터 치료를 가져온다는사실이다. 단의 실행은 집단적인 한의 경험과 개인적 정형 속에서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한으로 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회복과 치료는 오직 정의 힘을 통해서만 극복이 가능하다. 우리는 아마도 불의와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의와 씨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보다 분명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정한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 실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세대, 인종, 사이에서 그 간격을 메우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139]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이민자 1.2 세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한(恨)은 성차별과 인종 차별로 부터 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밖으로 부터도 오는 것이다. 이러한

---

[138] Wonhee Anne Joh, 26.

[139] Ibid., 88.

중심부 사회로부터 한국인 이민자들 (주변인)에게 가해지는 성차별과 계급차별 그리고 인종 차별을 통해 그들은 사회로부터 거절 당하는 경험 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한 사회로부터 심하게는 지워져 존재감이 없는 무 존재로서의 경험까지도 하게 된다.

한(恨)과 비굴함 (Han/ Abjection) 이라는 Korean-American 으로서의 독특한 상황(Context) 속에서 주변인으로서 상처받은 두 세대가 지금까지 그들을 억눌러 왔던 이민자로 서의 한(恨)과 모든 주변적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긍정적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세대가 이민자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두 세대의 아픔과 고통을 솔직하게 마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의 힘(Power of Jeoung) 을 통해 솔직한 대화를 통한 공감대를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진 관계를 통해 보다 나은 한인 이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두 세대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ietrich Bonhoeffer 의 '신도의 공동생활' 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140] 이것은 지금 우리 이민 사회가 고민하고 있는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 회복의 문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 회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정과 사랑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으며, 반드시 정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정을 통한 창조적이고 건강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힘은 결코 혼자의 힘 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세대간의 깊은 공감대를 통한 상호간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게 될 때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인 이민 1 세들은 그들이 지금껏 쌓아온 이민의 역사와 또한 한국인들로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영성을 2 세대 자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호 공감대(Common Ground)[141] 를 형성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2 세대들과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정을 바탕으로한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통해 이민자로 서의 부정적인 주변인으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뿐만 아니라 이를통한 한(恨)의

---

[140]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28.

[141] Exclusion and Embrace 의 저자인 Volf, Miroslav 는 그의 책에서 이 '공감대' 를 '간격'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간격을 통해 다른 문화와의 가능성과 풍부함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극복을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이민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양 세대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참만남 의 개념을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

1) 참만남[142] 의 정의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말들 중에 “처음에 누가 공항을 마중 나오는가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있다. 이 말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한 사람(한 이민자) 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커다란 영향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에는 두 가지 종류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단순한 만남 (Meeting) 이요, 다른 하나는 참만남 (Encounter) 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만남의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Blaise Pascal 이었으며 19 세기에는 Soren Kierkegaard 에게서 그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그 후 Martin Buber 에 이르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이때 까지만 해도 만남이라는 것을 말할때는 어떠한 의미 보다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정신적 교류를 통한 세계를 이루는 것을 만남으로 생각했다.[143]

이에 반해 참만남(encounter)은 일회적 만남이 아닌 삶의 연속성 안에서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이다. 따라서 이 만남을 통해 앞서 성서 영역에서 이미 다루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공감적(Empathy) 만남과 같이 인간과 인간과의 호감과 동기의 만남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만남을 통해 회심을 경험 하게되고 결국 이러한 회심의 경험을 통해 내적인 변화, 자아가 바뀌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Lewis Sherrill 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만이 존재화(Becoming)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144] 이러한 모든 점으로 미루어볼 때

---

[142] 우리말 대사전에는 ‘만남(만나다)’이라는 단어에 대해 ‘누군가 가거나 와서 마주 대하여 보다, 인연으로 어떤 관계를 맺게 되다’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영어 사전에서 참만남 (encounter)의 뜻은 ‘누군가를 뜻하지 않았을 때 만나는 것, 뜻하지 않게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만났을 때 야기되는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라틴어 에서 ‘congressus (cumgressus)’는 ‘함께 발검음 함, 같이 걸어감’ 등의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처럼 참만남 (encounter)은 ‘누군가와 함께 마주 대하여 걸음하며 뜻하지 않은 통찰이 드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143] 윤화영, *‘참만남 (encounter) 의 순간’ 을 통한 삶의 창조 경험에 관한 목회상담적 고찰*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4-5.

[144] Ibid., 9.

참만남 이란 인간 사이의 좋은 관계적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내.외면의 변화이며 하나님과의 이러한 만남과 대면함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될 수 없었던 인간 관계의 모든 얽히고 섥힌 문제들이 반대로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는 치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만남이다.

2) 관계신학 (Relationship Theology) 적 입장에서 본 참만남

신학은 그 관심사에 따라 여러가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가지 주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관한 질문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신학에서는 중요시되는 문제이다.[145]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대화를 하시기 위해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대화 하게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화와 관계를 위해 태어났으며 실제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참만남의 경험에까지 이르게된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대화의 단절은 사람들과 세상으로 부터의 단절과 분리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참 만남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타락을 통한 비 인간화, 그리고 자기 파괴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신학(Relationship Theology)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단순히 일회적인 창조 행위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인간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의미한다.[146] 또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만남을 통한 대화는 이제 인간이 수동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단계에서 벗어나 분명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간의 자기 인성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관계신학의 입장에서 참만남의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만남에서 경험했던 것 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세대,연령, 피부색, 학벌에 상관없이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심을 바탕으로

---

[145] 권순구, "신학과 윤리에서의 관계개념", *신학과 목회*, Vol. 13 (1999 년 봄), 214-215.

[146] Ibid.

이 땅에서 진정한 참만남의 경험을 통한 공동의 선과 하나됨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1)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

① Martin Buber 의 나와 너 (I and Thou)

현대사회의 문제를 한 마디로 요약 한다면 관계와 참 만남의 부재를 통한 비 인간화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의 문제가 내제되어 있으며 동시에 현 사회가 지나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사이에서 인간이 가지는 가치와 존엄성이 상실되는 무 방향성의 딜레마에 스스로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147]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길은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형성 즉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버는 주장하고 있다.

큰 의미로 볼때 실존주의자로 분류되는 관계 철학자 부버는 대화와 참 만남을 통한 관계 회복이야 말로 인간이 생활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148]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타인과의 대화와 만남이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과 같이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를 맺는 타자(Thou) 또한 나와 같은 동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149] 이것은 부버 이전의 나 중심적인 대화와 만남의 중심이 이제는 반대로 나와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확대 되어야 함[150]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부버에게 있어서 참 만남 이란 단순히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인간 중심적 사상을 바탕으로 나아갈때만 비로서 참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부버의 만남의 철학

---

[147] 김진한, "교육적 만남의 본질과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 *교양교육연구소 논문집*, No. 4 (1999 년 봄), 43.

[148] Ibid.

[149] 정명자, "실존적 만남과 기독교적 만남", *광신논단*, No. 1 (1994 년 봄), 219.

[150] 이러한 부버의 생각은 앞서 살펴본 이정용 교수의 주변화 이론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이정용 교수에 의해 이민자들의 부정적 주변성 (In-Between) 이 긍정적 주변성 (In-Both) 을 거쳐 모두를 아우르는 초월정 주변성 (In-Beyond) 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 부버 역시 참만남을 통한 관계를 개선을 위해서 과거의 나 중심적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주변과 아우르는 상호 존중적 관계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신학)은 우리의 의식을 개인의 차원에서 이웃에게로 확대하여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부버에 의하면, 인간이 세계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이중적이며, 그것은 세계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중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151] 따라서 이에 따른 근원어도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이 두 근원어 중의 하나가 '나와 너'(I-Thou)의 관계어이고, 또 다른 하나가 '나와 그것'(I-It) 의 관계어이다. 이처럼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는 근원어를 중심으로 '나' 사이에는 본질상 차이가 존재하게 되며 그 '나'에 따라 나를 중심으로 한 신과,인간, 그리고 자연관의 관계가 성립한다.[152] 그러나 부버는 나를 중심으로한 이러한 세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러한 근원어인 나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가 다른 인간을 인격적 주체인 '너'(Thou) 로 보지않고 도구적, 수단적, 그리고 사물적 존재인 '그것'(It) 으로의 "나-그것"의 관계 (I-It) 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하며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만남을 강조하고 있다.[153] 이와같이 부버가 말한 '나'와 '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154]

나와 그것의 세계	나와 너의 세계
경험에 의한 인식 경험과 이용의 요소 일방적 관계 고립된 개아(Eigenwesen) (물건을 이용하는 주관으로서의 자신. 다른 개아와 자신을 구별)	관계를 구축함으로 이웃에 관여 전 존재의 개입 상호 작용적 인격(Person) (종속적이지 않는 주체성으로서의 자아인식, 다른 익격과 관계를 맺음)

표-5

위의 도표가 말해주고 있는 것 처럼 '나'는 '너'로 인하여 '나'가 되며 '나'가 되면서 비로서 '나'는 너라고 말할 수 있다는 '나와 너'의 관계를 강조하는 부버는 '만남과 대화의 철학(신학)'을 바탕으로 더욱 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나-너'의 관계는 우리가 맺는 타자와의 관계

[151] 박양식, "마르틴 부버의 이상적 공동체", *기독교사상*, No. 10 (1990 년 10 월), 112.

[152] Martin Buber, *나와 너*, 표재명 역 (서울: 문예출판사, 2004), 7-8.

[153] 박문옥, "신앙과 체험에서의 만남과 변형 논리", *순복음 신학대학교 논문집*, Vol. 3 (1992 년 봄), 195.

[154] 정명자, 217.

중에서도 가장 긴밀하고 인격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러한 ‘나’와 ‘너’사이의 긴밀한 상호 인격적 관계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부버는 말한다.[155]

그러나 동시에 ‘나와 그것’과 같은 비 인격적인 인간관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156]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경험에 의해 세상을 이해하려는 과학적, 객관적 지식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인을 그것으로 대하는 이 태도는 결국 인간을 하나의 대상물로 여기게 되고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맺는 대신 상대방을 나의 유익과 목적에 맞게 분석하고 종합하게 되며 그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는 상대방과 인격을 나누는 관계자로서가 아닌 정복자로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무너뜨려야 하는 성취의 대상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부버는 경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부버는 인간의 관계와 만남에 있어서 인격적 나눔의 참만남을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을 물질화하여 수단과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려는 물질 주의적이고 경험 지상주의적 사고를 통한 관계관에 경고를 주고 있다.

②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

부버에 의하면 참된 공동체는 근원어 ‘나와 너’가 말해지는 곳에서만 출현한다고 말한다.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이 다른 또 한 사람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는 그가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할 수 있듯이, 사회적인 집단도 역시 그 구성 단위간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말이다.[157] 다시 말하면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을 통한 인간과 인간과의 상호 인격적 신뢰관계가 회복 되어야만 공동체 역시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처럼 상호 인격적인 건강한 대화와 만남을 통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부버는 세가지 형태의 대화적 관계를 구별하여 말하고 있다. 첫째는, 상호 포용적인 체험을 통한 인식의 형태이다.[158]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155] Martin Buber, 210.

[156] 박양식, 113.

[157] Ibid.

[158] 박현광, *청소년 교육에서의 대화에 관한 연구: 만남의 기독교교육사상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22.

나의 의견과 같을 수는 없다. 따라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논쟁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을 인식하게 되고 포용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된다. 두번째 형태는 두 다른 집단과 세대가 언어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포용(Inclusion) 의 체험이다. 이 체험을 통해 2 세대들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1 세대 부모들은 단순히 2 세대 자녀들의 개별성을 인식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 세들을 파악함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게되고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세대 상호간에 미치는 상호간의 영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할때 본인들과 2 세대 자녀들의 자아 의지를 참된 의지로 새롭게 만들 수 있게된다.[159] 그리고 마지막 형태는 우정과 대화이다. 한인 이민 사회와 공동체를 지향함에 있어서 1 세대들은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법에 의한 2 세대들과의 관계를 통해 공동체를 이끌어 갈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우정에서 우러나오는 대화를 통한 상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생활(Communal Living) 을 위한 세대간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

부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부버는 이러한 인간 간의 관계를 뛰어 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이르게된다. 사람은 근원어 ‘나-너’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더 인격적이 되고 그리고 이 ‘나-너’의 근원어가 강하게 되는 것은 그의 ‘너’가 ‘영원한 너’가 될때 정점에 이르게 된다. 이 경우 ‘영원한 너’는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어 왔지만 역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부버는 말한다.[160] 이러한 점에서 부버는 ‘나-너’관계의 연장선에서 영원한 ‘너’와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161] 이렇게 그는 인간간의 관계가 결국에는 초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인 우리들은 결코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대문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

[159]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London: Hunt, Barnard, 1947), 100.

[160] Martin Buber, 213.

[161] Ibid.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와같은 관계성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부버는 주장한다.[162]

① 에밀 브룬너의 만남의 진리

브룬너에 의하면 인격으로서의 인간의 존재는 감관에 주어지는 객체(Object)와 같은 존재도 아니고 또한 주관주의자가 주장하는 원초적이며 무조건적인 자유의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한다.[163] 이러한 그의 주장은 부버의 관계철학 (신학)을 보다더 발전시킨 것으로서 인간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당신'에게로 부르고,[164]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통하여 인간은 보다 더 책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시는 동시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만남'을 통해 우리들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거룩한 당신(Divine Thou) 으로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실제적 당신(A Real Thou) 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165]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만남의 접촉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예수[166]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Identity) 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온전한 한 인격체로서 회복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브룬너는 만남의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다.[167]

이처럼 진리가 있는 곳에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참 만남이있다. 인간은 하나님 곧 그분의 보내신 예수를 알고 만나게 될때 진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참만남 은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내어주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만남이다. 그리하여

---

[162] Stanley J.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60.

[163] 이동성, *에밀 브룬너의 만남의 진리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91), 177.

[164] Ibid.

[165] Ibid.

[166] 우리의 영원한 Thou 가 되어주시는.

[167] Ibid., 178.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은 마침내 "나-그것"(I-It) 의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 윤리적인 관계를 통한 만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너"(I-Thou) 관계가 주는 참 만남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근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그래서 닫힌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발견하려는 우를 범할 때가 많다.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자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와 언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닫혀져서 굳어진 두 세대간의 상처난 마음은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쉽게 풀 수 없을만큼 갈라진 그 골의 깊이가 해마다 더욱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간의 소통의 부재는 두 세대가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세대를 뛰어넘는 분명한 신앙 공동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해결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브룬너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분명한 '너'(Thou) 가 되어주신 것 처럼 1.2 세대들도 서로의 다른 모습만을 보고 두려워 피하기 이전에 먼저 사랑과 희생, 그리고 포용과 관용하는 마음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의미있는 '너'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세대를 초월하는 수용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하며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민족 신앙공동체 정신을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

1 세대와 2 세대가 모두를 가슴으로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 한인 이민교회들은 '한국화된 신학[168]'의 꾸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 그리고 가치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Korean-American 으로서 하나되는 신앙 공동체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68]본 연구자는 여기서 한국화된 신학을 단순히 서양의 것을 한국의 것으로 바꾸자는 맹목적인 토착화 신학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와 공감대로 성서를 바라보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신학을 말하고자 한다. 앞서 이정용 교수와 조원희 교수의 신학적 이론을 통해서도 살펴 보았지만 한구인들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주변성과 이를 통한 한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서양 신학자는 결코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정용 교수와 조원희 교수와 같이 한국인의 심성과 감성을 가지고 이를 신학화 함으로 한국인이기에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신학적 이슈로서 신학화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100 여 년 전 서구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에 소개 된 복음은 당시 함께 소개 되어진 서구 문물들과 함께 한국의 문화를 서구화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시점으로부터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민족의 정서와 문화적 공감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은혜적인 상황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역설적이게도 한국의 기독교 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인 상황의 약화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169] 그러나 1970 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사학계는 종래의 식민주의적 사관에서 벗어나 한국의 역사를 민족주의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보려는 시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170] 이와같은 시도는 곧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적인 정서로 복음을 보자는 새로운 운동들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배경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정(情:Jeoung)이나 한(恨:Han) 같은 문화적인 공감대가 존재하고 이것은 서양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성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로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의 시작이 바로 그것이었다.

민족 의식과 민족적 성향은 한 개인의 성향을 이루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쉽게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17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는 이러한 민족 공동체를 생략한 채 곧바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함에 따라 이렇게 약화된 민족 의식과 공감대는 이민 교회 안에서 1 세대와 2 세대간의 소통의 부재라는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이야기했던 한국화된 신학의 발전을 통해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지식이 아닌 각자의 정서와 가슴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하며 마침내는 양 세대 모두가 공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체험하고 죄인됨의 고백[172]을 통해 하나님을 같이 체험하고 마틴 부버의 에밀 브룬너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의미있는 신적 너(Divine Thou) 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희생과 섬김의

---

[169] 김진홍, *베들레헴 물방아 도는 내력*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6), 31.

[170] 한국기도교 역사연구소 편,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 (서울: 기독교문사, 2000), 5.

[17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1995), 73.

[172] 1.2 세대가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마주보며 이제 상대방의 아픔은 더 이상 남의 아픔이 아닌 나의 아픔이라는 고백을 통해 참만남을 이루고 이를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정신을 통한 '죄의 용서함'의 경험을 통해 세대간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룰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한국 문화와 한글 교육을 통한 이민 가정 안에서의 세대간 관계개선

이민사회 안에서 1 세대와 2 세대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은 두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태도의 커다란 차이 때문이다.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통해 문화는 한 세대에서 다름 세대로 계속 전수되지만, 동시에 문화는 또한 각 세대 안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173]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전해준 문화 유산을 달리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역사적 사건과 사회조건도 다르게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의 차이는 부모.자식 세대간의 가치관 및 태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만들게 된다.[174]

미국의 이민 가정은 한국의 있는 다른 가정들보다 더 많은 세대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부모가 태어난 모국과 이곳 미국에서 태어난 자식들간의 커다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175] 이민자인 부모는 이곳에서 살지만 여전히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반면에 이곳에서 타고 자란 2 세대들은 학교의 공교육을 통해서 이곳의 언어와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2 세대 자녀들에 대한 1 세대 부모들의 권위적인 태도이다. 1 세대 부모들에게 영향을 끼친 유교사상[176]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개인의 독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가치관 속에서 자라난 2 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유교문화의 전통 때문에 재미 중국 및 일본 이민가정에서의 부모는 미백인 가정에서의 부모보다 자식에 대해 더 높은 통제와 권위를 행사했다는 보고가

---

[173] 민병갑,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 *정신문화연구원*, Vol. 18 (1995 년 가을), 119.

[174] Ibid.

[175] Ibid., 121.

[176] 여기서는 유교의 여러 사상중 "부모에 대한 충성, 존경 및 헌신"과 같은 효(孝)사상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있다.[177] 그리고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자녀 교육방법은 많은 미국의 아시아계 이민 가정에서 심각한 세대갈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이 참 만남을 통해 이민자로서의 갈등과 주변성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이민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본 연구자는 2 세대들을 향한 한글 교육의 확대와 이것을 통해 관계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포 부모와 자녀의 친근한 관계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178]

피어슨의 상관관계 지수(사례수=44)

	부모 자녀관계의 친한 정도		자녀의 한국어 능력
자녀의 한국어 능력	0.463**	자녀의 한국문화 수용정도	0.604**
부모의 교육수준	0.035	자녀가 집에서 부모와 한국말을 사용하는 빈도수	0.463**
부모의 미국 동화정도	0.082	부모 자녀의 한국 가치관 수용정도의 차이	-0.200*
부모 자녀의 한국가치관 수용정도의 차이	-0.231*		

표-6

위 도표의 왼쪽 부분은 네 질문들의 독립변수가 부모.자녀간의 친밀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부모와의 친밀한 사이에 정비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네가지의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179]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고, 이민을 온 횟수가 길어짐에 따라 이곳 문화와 언어에 익숙해서 자녀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관계

[177] S. F. Krieger and W. Kroes, “Child Reading Attitudes of Chinese, Jewish and Protestan Mother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86 (1972), 209-210.

[178] 민병갑, 134.

[179] Ibid.

개선을 이루는 것 보다 자녀들이 한글의 습득을 통해 부모들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도표의 오른쪽 부분은 2 세대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과 그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수용정도가 큰 정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80] 2 세대 자녀들이 한국말에 능숙하게 되면 1 세대 부모들과의 대화에서 한국말을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한국어 구사가 많은 2 세대 자녀일수록 1 세대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한인 이민 가정 안에서 부모.자녀들 간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요소는 바로 언어이며 2 세대 자녀들이 어린 시기에 한국어, 한국 역사 및 한국적 가치관을 배우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모들의 노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들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한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깨닫고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한글 교육을 통해 이곳에서 갈등하는 1 세들과 2 세들의 관계개선을 도움을 통해 한국적인 가치의 소중함 속에서 두 세대가 함께 친밀감을 회복하고 우리는 모두가 Korean-American 이라는 깊은 신뢰의 공감대 속에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80] Ibid.

Ⅳ. Silence Exodus 방지를 위한 한인 이민교회 내 커뮤니케이션 이해

1.이민의 상황이 만들어 낸 한인 이민 교회의 특성들

이민의 문호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나타나게 된 한인 이민 교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교회의 거의 모든 에너지가 점차로 이민자들의 사회 문화적 요구에 부흥하는데 사용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같은 이민 상황의 급격한 변화는 이민 교회들의 양적, 물적 성장에는 도움을 줄 수 있었지만 반대로 초기 한인 이민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 참여적 기능과 이를 통한 예언자적인 기능의 상실[181]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실제로 초기 이민 교회들의 정치적이고, 주변 커뮤니티들과 연계된 사회 참여적인 기능들과 특징들은 점차로 가족 이민자들과 기독교 고학력 한인들[182]의 이민이 늘어감에 따라 처음 지역사회와 타 민족에 대한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에서 점차로 이민자들만을 위한 맞춤화 되고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촛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 이민 교회의 변화된 상황은 당시 한인 이민자들이 본국으로 부터 가지고 온 보수적인 신앙생활 방식과 함께 더욱 더 기복적(외향주의적), 보수적, 그리고 종교성만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제도화된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게 된다.

1) 강력한 개 교회주의적 경향성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공감하는 한인 이민 교회들의 성장 요인은 첫째로, 기독교 이민자의 지속적인 유입과 교회의 적극적인 전도. 둘째로, 목회자의 희생적 봉사와 교회의 한인 공동체에 대한 봉사. 셋째로, 공동체간의 네트워크 형성. 넷째로, 한국 문화 유산의 유지 및 전달. 다섯째로, 교육. 직업. 소득간의 지위 불일치로 인한 좌절감의 종교적 해소. 여섯째로, 세계선교를 통한 세계화. 그리고

---

[181] 김계호, *미주 한인 이민교회 백년: 회고와 전망*, 기독교 사상, No.4 (1997년 4월), 30.

[182] 기독교 고학력 한인 이민자들의 90%는 한국의 도시에서 거주하던 사람들로 미국으로 이민오기 전 이미 한국에서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 일곱째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통일 운동에의 참여[183] 등을 꼽고 있다. 이렇듯 한인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의 센터로서 한인 사회가 유지되는데 필요한 기반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이 원하는 이민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회의 기능 뿐만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은 이곳 미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민족적 요구를 한인 이민 교회가 수용해 주는 것[184] 이었고 이민 교회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민자들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이민 교회들이 수용함에 있어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은 아무런 검토없이 단순히 교회 성장만을 위해 받아들이게 됨으로서 이를 통해 나타나게 된 개 교회주의적인 현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종교 사회학적 관점에서 증대한 개 교회주의적 경향성은 미주 한인들의 고달픈 주변인 으로서의 삶이 교회 본연의 종교적 기능에 영향을 미쳐 그 특징과 방향성을 바꾼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185]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온 가족이 정착을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고단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사회 참여라든지, 정치적인 현안과 같은 사회 문제에 이민자들이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날로 개 교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한인 이민 교회의 현실은 이곳의 낯선 환경에서 힘들게 적응하면서 한편으로는 주변인으로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한인 이민자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확대된 종교적 경향성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경향성이란 이민 교회안의 한국 이민자들에게 종교 활동을 통하여 내.외적인 정서적 안정감과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동시에 다른 모든 아시아 이민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민자들이 모국에 있을 때보다 이민자의 신분으로 보다 더 종교에 몰두하게 되는 이유는 이민의 힘든 삶과 이민자로서의 고달픔을 종교가 주는 내적인

[183] 유의영, 한인사회 공동체적 기반으로서의 미주한인교회, *신학논단*, Vol. 35 (2004 년 봄), 176.

[184] 김계호, 205-206.

[185] Ibid.

평안함을 통해 달래기 위함이다. 이와같이 이민 교회는 또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이민자들에게 제공 함으로서 이민자들로 하여금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186] 이러한 이민 교회 내의 확대된 종교적 경향성의 이유에 대해 Tony Carnes 과 Fenggang Yang 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Asian American 들은 그들 민족의 기원과 개인 혹은 집단적인 정체성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의 조직(정착)과 문화에 관련하여 그들이 당면한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공간(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강력한 종교적인 특성은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를 교차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한다. Asian Americans 들은 아마도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재 협상을 위해 종교를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른다.[187]

이처럼 다른 아시아인들의 확대된 종교적 경향성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이민자들 중 75% 이상이 기독교인이며 이들 중 50%는 한국으로 부터 이민을 오기 전 이미 기독교인이라는 보고가 있다.[188]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의 확대된 종교적 경향성은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보다 한국 이민자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보수적인 신앙[189] 이 이민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더욱 더 확대되고 보수화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같이 확대된 종교성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민자들의 초기 이민생활 정착을 위해 큰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종교성의 지나친 강화로 인한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부작용을 통해 이곳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2 세대들과의 신앙적,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모습 또한 가지고 있다.

3) 배타적 경향성

---

[186] Ibid., 2-4.

[187] Ibid.

[188] Ibid., 184.

[189] 19 세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전파한 신앙과 같이 복음의 순수성(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세상으로부터의 분리(Seperation from the World), 말씀의 정확성(Biblical Inerrancy), 그리고 중생의 경험(Born Again Experience) 을 강조하는 신앙의 노선을 말한다.

앞서 한인 이민 교회들의 강력한 개교적 경향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수 많은 한인 이민자들 중 대 부분은 대학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도시에서 화이트 칼라의 직업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이민자들이 새롭게 정착해서 살아가야 할 미국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그리 많지 않고 대신 Small Business, Low Skill-Service, 또는 Manual Occupation 같은 단순하고, 육체적인 일들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190]

새로운 미국 땅에서 제한적인 사회 네트웍과, 주변화된 직업 밖에는 얻을 수 없었던 한인 이민자들이 그들이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인 교회에서 직분의 수행을 통한 심리적 대리만족 이었다. 이러한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해 한인 이민 교회들은 미국 땅에서 주변화와 인종차별을 경험하며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땅에 도착한 한인 이민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Emotional), 사회적(Social) 지원을 해오고 있다.[191] 그러나 이와같은 한인 이민 교회의 지나친 민족 공동체화와 한인 이민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2 세들에 대한 배려 없이 1 세대 위주로 운영되는 예배와 프로그램은 한인 이민 교회들을 사회와 지역 커뮤니티로부터 분리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한인 이민교회의 보수적 특성으로 자리잡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한인 이민 교회의 이러한 보수적 현상들과 연결하여 몇 몇 학자들은 역시 한인 이민 교회의 종파화(Sectarianization) 현상이 한인 이민 교회가 1 세 중심의 제도화된 교회가 되는데 힘을 보태 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192] Ernst Troeltsch 와 Max Weber 에 따르면, 종파의 내적 특성은 교리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향성, 근본주의적 신앙과 열정적이고 거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이다. 또한 외적 특성으로는 세상으로 부터 퇴행되어 있고, 주로 하류계층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극적인 회심 체험이 강조되고, 이것이 종파에 가입하게

---

[190] 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eds.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ilgrims and Missionaries from a Different Shore, 13.

[191] Rebecca Y. Kim, *God's New Whiz Kids?: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Campu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40.

[192] 김계호, 207-208.

되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며, 세상에 대하여 절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193] 이것이 종파화된 교회 즉 배타적인 교회가 가지는 일반적인 성향 이라는 견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일반 교회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려 하는 반면 보수성과 종파적 성향을 가지게 된 한인 이민교회들은 세상으로 부터 분리되어 점점 더 개인주의 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한인 이민교회들의 특징은 교회 안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2 세들과의 새로운 갈등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같이 타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경직되고 보수화된 교회들의 특징은 교파와는 상관 없이 모든 한인 이민 교회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Korean Preaching 의 저자인 이정용은 그의 책 속에서 한인 이민자들은 이러한 보수성의 근원으로서 다른 아시아 이민자들에 비해 극도로 강한 종교적 교회 생활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194] 또한 한인 이민자들에 의해 심화된 종파성은 근본주의적인 교리적 순수신앙과 결합되어 더욱 더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Asian American Religion 의 공동저자인 Tony Carnes 과 Fenggang Yang 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Korean American 1 세대 들은 한국적 의미의 보수적인 종교에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왔다. 한국 교회들이 가지고있는 종파적인 기원으로서 민족적 성경학교와 신학교들은 한국의 신학보다 더 보주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많은 수의 한국 이민 교회들은 미국내 같은 교단들의 미국 교회들 보다더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195]

이와같이 종파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한인 이민 교회의 보수성과 배타적 특징은 이민자들로 하여금 이곳의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주변화되는 경험을 하는데 의식적 혹은 무 의식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옳은 목소리를 내야하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됨에 따라 이제는 반대로 주변의 말과 언어가 다른 인종들과 커뮤니티들에 대하여 보다 더

---

[193] Ibid.

[194] Jung Young Lee, *Korea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7), 13.

[195] Tony Carnes and Fenggang Yang, 7.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한인 이민 교회의 보수성은 결국 같은 교회 안의 말과 언어가 다른 2 세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가게 된다.

(1) 1 세대 중심의 교회운영

한인 이민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한인 2 세대들이 소외되어가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러가지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바로 이민 교회들의 1 세대 중심의 보수성과 이를 통해 제도화된 교회(Institutionalized Church) 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민 교회들이 제도화 되고 따라서 경직화 되었다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와 다수의 1 세대 회중들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통해 1 세대들과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2 세대 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운영되는 모든 교회의 활동들을 의미한다. 또한 이를 통해 교회 안의 회중들을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1 세 대사람들과 비 활동적인 2 세대 사람들로 구분[196] 하고 이를 통해 이민 사회 속에서 성장하려는 모든 이민 교회들의 현재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이미 언급한 것 처럼 한인 이민자들은 이곳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주류 사회로부터 분리된 주변인으로 살고 있다.[197] 그들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중심부로부터 밀려나 주변인의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한인 이민자들의 현실은 그들을 더욱 더 한인 이민 교회안으로 모이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의 한인 이민자들은 불안감, 직무 박탈감, 문화적 무시와 차별 속에 살고 있는데, 한인 이민 교회는 이렇게 이민의 삶에 지쳐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민족적 연대감, 한인 사회 내의 사회적 망상 조직(Social Network), 가족적 분위기 안정감 등을 제공함으로서 1 세대 이민자들로 하여금 이곳 이민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만족감을 주고 있다.[198]

한국에서 이민을 온 가족들과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기 한인 이민 교회들은 연령이나 나이, 언어와 문화, 그리고 배경과 상관 없이 모두가 한 가족처럼 교회의 활동적인 주체가 되어 교회의 공동 목표와 비전을 위해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 년대

[196] Frank Viola, *1 세기 관계적 교회*, 박은영 역 (서울: 미션월드, 2006), 85.

[197] 김계호, 211.

[198] Ibid.

달라진 이민정책 이후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한인 이민 교회들은 변화하는 이러한 이민 사회의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단순히 늘어난 이민자들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만을 통해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다양한 수용성이 보장되어야 할 교회가 가장 폐쇄적인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인 이민 교회들의 예배와 프로그램은 점점 더 1 세대 중심적으로 정착 되었고 말로는 모두가 2 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이를 통해 1 세대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정작 이를 이루기 위한 1 세대들의 희생과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들로 1 세대들은 이곳에서 자라난 2 세대들이 수직적인 리더십을 통해 권위적인 지시를 받거나 강요 받는 것을 싫어한다[199] 는 2 세대들의 고유한 문화적, 사회적 특징들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안 없이 자기들의 세계관과, 가족관, 그리고 종교관을 2 세대들과의 아무런 공감대 없이 맹목적으로 실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이민 교회의 이와같은 구조적 문제점은 초기 한인 이민 교회들만의 다양함과 타 민족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개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외부의 다양한 커뮤니티 들과의 관계가 단절 된 채 내부적으로도 1 세대들과 언어와 문화가 다른 2 세대들과의 새로운 갈등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1 세대 중심적인 교회 분위기 속에서 한인 이민 교회들의 모든 행사들은 당연히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 세대들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었고 2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욱 더 교회 내에서 소외(Exclusion)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세대간의 소통의 실패로 인한 2 세대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자연스럽게 1 세대들을 향한 원망과 실망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가 깊은 관계가 없는 공동체로 남게 되었다.

Mark Mullins 는 이와같은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세대간의 갈등에 대한 이론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는 소수 민족 교회의 발전단계를 셋으로 구분하고 있다.[200] 첫째 단계는 교회 안에서 본국의 언어와 본국 출신의 목회자들이 지배적인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2 세대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이민 1 세대들에게 중요한

[199] Clotair Rapaille, *컬처코드*, 김상철. 김정수 역 (서울: 리더스북, 2006), 202.

[200] Ibid., 212.

요소였던 사회적, 문화적, 민족적 기능들이 점차 사라져가고, 본국 언어와 이민 사회의 언어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단계이다. 마지막 셋째 단계는 민족교회(Ethnic Church) 에서 다민족 조직체(The Multi-ethnic Organigation) 로 변형되고 이민 사회의 언어로 통일되어 하나의 언어가 사용되는 단계이다.[201]

Mark Mullins 의 이러한 세가지 단계에서 한인 이민 교회는 여전히 첫번째 단계인 1 세대 중심의 교회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이유는 아직도 한인 이민자들에게 한국의 전통과 문화 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기능으로서의 한인 이민교회의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 이민 교회가 1 세대 중심의 전통과 문화의 유지에만 집착하게 될 때 급변하는 이민 사회속에서 이민자들에게 안정적인 정서적 편안함을 보장해 줄 수 있겠지만 반대로 획일성과, 순응성의 강조를 통한 교회는 다양한 그리스도의 몸 으로서의 기능은 잃어 버릴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세대 사이에서도 다양한 신앙의 표현이 제한 받게 되고 결국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한인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 감정적이고 사회적인 지원, 친교, 그리고 지도력 모델 등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줄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1 세대 중심적인 교회에서 2 세대들은 밖에서 보다 더욱 심각한 문화적, 구조적, 그리고 언어적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202] 따라서 이와같은 한인 1 세대 중심의 배타적 교회 운영은 두 세계에서 살고 있는 2 세대들에게 독특한 영적인 필요[203] 를 채워주지 못하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위에서 아래로의 문화

미국에 이민을 온 수 많은 한인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한국에서 가지고 온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함으로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일 것이다.[204] 실제로 한인 이민자들 중의 상당수는 대학 졸업 후 도시에서

---

[201] Ibid.

[202] Young Lee Hertig, 229.

[203] Ibid.

[204] 민병갑 교수 외 9 인, 269.

행정직, 전문직, 그리고 관리직 등 사회적 존경과 인정을 받아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이민을 오게된 한인 이민자들이 경영하는 사업체들의 대부분은 노동 집약적인 블루칼라 업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없게 된다.[205]

한인 이민 교회는 이와같은 지위 불일치의 심리적 병을 앓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에게 심리적, 정서적 치유의 기회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 봉사를 통한 보람과 동시에 사람들로 부터 인정 받음을 통해 잃어버린 자기 정체, 자기 위신(Self-Esteem)[206] 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교회 밖에서는 택시 기사로, 세탁소 점원으로 일하지만 교회에서는 집사, 교회 안에서는 장로로서 인정을 받는다. 이같은 한인 이민 교회의 역할은 사회적 불일치와 소수 민족으로 중심부로 부터 주변화된 사람들의 상처난 마음과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인 이민 교회에서의 지위 회복의 기능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위 회복을 위해 선출된 사람들에 의한 수직적이며, 권위적인 힘의 구조[207] 가 바로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인 이민교회는 보수적이며, 가부장적인 교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208] 다시 말하면 한인 이민교회는 마치 대가족과 같은 수직적이고 가부장적인 직분자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209]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2 세대들은 무엇을 하든지 혹은 본인들의 성향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대 가족의 구성원으로 아버지와 같은 1 세대들의 인도하에 모든 일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210]

---

[205] Ibid.

[206] 최종수, 미주로 떠난 사람들과 이민교회, *기독교 사상*, No. 4 (1997 년 4 월), 31.

[207] 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rner, eds.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14

[208] Tony Carnes and Fenggang Yang, eds. Asian American Religions, 28.

[209] 한인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의미와 가정 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부장적인 리더가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도 절대적이다.

[210] Paul Tokunaga, *Invitation to Lead*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3), 46.

수평적인 힘의 이동이 아닌 힘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대 가족과 같은 한인 이민 교회의 이같은 리더십 스타일은 이민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간의 문화적인 갈등을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재현하고 있다. 따라서 한인 이민 교회의 이같은 위에서 아래로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는 종교적 권위와 계급적인 모습으로 1 세대들과 2 세대들 사이의 갈등의 골을 더욱 깊이 만들고 있다.

2. 2 세대들의 조용한 탈출 (Silence Exodus)

소리 없는 탈출 이라는 표현은 1996 년 Christian Today 지에 Helen Lee 가 기고한 "Silent Exodus Can the East Asian American Church in Aamerican Reverse the Fight of its Next Generation?" 이라는 기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211] 그 후 한인 이민 교회 2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보편적인 단어가 되었다. 통계적으로 한인 2 세대들은 고등학교 졸업 전후로 해서 70% 정도가 교회를 떠나가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90% 가까이가 교회를 떠난다고 한다.[212] 대체적으로 한인 2 세대들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까지는 부모를 따라 교회에 잘 출석을 한다. 그러나 점점 대학교와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처음 한 두명 교회를 떠나는 한인 2 세대들의 숫자가 그들이 성인이 될 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한인 이민 교회들은 그들이 왜 소리없이 모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봄으로 한인 2 세대들의 교회 이탈을 막는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한인 이민 교회 내 영어 목회 서비스의 부족

그 동안 한인 이민 교회들은 이민 1 세대 목회자들의 헌신적이고, 피곤한 목회 중에서도 이민자들을 섬기고 이끈 성육신적인 리더십에 의해 성장 발전해왔다.[213] 실제로 이민 목회의 시작은 공항에서 부터 시작되어 이민자들이 낯선 이곳에서 정착할 때까지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

[211]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 교육목회, 21.

[212] R. Stephan Warner and Judith G. Witner, *Gatherings in Diaspora: Religious Communities and the New Immigration* (Pennsilvan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300.

[213] 양춘길, 미국 교회의 교육현황,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No. 19 (1999 년 봄), 284.

이러한 1 세대 이민자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은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그 문제의 중심에는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보다는 이곳 북미의 문화가 더 편한 한인 2 세대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있었다.

한인 2 세대들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중의 하나는 북미 전역에 3.000 여개 이상의 한인 이민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영어 회중을 위한 영어 예배 (English Language Worship Service) 를 실시하고 있는 교회는 전체 한인 이민 교회의 10%도 채 못되는 한인 이민 교회들의 현실 때문이다. 이와같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현실은 통계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이민자중 75% 정도가 매 주일 한인 이민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반면에 오직 5%의 한인 2 세대들만이 대학 졸업 후 한인 교회에 남는다고 한다.[214]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현실 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문제는 한인 이민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도자들이 한인 이민 교회의 미래인 2 세대들을 어떻게 도와 주어야 할 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대부분 한인 이민자 교회들은 할 수만 있다면 2 세대들이 영어로 예배를 드리는 데에는 의견을 달지 않는다. 그러나 한인 이민 교회 안에 영어 예배를 만들되 그 영어 목회는 한인 이민 교회의 방식에 의해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세대들과 함께 동등하게 자신들의 방법으로 목회를 할 수 없는 한인 이민 교회의 2 세대 회중들을 배려하는 마인드의 부재 속에서 한인 이민 교회를 이탈하는 2 세대들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 교회를 떠나간 한인 2 세대들이 백인 교회에 잘 정착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상식의 수준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곳 북미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한인 2 세대들이 미국 교회에서 무리없이 잘 적응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프린스턴 신학 대학원의 이상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2 세대들…그들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2 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들 보다 더 어려운 곤경에 놓여있다. 하나의 예로서 2 세대들은 1 세대 부모들 보다 훨씬 더 많이 백인 사회에 관련 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1 세대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주변화에 대한 의식보다 주변인으로서 2 세대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충격이 더 클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때 1 세대들은 그들의 민족적 문화적 공동체에 집착하게 되는 반면 2 세대들은 1 세대

[214] Harvie M. Conn, *The American City and the Evangelical Church: A Historical Overview* (NY: Baker, 1994), 195.

들과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민족적 결속력이 1 세대 들의 그것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2 세대들은 한국 문화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깊이 관련된 경험이 없는 세대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 세계 사이에서 집을 잃은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다.[215]

한인 이민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2 세대들은 역시 백인 교회에서도 그들이 집에 있는 것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한인 2 세대들과 말과 언어가 같은 백인들 역시 한인 2 세대들의 인종 문화적(Ethno-Cultural) 필요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통해 한인 2 세대들이 더 이상 모 교회로부터의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한인 2 세대들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영어 예배와 목회가 한인 이민 교회안에서 실시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1.2 세대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한인 이민 교회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1 세대와 2 세대간의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

한인 이민 교회 안에서의 증대된 종교성은 한인 교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이민자 그룹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민자로서의 어렵고 고달픈 삶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수의 아시아 이민자들은 종교인으로의 개종을 통해 낯선 땅에서 겪게되는 걱정과 근심, 불안과 위기[216] 와 같은 내.외적인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평안과 안정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종교적 활동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들을 받고 있다.

이러한 아시아 이민자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이민자들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내는 곳으로서의 한인 이민 교회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절대자에게 의지하게 함으로서 이곳에서 이민자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기능에 만족하는 한인 이민자들은 스스로 모든 교회의 모든 집회와 모임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이렇게 확대된 종교성[217] 을 바탕으로 한인 이민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

[215] Milton J. Coalter, John M. Mulder and Louis B. Weeks, eds. *The Diversity of Discipleship: Presbyterians and Twentieth Century Christian Witness* (Westminster: Johnknox Press, 1991), 316-317.

[216] 김계호, 204.

[217] Ibid., 211.

함께 하심을 믿고, 교회 안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내적인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모습외에 한인 이민 교회의 증대된 종교성은 경직되고, 근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통한 '선민사상' 을 통해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선민사상' 이란 한인 이민 교회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속화된 미국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인들을 선택하셔서 이곳 미국으로 부르셨다는 사상이다. 이처럼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해석을 통해 해석된 '선민사상' 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선민의식을 부여해 줌으로서 그들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감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218] 그러나 이러한 '선민사상' 과 같이 한인 이민자 1 세대 중심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근본주의적 종교성과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해서 우월하다는 태도를 가지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 세대들이 자기들만의 영성을 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세대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 비하여 2 세대들은 교회에 덜 헌신적이며[219] 한인 이민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싫어한다는 선입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 세대 중심적인 태도는 두 세대간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상황 속에서 2 세대들이 느끼는 종교적 정체성을 통한 갈등의 요소로서 첫번째는 영혼주의 와 물질주의(기복주의) 와의 갈등이다.[220] 한인 2 세대들은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를 한인 1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특징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 비해 한인 1 세대 이민자 들이 외모와 배경에 신경을 많이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 처럼 보이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물질주의, 기복주의 사상은 한국의 문화로 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2 세대들의 관점은 2 세대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있는데 김수정 은 2 세대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2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1 세대들의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

[218] Ibid.

[219] 박종호, 이민교회의 구조 혁신과 리더십, *목회와 신학*, No. 193 (2005 년 3 월), 142.

[220] 김수정, [정체성들의 결합] 한인 2 세대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우위성, *언론과 사회*, No. 3, 4 (2003 년 봄), 154.

> 저는 한국의 어른들이 어떻게 같은 교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이가 아이비 (주: 미국 사립 명문대들에 대한 일반적 지칭) 대학에 갔다고 자랑하거나 돈 있는 것을 과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이미지만 신경을 쓰는데, 제 부모님도 그러한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면서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겸손해야 하는데요 불행하게도 제 또래 친구들에게도 그런 비슷한 태도가 보이는데, 부모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속물적이고 비도덕적이죠.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221]

한인 2 세대들은 이와같이 1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와 기복주의적 종교사상을 기독교인으로서의 영적인 삶 곧 영혼주의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물질주의와 기복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채 현재 1 세대 한인 이민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세계 선교를 통한 '영적인 거듭남의 의미를 강한 의혹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와같은 한인 1 세대와 2 세대 간의 영적 정체성의 차이[222] 속에서 2 세대들을 향한 1 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강도는 2 세대들로 하여금 더욱 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두번째 1 세대와 2 세대간의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는 신앙성과 친교성이다. 앞서 이야기 한대로 한인 이민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친교의 기능이라 말할 수 있다.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의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인 이민 교회를 통해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223] 이와같이 한인 이민 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친교의 기능[224]을 통해 사람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친교성에 대하여 2 세대들은 주장하기를 교회의 목적성은 신앙에 근거하는 것이고, 친교 활동으로 불리는 교우간의 교제는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사교 활동에 관심과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독교인의

---

[221] Ibid., 155.

[222] 한인 1 세대들은 2 세대를 포함하여 모든 한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정체성을 지녔다고 믿으며,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주류 백인들과의 대립의식을 지니는데 반하여, 한인 2 세대들은 한인이라고 다같이 취급되는 것에 부정적이며, 인종적이거나 민족주의적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종교성에 근거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23] 민병갑 교수 외 9 인, 260.

[224] 한인 이민교회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친교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 후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이 시간동안 이민자들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과 친교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정체성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225] 이러한 2 세대들의 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한인 크리스천 선교회의 2 세대 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한인선교회는 자기 또래의 남녀를 만나기 위한 사교모임이라는 평판이 있어요. 물론 친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심을 고양하기 위해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런 점에서는 다른 사교 클럽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수요일에 정기모임, 화요일의 기도모임, 그리고 금요일의 성경공부, 일요일에는 교회 예배등에 참석하면서 끊임없이 기독교인으로서의 대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친한 친구들과 일주일 내내 함께 지내는 끼리끼리의 패거리죠. 그들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냥 자기 친구들이 그곳에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편하고 좋기 때문인 거죠.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된 거죠.[226]

이러한 2 세대들의 종교적 가치관에는 장점과 단점 2 가지가 동시에 존재한다. 먼저 장점으로는 2 세대들 스스로 1 세대들의 친교적 성향의 모임을 비판 하듯이 반대로 자기들 스스로의 모임을 객관적으로 모니터 함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구성원 간의 단결을 유도할 수 있다.[227]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1 세대들을 향한 비판이 자칫 같은 2 세대들간의 의견 차이를 만들 수 있고 함께 동역해야 할 1 세대들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1,2 세대 모두가 한인 공동체로서 이민자의 권익 보호와 같은 공동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하여 함께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1 세대와 2 세대간의 종교적 가치관의 차이는 보편성과 배타성의 문제이다. 앞에서 이미 충분하게 이야기 된 것처럼 한인 이민 교회들은 처음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던 좋은 경험들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려드는 한인 이민자들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 점차 개교회 중심적이며, 제도화된 교회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한인 이민 교회들의 이러한 개교회 위주의 현상에 대하여 2 세대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모든 인종, 성별, 그리고 국가와 같은 세상적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 수용적 기독교적 가치를 근거로 다민족 교회(Multi-Ethnic Church) 의 목표를 지향해야

---

[225] 김수정, 158.

[226] Ibid.

[227] Ibid., 159-160.

한다는 믿음으로 2 세들들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인종과 민족적 정체성 으로부터 보편적인 공민적 정체성[228] 으로의 확대된 재해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2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보편적인 종교적 가치관에도 분명한 한계는 존재하고 있다. 인종적, 계급적, 성 등의 인간 사회의 차이와 차별을 넘어서 기독교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보편적 가치관은 분명 2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2 세대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관 만큼 1 세대들과 함께 연합하여 민족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데는 인색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가치관(보편적 가치관) 이 각종 차별주의에 저항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1 세대들과의 민족적 단합을 통한 인종적 차별과 소수 민족적 권익을 추구하는 방식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229]

3) 1 세대와 2 세대가 느끼는 교회의 필요성과 그 차이

1 세대와 2 세대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필요성과 이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각 세대가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 교회의 필요성: 1 세대 대 2 세대[230]

1 세대들의 교회의 필요성	2 세대들의 교회의 필요성
1. 영적 성장	1. 영적인 성장
2. 다른 한국인들과의 교제 장소 (민족성)	2.교제의 장소 (한국인들 만이 아닌)
3. 한국적 가치관과 문화의 보존	3. 자신들의 정체감을 찾기 위한 장소
4. 사회적 인정과 지도력 지위를 얻기 위한 장소	4. 평등의 장소
5. 이민자들의 필요 충족을 위한 장소	5.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는 장소

[228] Elaine Howard Ecklun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New Models for Civic Life* (New York: Oxford Press, 2006), 11-13.

[229]김수정, 161-162.

[230] 권상길, 32.

표-7

이와같이 1 세대들이 가진 교회관과 2 세대들이 가진 교회관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인 이민 교회들이 과거의 1 세대 이민자들 중심의 리더십과 목회 패러다임을 고수하는 한 2 세대 들의 소리없는 탈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탈출 현상을 막기 위해 1 세대들은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2 세대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세대간의 다리를 놓는 기능으로서의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 기법 연구

1)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 이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231] 인간은, 한자로 '人'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며 '間'은 이러한 인간의 상호 관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No man is an island"[232] 라는 말은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며, 관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233] 이와같이 인간은 태어나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대인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234]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개인의 생각, 감정, 태도, 그리고 신념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전달 받는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통하여 확대된다.[235] 따라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1) 커뮤니케이션의 일반적 정의

[231] Martin Buber, 13.

[232] 영국 시인 Dunne John 의 Meditation ⅩⅦ 에서 인용.

[233] 최해림, 대인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카톨릭 신학과 사상*, Vol. 54 (2005 년 12 월), 8.

[234] 김상균,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본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심리학적 이해, *카톨릭 신학과 사상*, No. 5 (1991 년 5 월), 211.

[235] Ibid., 34.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말은 ‘공통’ ’공유’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Commius 에서 유래되었다.[236]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그리고 경험등을 공유화(共有化) 하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237] 전통적으로 언어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해되어져 왔다.[238]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현재와 같은 Post Modern 사회에서 보다 폭 넓게 사용되면서 학자들에 의해 다르게 사용 되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Wilber Schramm 은 커뮤니케이션을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했고 Warren Weaver 는 ‘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Theolore M Newcomb 는 ‘의미의 전달’ Lund berg 는 ‘신호와 기호를 사용한 상호작용’ Hifferline 은 ‘행동과 흥분과 정보의 공유’로 정의했다.[239] 이상의 학자들에 의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 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사람들이 신호 또는 의미나 기호를 통해서 상호간 정보와 메세지를 전달하고 수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러한 공통된 의미들을 통해 서로의 행동이나 크게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240]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모든 것은 만남과 대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241] 이 말은 20 세기 최고의 관계 신학자 였던 마틴 부버 신학의 출발점 이있다. 다시 말하면 만남과 관계를 통한 변화 없이 세상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같이 일반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상대방과의 관계와 대화를 통한 변화 인것 처럼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역시 ‘하나님과 인간이 계시와 예배를 통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시와 프락시스를 통하여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리고

[236] 권용근, 기독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신학과 목회*, Vol, 7 (1993 년 3 월), 111.

[237] 강희천, 기독교 교육과 언어의 기능: 교육적 언어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 *기독교 사상*, Vol, 33 (1989 년 1 월), 120.

[238] 차배근, *커뮤니케이션 개론 상*(서울: 세영사, 1977), 18.

[239] Ibid., 19.

[240] Ibid., 20.

[241] 최한구, *마틴부버의 생애와 사상*(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77.

그리스도인 들이 비 그리스도인 들에게 선교하는 것’[242]을 포함한다. 따라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두 단어를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기독교 신학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1) 커뮤니케이션의 궁극적 기초: 하나님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궁극적인 기초는 하나님 곧 삼위일체의 이미지이다.[243] 성서와 교회 전통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은 삼위가 늘 함께 나타나고 있다.[244] 성부 하나님은 예수를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245] 라고 말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역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246] 고 말한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247] 고 말씀하신다. 이와같이 삼위일체 사이에 존재하는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은 성서의 위격들 사이에 있는 나와 너 (I and Thou)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관계적 기초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기를 원하신다.[248] Handric Kraemer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반려자로서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다.[249] 이와같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통한 인간과의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 커뮤니케이션의 기초로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2)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

---

[242]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서울: 베다니, 1999), 66.

[243] 장로회신학대학, *교회와 커뮤니케이션*(서울: 기독교방송, 1987), 11.

[244] 권용근, 118.

[245] 마 17:15.

[246] 요 16:28.

[247] 요 16:3.

[248] 권용근, 119.

[249] Handric Kraemer, *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임춘갑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12-13.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250] 이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파괴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간의 구원이다.[251]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인간들과 소통하신다.[252] 우리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리고 징계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통한 구원의 계획은 역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계시는 항상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253] 이렇듯 인간은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간다.

또한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신다.[254]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다. 따라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언어를 주심으로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어적인 존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언어를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55]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신다. 하나님께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역사와 말씀 그리고 계시 이외에 환상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의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창조성을 바탕으로 한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

[250] 권용근, 121.

[251] Ibid.

[252] 이용강, *교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상징에 대한 연구*(미간행: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 8.

[253] Robert E. Webber, *God Still Speaks*,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6), 77.

[254] 권용근, 121.

[255]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창 2:16), 타락 이후 (창 3:18), 가인에게 (창 4:8), 노아에게 (창 9:1), 그리고 사가랴 (눅 1:12-13) 와 마리아 (눅 1:26-38)에게 수태 고지를 알리셨다.

노력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한번 기독교 신앙과 믿음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의 신비와 하나님을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256] 이와같이 환상은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며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들을 교회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유용성

인간은 살아가면서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끊임 없이 성장 발전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커뮤니케이션은 여러가지 복잡한 요인들로 인해 자유로운 대화와 소통으로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257]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커뮤니케이션의 추진과 효율성을 위해 개발한 첨단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역설적으로 인간 사이의 대화와 소통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258]

그러나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커뮤니케이션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될 수도 온전한 공동체적인 삶도 이루어 낼 수 없게된다.[259] 따라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게 되는 유용성을 살펴 봄으로 현재 한인 이민 교회들이 처해있는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재를 통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1) 참여를 돕는 커뮤니케이션

현재 자본주의 사회 체제 하에서 매스 미디어의 기본적인 속성은 수직적, 권위적 체계로 위에서 아래로,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소수에게서 다수로, 그리고 정보를 많이 소유한 사람들로 부터 적게 소유한 사람들에게로 집중된다.[260] 시장 경제 전반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이러한 전 지구적인 미디어 체계는 수요 창출을 위해 즐거움만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쟁점 이슈들을 피하며, 일반 서민들의 참여를

[256] Robert E. Webber, 90.

[257] 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 신학*, No. 56 (2000 년 봄), 151.

[258] Ibid.

[259] 최한구,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성광사, 1994), 64.

[260] 배규한, *매스 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9-10.

제한하고, 공적 영역을 붕괴 시키는 등 처음 의도와는 달리 점점 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고 있다.[261]

그러나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참여적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쌍방향적인 상호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일반적 거뮤니케이션의 전제에 덧붙여 하나님의 세 위가 상호 교통하고 계신다는 삼위 일체적 이미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이를 통한 구원의 목표로 이끌 수 있도록 돕는 것[262]이 바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회복을 김정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커뮤니케이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절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이며, 성육신 사건은 성서가 보여주는 가장 완전한 커뮤니케이션 행위이며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가장 모범적인 원형이다. 아들 예수의 인격 안에 성육하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와 인간 사랑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피조물 사이의 모든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 인간 세상 한 가운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복음이자 하나님 나라 소식의 선포자이다.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의 결정적 의미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커뮤니케이션과 코이노니아가 역사 안에서 현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의 본질이요 복음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이다.[263]

예수의 복음은 세상과 문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으로 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회복시킨 사건이었다. 마찬가지로 한인 이민 교회들 역시 1세들에 의해 교회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독점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2 세들과 함께 대화와 소통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같이 한인 이민 교회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상대적 소수인 2 세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공평하게 쌍 방향으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참여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신앙 공동체적인 커뮤니케이션

---

[261] 박종균, 152.

[262] Ibid., 166.

[263] Ibid., 167.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기계시, 곧 하나님의 자기 케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록이다.[264]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집트 탈출이라는 구원과 해방의 사건으로 나타난다.[265] 이와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계약 공동체(Covenent Community)를 이루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약속과 믿음이라는 상호 관계적 소통과 대화의 관계를 유지[266] 하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된다.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적 신앙 공동체의 모습에 따라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화와 관계 그리고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한인 이민 교회들도 교인들 특별히 2 세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하는 인종, 성, 계급, 국가, 권력, 부 와 같은 장애 요인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보다 긴밀한 2 세대 들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완전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회복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로서의 교회

예수가 커뮤니케이션을 완전케 하신 분이라면 인간은 이러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단절되고, 분리되었던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267]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다. 이와같이 Webber 는 회복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합체이다"[268] 라고 설명하고 있다.

(1)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회복

---

[264] 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기독교 사상*, No. 5 (1989 년 5 월), 78.

[265] 출 3:7.

[266] Ibid.

[267] 권용근, 124.

[268] R.E. Webber, 123.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교회 내 커뮤니케이션 회복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교회 내 모든 사람들이 상호간의 대화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형상과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교회[269] 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의 관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용갑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 첫째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되고 교회에서 경험되는 것이며, 이러한 회복된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밝히 그려내는 것이 성례전에서이다. 교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회복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 수용을 통해서이다. 죄의 등장이 인간을 자신으로부터 쇠외시키고 인간 내부에 바울이 묘사한(갈 5:19-21) 자기 파괴의 모습을 형성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는 개인의 자아 체험에 실질적인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셋째로, 커뮤니케이션은 교회 안의 회복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된다. 죄가 우리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에 장벽을 만들었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서로 화해하게 하신다.[270]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대 전제를 근거로 한인 이민 교회들은 예배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단절된 2 세들과의 잃어버린 커뮤니케이션을 회복하고 또한 함께 노력함을 통해 이민의 상황 속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된 두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신앙 공동체로서의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2) 나눔을 통한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 회복

대화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인간은 대화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삶에 의미를 부여하며, 더 나아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현대사회 특별히 이민사회는 말과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2 세대들과의 의사소통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외모와 학력 중심적인 사고방식은 가정으로부터의 대화를 단절시켰고, 이것의 연속 현상으로 학교와 사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품고

[269] 하나님의 백성 (고전 1:2) 으로서의 교회 이미지는 이중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교회를 만들고 존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며, 둘째로 교회는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 관계 맺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역동적인 공동체라는 점이다.

[270] 이용갑, 13.

나아가야 할 교회 안에서까지 대화는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271] 이러한 상황속에서 진정한 대화는 외형에 의한 평가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사랑과 겸손함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페다고지의 저자 Paulo Freire 는 말하고 있다.

> 대화는 인간들에 대한 강한 믿음, 만들며 제조하며 창조하고 재 창조하는 인간 능력에 대한 믿음, 보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인간 사명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 대화가 사랑, 겸손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자연히 참석자들은 서로를 신뢰하는 수평관계를 맺는다. 대화는 또한 희망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272]

대화는 협상이나 설득이 아니다. 대화는 서로의 차이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을 상대방이 납득하고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가정에서 부모들과의 대화에 목마른 2 세대들은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역시 권위적인 방법으로 이들과 대화하려하고 있다.

1 세대들은 자기의 주장을 전개할 때 나눔을 통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세대이다. 이것이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이전에 이와같은 권위적인 1 세대들의 대화의 방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2 세대들의 마음을 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진정한 관계의 개선또한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화의 부재 속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가 스스로의 권위적인 모습을 벗고 진정한 신앙공동체로서의 나눔을 통한 대화가 넘치는 공동체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 것인가? 그것은 1 세대가 2 세대를 위해서 혹은 1 세대가 2 세대에 대해 교육과 대화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 세대 2 세대 모두에게 의견과 견해를 불러 일으켜서 그들에게 감명을 주고 아울러 그들에게 도전하는 세계를 1 세대와 2 세대가 더불어 실천하는 교육과 대화를 지향하는 것이다.[273] 이와같이 일방적인 지시와 명령의

---

[271] 유정인, *신앙공동체와 교육 목회의 관계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45.

[272] Paulo Freire, 성찬성 역, *페다고지* (서울: 한마당, 1997), 109-110.

[273] Ibid., 115.

대화에서 벗어나 두 세대들 모두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고 모두가 함께 그리고 더불어 살 수 밖에 없는 아름다운 만남의 관계적 그리고 공감대적인 인식을 통한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두 세대모두 회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Silence Exodus 를 방지하지 위한 한인 이민교회들의 노력

한인 1 세대 교회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2 세대들이 정든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2 세대들을 향한 교회교육 전반의 문제 또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2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가 생각하는 이유는 2 세대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가는 주된 이유는 영어 예배에 대한 1 세대들의 교육적인 지원과 재미의 유무보다 1 세대들이 2 세대들과의 '의미'와 '관계'를 맺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민 교회가 가지고 있는 1 세대 중심적인 개교회 성장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문화 속에서 소외된 2 세대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한인 이민 교회만의 교회관을 수립하는 것이다. 미국 내 대표적인 메인 라인 교단 중의 하나인 미국 장로교 규례서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수행해야 할 올바른 교회 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다.

> 교회의 소명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교인들 서로간에 사랑을 본보이고, 공통된 삶의 자질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실재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즉 교회는 화해를 이룩하고, 상처를 싸매주며, 가난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리고 힘 없는 자를 돌보며, 죄와 공포와 억압과 굶주림과 불의에서 백성을 자유케하는 투쟁에 참여하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서 그의 의와 평화와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행동해야 한다.[274]

다시 말하면 진정한 교회의 개념은 교회가 처한 그때 그때마다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되거나 또는 특정한 시대가 만들어 놓은 상 (Image)에 갇혀 스스로 배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275]

---

[274]The Office of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KY: The Office of General Assembly, 2001-2002), G-2.0100.

[275] 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 출판사, 2007), 5.

역사적으로 수 많은 교회들은 저마다의 특정한 역사적 상황들 속에서 실현되고 형성화 또는 제도화 되어왔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제도화 될 수 밖에 없는 교회론에 반발하여 교회를 사회적인 유기체로, 그리고 목사를 이 생체 구조의 목자로 봄으로써 교회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려는 노력들도 동시에 있어왔다.[276]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개혁했고 또 항상 개혁하는 교회 (Ecclesia Reformata Simper Reformanda)'[277] 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교회는 그 정치 형태 뿐만 아니라 그 교리의 표준을 개혁하는 데에도 개방적이며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방성을 통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놓아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들은 종족과, 피부색과, 계급, 나이, 성 그리고 신체적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교회의 예배나 지도력으로부터 배제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278]

이러한 교회의 소명과 개념을 통해 한인 이민 교회들도 2 세대들을 향하여 제도화된 1 세대들만의 정형화된 잣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포괄성과 수용성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교회의 형태와 존속만을 위해 전전긍긍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한 세대간의 공감대를 통해 1 세대와 2 세대 모두 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 울타리 밖의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인종들에게도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에큐메니칼 지향적인 교회로서의 개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이러한 교회관의 정립을 통하여 먼저 이민 교회들은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기관으로서의 제도적 형태로부터 1 세기 초대 교회들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의 몸이나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관계적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어느 한 세대의 일방적인 주도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닌 1 세대와 2 세대가 서로 함께하는 관계개선을 통해 언어와 문화, 지역과 환경, 그리고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인정받고 모두가 동일하게

[276]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7.

[277] The Office of General Assembly, 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G-2.2000.

[278] Ibid., W-1.4003.

능동적으로 교회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한인 이민 교회를 의미한다.

초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뒤섞여 있던 교회 공동체에서 그들간의 성적, 계급적, 종족적,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장소였다.[279] 이렇듯 초대 교회는 현재 한인 이민 교회들의 모습처럼 제도화된 교회가 아니라 반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이와, 연령, 배경과 상관없이 온 성도가 참여하는 살아있는 교회, 관계적인 교회였다. 이와같이 한인 이민 교회들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유기체로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 2 세대들을 차별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하며 세대간의 연합을 통해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호 권면(Mutual Edification) 과 상호 격려(Mutual Encouragement) 를 통해 두 세대가 하나되는 한인 이민 교회만의 신앙 공동체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한인 이민 교회들은 개방성에 근거해 2 세대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 철학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대 사역은 English Ministry 와 Multy Ethnic Ministry 와 같이 단순히 영어로 예배 드리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는 것 이상의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상황과 신학적 필요에 적절한 신학적, 물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은 여전히 1 세대 중심의 상황에 맞는 목회 철학과, 프로그램으로 2 세대들을 대하고 있는 점이 문제이다.

성공적인 2 세대 사역을 위해서 한인 이민 교회들은 미국의 새로운 상황 (Context) 에 맞는 사회학적, 그리고 인류학적 모든 가능한 문제들을 파악하고 또한 이것들을 통해 목회 사역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한 신학과 목회 철학을 찾아내야 하며 동시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인 이민 교회에 적합한 상황화된 성경적 교회론 (Contextulized Biblical Ecclesiology) 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80]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기존의 한인 이민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타 문화와 민족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배타적인 자세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

---

[279] 조태연, 차정식, 유승원, 208-208.

[280] 이태훈, 한인교회 EM 사역의 두 가지 문제, http// koreanamericanchurch. Blogspot.com (16 April 2009).

스스로 배타적이며, 권위적인 교회로부터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며, 동시에 개방적인 교회로 전환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 교회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뿌리교육과, 신앙교육이 세대간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데 왜 중요한가 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이를 통해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한 모든 지원을 통해 이민 가정들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 (무사르) 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 (토라) 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어머니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 사슬이니라.”[281]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장장 2,000 년 동안 세계의 고아로 떠돌아 다니면서도 자기들 고유한 뿌리 의식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안식일 (샤바트)과 율법 (토라), 그리고 가정 (바이트) 이 있었기 때문이다.[282] 다시말하면 그들이 고통과 박해를 이기고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가정에서의 부모들에 의한 교육의 힘이요, 또한 가정과 더불어 회당에서 이루어진 토라와 같은 신앙과, 뿌리에 바탕을 둔 건전한 민족 교육의 힘 이라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결국 중요한 존재 의식으로 확대 발전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인 위에 가정이 먼저 존재 하고 그 후에 개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283]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들은 먼저 신앙의 모범을 통해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한인 이민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쌓여진 세대간의 견고한 공감대를 통하여 이민자로서의 서로의 아픔을 사랑과 희생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 세대와 2 세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언어와 문화의 이질감이 극복되게 될 것이고 결국 2 세대 자녀들은 다시 가정과 한인 이민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학자들은 ‘3 세대 귀한 법칙 (Third Generation Return)’이라고 말한다. 즉 이민자의 민족 주체성이 2 세대들에게 거부 당하는 것 같지만 3 세대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다.[284] 따라서 한인 이민 가정들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인 눈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끊임 없는 사랑과

---

[281] 잠언 1:8-9.

[282] 이병렬, *내 백성 이스라엘아* (서울: 페트라 성경원어연구원, 1988), 259.

[283] 오성춘, 16-17.

[284] 신정하, *예수안경* (서울: 두란노서원, 2003), 30.

신앙의 실천으로 2 세대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공감대를 나누고 이를 통해 1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신앙과 민족의 유산을 2 세대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을 위해 한인 이민교회들은 가정예배, 가정상담, 그리고 가정 심방 등 이민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내 2 세대 들과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개발 즉 말씀과 예배, 성례, 그리고 절기 프로그램들의 개발을 통해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민족적 동질감과 공감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간 한국 이민 교회들은 가족 중심적인 교회에서 보다 더 조직적이고, 프로그램 중심적이며, 그리고 성직자 및 소수 리더 중심의 제도화된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성장 발전해 왔다. 어느 한편에서는 밀려드는 한인 이민자들을 교회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적인 성장과 제도화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인 이민 교회가 양적,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교회 안에 이러한 성장과 발전이라는 그늘 속에서 소외되어 외면 받고 환영 받지 않는 사람들 또한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중요한 점은 외형적. 양적 성장 과 함께 교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 가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한인 이민 교회들은 주류 사회와 문화로부터 주변화 되고, 소외된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각 이민자들의 아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동시에 두 문화 사이에서 어느 쪽에서 속할 수 없는 방황하는 2 세대들을 사랑과 희생 그리고 같은 이민자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진지하게 만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한인 이민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 나이와 학벌, 그리고 배경에 의해 차별 받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임과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기쁜 만남이 있는 한인 이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1) 1 세대와 2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

(1) 세대 통합예배의 정의

세대 통합예배의 정의에 있어서 예배학자 김세광은 '세대 통합예배(간세대 예배)'와 '세대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세대간 예배'(Cross-Generational Worship)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어른과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모여 수동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드리는 '세대간 연합예배'(Intergeneration Worship)와는 구분하여 예배 회중들이 예배의 기획과 예배의 진행, 그리고 예배의 참여를 함께 하는 예배를 말한다."[285] 다시 말하면 세대 통합예배란 세대별 예배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해보려는 목적으로 세대간 구분하지 않고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예배의 가족예배적 성격보다는 교회가족공동체적 성경이 강조되며 더 나아가 세대별 예배에 익숙해진 현 회중보다 미래회중을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계획 되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세대 통합예배인 것이다.[286]

(2) 세대별 예배의 문제점과 한계성

한국교회 뿐만아니라 이민교회들 역시 전통적으로 각 세대별 특성에 맞는 예배를 적용하고 발전시켜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같이 예배가 각 세대에 맞는 특성에 맞게 드려지다보니 예배분위기와 표현방식이 달라 모두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쪽 방향만 강조한 예배만을 드리는 회중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과의 상방된 예배적 성향의 예배자들을 이해하고 영적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287]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납과 화합을 통한 신앙공동체가 되어야할 교회가 변화의 틀 속에서 다분화, 다양화되어가는 현상속에서 교회 안에서조차 1 세대들과 2 세대들은 서로를 향한 무관심 속에서 각자 자기들의 세대에 맞는 신앙의 색깔들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안의 상황은 1 세들로 하여금 좋은 신앙적 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과 문화 그리고 신앙을 보는 관점이

---

[285] 김세광, "세대 간 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 *성실문화*, No. 47 (2006 년), 87.

[286] 김세광, "한국교회 예배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안적 모색: 중소형교회를 위한 세대 통합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 *신학과 실천*, Vol. 15 (2008 년), 29-30.

[287] Ibid., 18-19.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예배를 통해 2 세대들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있으며 이를 통한 두 세대들의 하나되지 못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3) 세대 통합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관계개선

세대 통합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기존 예배와는 달리 예배의 준비, 즉 모든 세대가 예배의 기획과 진행에 참여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는 점이다.[288] 그리고 이것을 통해 1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2 세대들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개성과 장점을 역동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대 통합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균형잡힌 예배[289]를 바탕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연령에 속한 회중들이 각기 함께 교육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예배 안에 함께 동참하는 일들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계층들이 신앙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세대 통합예배를 통해 유교적 영향으로 경직된 과거의 1 세대 중심의 예배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온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세대 통합예배에서 드리는 다양한 예배의 방식들[290]을 통해서 경험함으로서 이민자로서 항상 그들 모두를 무겁게 눌러왔던 주변인이라는 자괴감으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임을 깨닫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이 세대가 함께드리는 예배를 통해 그동안 느껴왔던 낯설음과 어색함을 벗어버리고 두 세대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통해 보다 더 역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민 교회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88] Ibid., 34.

[289] 세대 통합예배는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추구하는 예배로서 현대문화의 요구에 친절히 응하면서도 예배의 공동체적 성격, 성육신적 성격, 만남의 광장으로서의 성격, 사건적 성격을 잃지 말아야 한다.

[290] 스토리텔링 설교, 예술적인 표현과 예전의 활용, 그리고 신체 언어 및 멀티미디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예배안과 밖에서 세대 간의 역동적인 교제,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Ⅴ. 성서의 아가페(Agape)와 한국인의 심성에 있는 인(仁)

1. 성서에 나타난 Agape 사상

1) 헤세드 (구약의 Agape)

구약 성서에서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291] 그래서 학자들은 구약성서 안에서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려고 많은 연구를 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폭 넓은 의미 때문에 정확한 신학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 더욱이 현대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다.[292]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에서 번역된 성서들도 헤세드의 의미를 여러가지로 번역하고 있고, 독일어 본 성경이나, 대다수의 영어 본 성경에서도 상황에 따라 헤세드를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293]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와같이 헤세드가 다양한 뜻으로 해석하면서도 단 한번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긍정적이 헤세드의 의미를 통해 이민사회 속에서 1 세대와 2 세대들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를 이룰수 있을지 그 성취를 위한 바른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헤세드

인간의 헤세드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며, 가진 사람에 의해 의한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294] 따라서 헤세드는 그 자체로 자비를

---

[291] 구약성서에서 신학사전에는 헤세드가 245 번 사용된 것으로 나온다. 창세기 11 번, 출애굽기 4 번, 민수기 2 번, 신명기 3 번, 여호수아 3 번, 사사기 2 번, 룻기 3 번, 사무엘 상.하 16 번, 역대상.하 15 번, 에스라 3 번, 느헤미아 5 번, 에서더 2 번, 욥기 3 번, 시편 127 편, 잠언 10 번, 이사야 8 번, 요나 2 번, 미가 3 번, 스가랴 1 번.

[292] G. R. Clark, *the Word Hessed in the Hebrew Bible* (Sheffiel: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67.

[293] K. D. Sakenfield, *Faithfulness in a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5), 2.

[294] Bernhard W. Anderson, *구약성서의 이해Ⅱ,* 제석봉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1), 165.

뜻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결합해주는 관계를 의미한다.[295]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긍휼, 자비, 그리고 사랑과 같은 헤세드를 베풀면 상대방 또한 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야만 한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헤세드의 베풂을 서로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인간 관계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헤세드는 동시에 상호 조건적인 관계라는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2) 하나님의 헤세드

헤세드가 하나님에 대해 언급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과분한 친절 속에서 죄인에게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가리킨다. 노희원은 이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시편 51편을 통해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 "이 시편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뜻의 "헤세드"라는 단어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임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사랑으로 택하신 하나님,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던 것처럼 어떠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은 자기를 없는 것처럼 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296]

신명기 율법을 보면 다른 남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여성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아내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297]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넘어선 초월적인 사랑이다.[298]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영적으로 간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299]

---

[295] Ibid.

[296] 노희원, 눈보다 더 희게, *한국성경연구원*, Vol.3 (1997년 9월), 5.

[297] 신명기 24:1-4; 예레미아 3:1.

[298] 예레미아 3:12-14.

[299] 노희원, 5.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때문에 자신이 내린 율법을 제일 먼저 어기신 하나님이시다.[300] 이와같이 성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301]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헤세드는 은총을 가리키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신 도움을 상징한다. 시편기자는 이와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본다.[302] 그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다.[303] 이것은 관계를 잃어버리고 마침내 인간성마저 상실되어가는 이민사회에 주어질 수 잇는 하나님의 자비, 친절하심, 그리고 인자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 분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은밀하게 역사하신다.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그 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백성들이다.[304]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과거 생명이 없는 존재들처럼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생명을 소유한 1 세대들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들과 특별히 2 세대들과의 사귐을 통해 예수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본회퍼는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300] Ibid.

[301] 먼저 이러한 사랑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과 같다. 이러한 의미는 시편 51 장 1 절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나타난다. 이는 한 아이를 감싸서 보호하고 있는 어머니의 뱃속과도 같이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고있다. 이 단어는 원래 자궁이라는 뜻에서 한엇이 가엽게 여기는 정(Compassion)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모정만큼 더 강한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다. 젊을때의 열정적인 부부간의 사랑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나 때로는 자식도 부부보다더 더 가까울 수는 없다. 부부간에는 촌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성서에서는 묘사된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와 고멜과의 사랑, 예레미아에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로 묘사되고있다.

[302] 시편 25:6.

[303] 시편 36:7.

[304] Ibid.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임을 말하고 있다.

>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한번만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택함을 받았고, 시간 안에서 용납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305]

말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1 세대와 2 세대가 참 만남을 통한 아름다운 관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조건에 의한 관계개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희생과 사랑 그리고 서로 섬김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의 사귐을 위한 유일한 터를 놓아 주셨다. 또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사귀는 생활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과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306] 따라서 1 세대들은 가진 자로서 2 세대들에게 요구하거나, 지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감사하면서 나아갈때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예수의 사랑 (신약의 Agape)

기독교에서 사랑, 곧 아가페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다.[307] 이와같이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308]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이다.

(1) 신약 성서에 나타난 아가페

---

[305] 디트리히 본회퍼, 24.

[306] Ibid., 33.

[307] 이명권, 95.

[308] 마가복음 12:28-34; 누가복음 10:25-28.

신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가페의 개념은 구약에서 나타난 헤세드 사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309] 이러한 사실은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상의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10]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예수가 사용하고 있는 아가페가 단순히 하나님과 자신만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점이다.[311]

>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312]

위의 성경 구절들을 통하여 예수는 하나님과 제자들 그리고 죄인과 세리에게도 사랑의 개념으로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가 모든 사람을 차별없이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제한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중심 개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또한 사랑의 삶을 새계명[313]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구원을 주는 믿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3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아가페의 의미를 독특한 별개의 의미로 사용하지 않고 모든 사랑을 의미하는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315] 여기서 바울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동일하게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신약

---

[309] 오상영, *아가페 치유 상담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연구* (미간행: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6.

[310] 요 13:13.

[311] Ibid.

[312] 눅 6:32; 마 5:46.

[313] 요일 3:14.

[314] Ibid., 7.

[315] 요일 2:15.

성서에서 고찰해 본 아가페 사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특히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아가페의 일반적 정의

아가페의 뜻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자비롭고, 또한 타인을 위한 희생을 기뻐하는 사랑이다.[316]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는 단지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의미 뿐만이 아니라 예수가 공생애를 통해 사람들에게 한 것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고 나누는 기독교인의 삶 그 자체가 필요하다.[317] 아가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예수는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과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였다. 그는 사회에서 천대 받았던 고아와 과부 그리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돌보았고,[318] 세상으로 부터 소외된 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319] 이와같은 예수의 사랑[320] 에 대해 이성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공관복음과 바울사도에 의하면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인 인간 모두를 구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막 10:45; 롬 5:6-8), 그러므로 이 사랑은 만민에게 미치며 사회적 내지 인종적 차별의 벽을 모두 타파하고 (갈 3:28) 어느 누구도 경멸하지 않는다 (눅 7:39; 14:13). 그 뿐만이 아니라 원수에 대한 사랑 까지도 요구한다 (마 5:43-47; 눅 10:29-37). 사랑은 결코 의기 소침해 지지 않는다. 사랑은 한 없이 용서하고 (마 18:21-22; 6; 12:14-15), 적과도 적극적으로 화해하며 모든 것을 참고 악을 선으로 보답한다 (롬: 12-14; 엡 4:25-5:2).[321]

---

[316] Edward Collins Vacek, S.J., *Love, Human and Divine: The Heart of Christian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4), 191.

[317] Ibid.

[318] 누가복음 7:36-50; 19:1-10; 마태복음 21, 31, 32..

[319] 요한복음 15-16..

[320]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Hesed)를 통하여 계시되어 오던 것이 기독교가 로마시대를 거쳐 토착화 됨에 따라 보다 더 세련되게 발전된 아가페 사랑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321] 이성배, 60.

오늘날 복음서의 기자들과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케리그마 사상에 의해 더욱 발전하게 된 예수의 사랑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로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2. 한국인의 심성에 영향을 준 "Asian DNA"[322] 로서의 유교

지난 2500 년 동안 유교의 철학과 윤리적 가치들은 동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323] 수 세기를 거쳐오면서 유교는 동 아시아 사람들의 가족의 삶, 교육, 사회, 그리고 국가의 형태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유교적 가르침과 윤리는 "문화적 DNA"[324] 로서 동 아시아 인들의 정신속에 "생활의 습관"[325] 으로 스며들게 되었다.

한국 역시 동 아시아 국가들 중의 하나로서 유교에 깊숙히 영향 받아왔다. 유교는 한국에 비교적 늦은 15 세기에 전해지게 되었지만 유교적인 이상 사회를 꿈꾸었던 조선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고 마침내 조선의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하게 되었다. 유교가 이렇듯 한국의 공식 국가 이데올로기로 정착되는 동안 유교의 정신은 한국 사람들의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곳에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같이 한국인의 가치와 삶 속에 깊고, 넓게 스며들게 된 견고한 유교적인 시스템은 한국인들을 오늘날 동 아시아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유교적인 모습의 국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교의 발상지인 중국에서 보다 더 유교 국가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다.[326]

---

[322] 여기서 "Asian DNA" 라는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 보다는 기술적인 표현으로 "Invitation to Lead" 의 저자 Paul Tokunaga 는 유교 영향권에 있는 동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Confucianism, Shame, Suffering, 그리고 Family Liminality 의 경험들을 통칭하여 "Asian DNA" 라고 부르고 있다.

[323] Paul Tokunaga, 36.

[324] John H. Berthrong and Evelyn Negai Berthrong, *Confucianism: A Short Introduction* (Oxford: One World Publications, 2000), 22.

[325] We-ming Tu, ed.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e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Me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89.

[326] Byong-ik Koh., "*Confucianism in Contemporary Korea*," in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ed. Wei-ming Tu (Cambridge, Me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191.

기독교에 의해 서양 세계의 문화와 문명이 꽃 피울 수 있었던 것 처럼 이와같이 유교에 의해 동 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생활 방식이 영향받게 되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현재 유교는 한국에서 더 이상 공식적인 국가 이데올로기로, 교육 기관으로, 그리고 개인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가르침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있다.

1)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인 이민 가정 안에서의 세대간의 갈등

한국에 들어온 유교는 한국인들의 무의식과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깊은 영향[327] 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328] 이러한 유교의 영향은 특별히 가족에 대한 강조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교의 윤리가 농업을 위주로 하는 가족 중심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329] 유교 사상에서 가족은 개인이 처음으로 접하는 공동체이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공간이기도 하다.[330] 최준식은 이와같이 가족을 강조하는 유교의 영향에 대해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통해 그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라라는 의미의 '국가'는 집 '가' 자를 붙여 '국가'라는 단어가 되고 또 '우주'는 아예 '집 주' 자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유교의 이념과 윤리는 집 곧 가정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331]

소학 (小學) 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윤리적 관계[332] 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유교적 관점에서 가정은 생물학적 번식을 위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의 윤리와 관계를

---

[327] Ai Ra Kim, *Women's Struggle for a New Lif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6), 5.

[328] Grace Ji-Sun Kim, *The Grace of Sophia: a Korean North American Women's Christology*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2002), 48.

[329] 정진일, *유교의 이해*(서울: 형설출판사, 1997), 197.

[330] 이지현, *유교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 관점과 개인적 관점: 중.고교 도덕윤리 교과과정에서 두 관점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5.

[331] 최준식, *현대종교 문화로 읽는다*(서울: 사계절, 2005), 205-206.

[332] 김문식, 소학(小學)과 아동교육, *전통과 현대*, Vol. 5 (1998 년 여름), 94.

배우는 장 이기도 하다.[333] 유교에서의 이러한 정신은 가정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더욱 더 확대 되어서 수신(修身), 제가(濟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 와 같은 가르침을 통해 사회와 국가로 확대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함에 있어 그 시작은 가정이며 이러한 개인 단위의 가정들이 올바로 서게될 때 비로서 국가와 사회의 번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334]

한국의 가정과 특별히 Korean American Family 에 미친 유교의 영향은 이와같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의 가족 구조와는 달리 한국의 가족은 수평적으로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부모와 자식의 큰 두 축으로 구성되는 공동체이다.[335] 따라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지켜야할 규법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륜 (五倫)[336] 이다. 이 다섯가지의 윤리를 통한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통해 맹자는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의 안정을 추구했고 그리고 이러한 가정의 평화는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337]

유교에서는 이처럼 가족윤리를 공동체를 살리는 관계의 근본 원리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강조한 '부자유친 (父子有親)'을 오륜 (五倫) 가운데 제일의 규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부자유친은 말 그대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천륜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자식이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 이 세상에 나올때 부터 이미 천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뜻하는 것이다.[338] 그러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고, 끝이 없는 사랑이기에 자식은 반드시 효로서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사상이 바로 부자유친의 내용이다. [339] 이러한 유교적 윤리를 통한

---

[333] 이지현, 25.

[334] Ibid.

[335] 최영진, "*유교의 가족관,*" 현대인의 유교읽기, 조남욱 외 공저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9), 240.

[336] 오륜은 부자유친 (父子有親), 군신유의 (君臣有義), 부부유별 (夫婦有別), 그리고 장유유서 (長幼有序) 의 다것개의 윤리 덕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37] 맹자가 이처럼 가족 윤리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당시 농업을 주 생산으로 하는 고대 중국에서 생산과 납세의 주체가 바로 가족 이었다는 사실과, 한 (漢) 나라 시절 유교가 관학화 (官學化) 되면서 유교적 가족 윤리가 국가의 통치 이념에 연계된 것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338] 정진일, 214.

[339] Ibid.

가정 내에서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대간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소통을 통해 현재 한국 가정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국과 한인 이민 가정들의 상황은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에 대화와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한 소통의 단절로 인한 분리와 단절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 부모와 자녀간의 상하 복종의 수직적 관계

현재 한인 이민 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존립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한인 이민 가정이 있다. 실제로 이곳의 복합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1 세대 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2 세대 자녀들과의 아름다운 상호 수평적인 '부자유친'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상호 복종 관계의 수직적, 배타적 관계를 통해 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1 세대 부모와 2 세대 자녀들이 한 집에 살고 있지만 한 가족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남남처럼 등을 맞대고 사는 한인 이민 가정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다.[340]

아시아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이민자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는 모든 것 그 자체이다.[341]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2 세대들은 자기들의 원하고 뜻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공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그늘 아래서 부모가 원하는 길과 방법으로만 가고 결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이러한 한인 가정 안에서의 수직적이며 또한 상하 복종적인 현상에 대해 Paul Tokunaga 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의 부모들은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최소한 4 가지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종종 부모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높게 인정하면 인정 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모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대체하게 되며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두번째, 우리는 운명적으로 공자의 세대적 경건의 가치를 수반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교의 문화 속에서 자식은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따르는 것 보다 부모의 의견을 존중하며 그들의 마음음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 수 밖에 없다. 셋째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성경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

[340] 뉴욕 한국일보 사설, *이민 가정의 가치관 전수*, http// koreatimes.com (05 May 2008).

[341] Paul Tokunaga, 46.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삶에 지나친 부모들의 간섭이다. 부모들의 외형 지상주의는 심지어 우리들의 캠퍼스 안에서의 활동까지도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므로 우리들과의 새로운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342]

이미 우리는 한인 이민 가정들이 유교로 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 가운데 가정 공동체의 관계 윤리인 '부자유친'과 같은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이 관계 윤리가 부모와 자식간의 상호 수평적이며, 수용적인 윤리임에도 불구하고 1 세대 부모들은 지금까지도 부모를 향한 2 세대 자녀들의 일방적이고, 무 조건적인 순종과 복종이 바로 '부자유친'이 지적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믿고 있으며 동시에 이것를 통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인 1 세대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부자유친'의 진정한 의미는 부모가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희생할 때 자녀는 비로서 부모에게 효성을 다할 수 있다는 (父慈子孝)[343] 쌍방적인 관계의 윤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1 세대 부모들과의 상호 수평적, 수용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이며 배타적인 관계 속에서 2 세대 자녀들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344] 따라서 한인 이민 가정과 한인 이민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한인 1 세대들은 그 동안 왜곡되어온 아름다운 유교의 전통과 가치들을 이곳의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재 검토할 수 있는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것들을 이곳 문화 속에서 자라난 2 세대들과 나누기 위한 토착화 작업에도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전통적 부모의 권위가 무너짐

한국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러한 아버지의 독특한 위치 때문에 아버지는 가정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데 대

---

[342] Paul Tokunaga, 47.

[343] 최영진, 255.

[344] Paul Tokunaga 는 1 세대들의 일방적인 문화적 강요에 의해 2 세대 자녀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요소들을 '수치심(Shame)' 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수치심을 통해 2 세대들은 가정 내에서 자신들이 해야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수치심이 긍정적으로 표출 되었을 때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며 동시에 부모들의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수치심이 부정적 (Toxic) 으로 흘러가가 될 경우 가정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의 단절 뿐만 아니라 2 세대 자녀들이 영적인 파산에 까지도 이를 수 있음을 그는 경고하고 있다.

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향한 자신들의 이러한 권위가 마땅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 이민을 온 한인 1 세대 부모들도 역시 가정과 교회 내에서 2 세대 들로부터 부모와 어른으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곳의 복합 문화 속에서 자라난 2 세대 자녀들은 1 세대 부모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부모들 스스로가 먼저 권위를 받을 수 있을만한 자격을 갖추기를 원한다.[345] 따라서 한인 이민 가정 내에서는 세대간의 보이지 않는 치열한 권력, 역활, 그리고 권위에 대한 이해의 커다란 장벽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3. 관계론의 보고 로서의 유교 사상

서양의 세계사는 일찍부터 창조 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각 개 개인의 존재의미를 파악하려는 존재론적 세계관이 발전되어 왔다.[346] 이러한 존재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서양 세계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개인을 특별한 실재로서 인정하는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될 수 밖에 없게된다.[347] 그러나 반대로 유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관계론적 세계관은 존재론적인 세계관과는 달리 모든 존재는 관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배타적인 개인이나, 존재론적인 개인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관계과 공동체를 통해서만 개인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존재론적 세계관이다.[348]

유교는 인간과 사회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공동체로 본다.[349] 유교에서는 개인을 설명함에 있어 개인 그 자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전체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350] 따라서 이러한 유교의 관계론적인 사상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들이 직면하고

---

[345] Young Lee Hertig, 172.

[346] 신영복,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서울: 돌베게, 2004), 28.

[347] 19 세기 말 부터 20 세기 초 까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시작된 제국주이의 열풍은 존재론적 가치관에 의해 끊임 없이 내부의 힘을 외부로 팽창하려던 결과가 만들어 낸 비극적 역사의 산물이다.

[348] ibid., 24.

[349] 이지현, 25.

[350] 유교는 인간과 사회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곧 사회이고, 사회가 곧 인간이라는 관계론적 평등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혼자 존재하지 않고 사회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타인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자는 이러한 관계형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의 해체와 같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사상으로 유교의 가치는 새롭게 재 조명 하는 것은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유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가정과 공동체로부터 결코 분리 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속에서 각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인성(仁成)은 반드시 타인과의 공동체적 삶을 통해 만들어 져야 함을 유교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의 관계론적 인간주의에 대하여 신영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인성을 고양시킨다는 것은 먼저 '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自己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닌 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키우는 순서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자식과 남의 자식, 나의 노인과 남의 노인을 함께 생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이루어주는 것 (成人之美)을 인仁 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서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세워야 한다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론이 확대되면 그것이 곧 사회적인 것이 됩니다. 동양 사상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거론되는 화해和諧 사상 역시 그렇습니다. 화화는 쌀(米)을 함께 먹는(口) 공동체의 의미이며, 해諧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言) 민주주의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성의 고양이 곧 사회성의 고양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351]

신영복의 주장을 통해 보았을 때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 즉 '나'라는 개념 속에는 앞선 정의적 영역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마틴 부버의 나(I) 와 너(Thou)의 관계 철학적 만남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나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나를 있게 하는 너와 같은 타인이 없다면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유교에서의 개인과 타인 그리고 사회는 마치 톱니 바퀴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돕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보다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와같은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의 바른 유교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내가 세상의 중심이요 따라서 너는 주변인 (Marginality) 이라는 배타성을 극복할 수 있고 이렇게 형성된 아름다운 공감대와 만남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가리켜 인성(仁成)을 가진 군자(君子)라고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성이란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351] 신영복, 42.

1) 인(仁)을 통한 가정 내 세대간의 관계회복

인(仁)은 공자 철학의 모든 덕목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 인(仁)은 다른 유교적 덕목들을 서게하는 기초이며, 인(仁)을 통해 다른 가치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거나 확대되게 된다. 공자는 이러한 인(仁)의 중요성을 예로 들며 군자(君子) 곧 성인(聖人)이 되는 길은 이 인(仁)과 함께하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다.

>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와 귀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나 정당한 방법으로얻지 아니하면 처하지 아니하며, 빈과 천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나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군자가 仁을 버리면 어찌 제 역할을 하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이라도 仁을 어김이 없으니, 황급한 상황에서도 仁에서 처신하고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仁에서 처신한다.[352]

유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으로서 인(仁)의 개념은 크게 다섯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어질고 착하다는 뜻으로 마음의 덕을 가리키기도 하고, 둘째로 사람됨의 근본으로서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근본 바탕이며,셋째로 착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상대방을 향한 측은이 여기는 마음이며, 넷째는 덕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353] 이처럼 공자는 인(仁)에 대하여 어떠한 명확한 개념도 내리지 않고 대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인(仁)에 비견될 만한 다양한 예 만을 들어주고 있다.[354] 이처럼 정식화하기 어려운 인(仁)의 개념에 대하여 신영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논어에서 인仁 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여러가지 입니다. 묻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안연顔淵에게는 인이란 자기(私心)를 극복하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 (克己復禮)이라고 답변하였고 중궁에게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사마우에게는 인이란 말을 더듬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의 의미는 특정한 의미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또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에게 맞는 답변을 공자는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55]

---

[352] 이기동, *논어강설*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91), 151-152.

[353] 이성배, 유교의 인과 그리스도교의 사랑, *대구 카톨릭대학교 카톨릭사상연구소*, Vol. 3 (1989 년 봄), 38.

[354] 박이문, *논어의 논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90.

[355] 신영복, 172-173.

신영복의 위의 예처럼 인(仁)은 방대한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단어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인(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윤리 덕목이라는 사실이다.[356] 인(仁) 이라는 글자가 사람(人)과 둘(二)[357] 이라는 글자로 이루어 진 것처럼 인(仁)은 두 사람 사이에서 보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인지를 관계와 공동체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로 인(仁)을 실현하는 길 인것이다.

(1) 인(仁)의 실천 개념들

① 애인 (愛人)

"번지가 인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인이란 애인愛人이다." 이어서 지(知)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공자가 대답하기를, "지란 지인(知人) 이다."[358] 인(仁)과 지(知), 애인(愛人)과 지인 (知人)은 논어의 근본 담론으로 지인이란 타인에 대한 이해요 동시에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이해이다.[359] 지인 (知人) 곧 군자 (君子)는 자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에 타인을 자기와 같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자는 인(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이러한 만남을 기초로 나와 상대방 으로부터 시작된 관계는 점차로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간의 만남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0]

---

[356]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자의 답변에는 공통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타인과의 관계라는 사실이다. 극기복례 克己復禮는 공公 과 사私의 관계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기소불욕己所不欲 물시어인物施於人'은 나와 남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사마우에게 이야기한 인 이란 '말을 더듬는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한 말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으로 역시 나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

[357] Julia Ching, *유교와 기독교*, 변선완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183.

[358] 이기동, 423.

[359] 신영복, 174.

[360] 최상권, *종교 교육적 핵심가치의 비교 연구: 유교와 기독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27.

이와같이 인간의 본성 즉 애인(愛人)의 마음에는 나와 너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361] 따라서 인(仁)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만남,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생을 구함으로써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기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룩하는 인은 있다." [362]

인(仁)의 실천개념 으로서 애인(愛人)은 다른 사람을 하나의 물건과 도구가 아닌 하나의 인격적 개체로 받아들일 수 있다.[363] 따라서 애인(愛人)을 실천하는 길은 바로 인간의 존재가 회복되는 길인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인자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364] 뜻 있는 선비와 인의 덕을 갖춘 사람은 살기를 위하여 인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죽여서 인을 이루는 것이다" [365] 라는 공자의 말은 살신성인(殺身成仁), 목숨과 도덕률 사이에 모순이 발생했을 때 도덕적 이상을 위하여 목숨을 내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공자의 단호한 생각인 것이다.[366]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인(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유교의 애인(愛人)사상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예수 또한 타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 함으로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다. 이러한 예수의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은 유교의 애인(愛人) 즉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린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이었고[367] 동시에 유교의 살신성인 (殺身成仁) 적 인(仁)의 실천 이었던 것이다.

---

[361] Ibid.

[362] 이기동, 510.

[363] 최상권, 37.

[364] Ibid.

[365] 이동희, 34.

[366] Ibid.

[367] 이명권, *공자와 예수에게 길을 묻다*(서울: 코나투스, 2008), 96.

기독교의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나눠주는 사랑이다.[368] 인간을 향한 예수의 살신성인 (殺身成仁)적 아가페의 사랑 (愛人)은 마침내 공생애의 시작에서 그가 선포했던 말씀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랑과 은혜[369] 를 통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 사마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홀로 외롭습니다." 그러자 자하가 그를 위로하였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들었습니다. 생사는 각기 정해진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군자는 (그런 것에 구애됨이 없이) 경애하는 마음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고 남과 교제할 때는 예의바르게 하기 때문에 사해가 다 형제라고 합니다. 군자가 어찌 형제 없는 것을 근심하겠습니까?"[370]

공자의 관심은 항상 사람이었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다.[371] 왜냐하면 그것이 인(仁)을 추구하는 사람다움 으로서의 도리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공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애인(愛人)의 정신은 자신과 가족만을 사랑하는 편협적인 생각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나와는 생각과 환경이 다른 이웃에게까지 보다 확대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 (仁)의 범위가 나와 가족을 넘어 우주적, 보편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372] 이러한 애인(애인)사상의 우주적, 보편적 확대 현상에 대해서 Julia Ching 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유교에서 인간은 이원로자가 아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사랑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하늘의 명령에 의해 그와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한다. 그리고 친구들이나 사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로 이 세상을 넓혀간다. 그는 공동체와 타인에 대한 책임에 심원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373]

이와같이 인 (仁)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나를 초월하는 타인을 향한 끊임 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통한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

[368] 김기현, *기독교와 세계종교* (서울: 쿰란출판사, 2008), 106.

[369] Ibid.

[370] 이기동, 401.

[371] 이명권, 93.

[372] 평동원, *공자와 인 사상에 대한 소고: 인 개념의 역사와 함의* (미간행 :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0), 39.

[373] Julia Ching, 139.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인간은 이기심과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세대가 원하고 바라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② 충서 (忠恕)

공자는 인(仁)의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평생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야기 해왔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서(忠恕)이다.[374] 공자는 "내 도는 이 충서忠恕 하나로 꿰뚫었다"[375] 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충(忠)이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성실하고, 수용적 또는 호혜주의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한다.[376] 이와같이 忠은 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통하여 타인이 원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상대방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돕는 것이 忠이라는 것이다.[377]

반대로 서(恕)는 인의 부정적인 측면으로서 간주될 수 있는데, 忠과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하도록 강요하거나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 바로 恕이다.[378] 다시 말하면 남과 같은 마음과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고, 베풀라는 것이다.

유교 윤리에 있어서 忠恕는 아주 중요한 仁의 실천 개념이다.[379] 이말은 忠恕가 仁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론적으로 함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仁의 의미를 가정과 사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실현 시켜주는 관계 회복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忠恕는 仁의 핵심 실천 원리임과 동시에 가정과 공동체를 살리는 중요한 윤리 덕목이요 동시에 仁의 또다른 실천 원리인 愛人을 실천하는 덕목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오늘날 한인 이민 사회가 고민하는 세대간의 만남을 통한 관계 회복을 위한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

---

[374] 이동희, "*유교의 인생관*",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2), 52.

[375] 이기동, 164.

[376] Ibid., 244.

[377] Ibid.

[378] Ibid., 521.

[379] 편동원, 47.

4. 관계적 입장에서 본 아가페와 인 사상의 토착화

기독교의 아가페 사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와 동등하거나 혹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맺는 모든 관계가 포함된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상은 여기서 더 확대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뿐만 아니라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것 역시 넓은 의미로서의 아가페 사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380]

이와같이 아가페 사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상을 뛰어넘어 모두의 개념 즉 공동체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아가페 사상을 통해서 본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는 개인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로서의 관계이다.[381] 우리는 한 백성으로 주님의 만찬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공동체이다.[382]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볼때 성서의 아가페 사상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통한 사랑의 실천임과 동시에 더욱 확대되어 나와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 곧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금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이끄어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유교의 경우에 있어서 정약용은 중국의 유교 사상인 仁을 한국적인 상황의 仁으로 재해석 하였다. 정약용은 仁을 두 사람 이라고 해석하고 (仁=人+二) 이들의 교제를 중시하였는데[383] 이러한 관계론적 입장에서 정약용은 도덕적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며 따라서 仁은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한 산물이라고 주장한다.[384]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유행했던 양명학[385]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시도였는데 정약용은 인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

[380] 오상영, *아가페 치유 상담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연구, 31.*

[381] Ibid.

[382] Ibid.

[383] 안영상, 아가페 (카리타스와) 비교를 통하여 본 정약용의 인 :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No. 24 (2005 년 봄), 43.

[384] Ibid.

[385] 양명학에서는 나와 남이 합하여져 구분이 없어진 상태를 萬物一體 또는 仁 이라고 한다.

있지만 동시에 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인 역시 강조하고 있다.[386] 이와같이 그는 인간이 가진 영적인 특성인 영명성 (靈明性)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 보편적인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유교의 恕 개념을 통해 이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 仁이란 두 사람이다. 자식이 부모를 효성스럽게 모시면 인이 된다. 자식과 부모는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신하가 임금을 충성스럽게 섬기면 仁이 된다. 신하와 임금은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민관이 백성을 자애롭게 다스리면 仁이 된다. 목민관과 백성이 두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그 본분을 다하는 것이 곧 仁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맹자는 힘서 恕를 행한다면 仁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
> 공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것이 推恕이고 자기 수양을 그 중심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맹자는 恕를 힘써 행한다면 仁을 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교제가 推恕의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옛 성인들이 말한 恕는 모두 이런 뜻이다.[387]

위의 인용문에서 정약용은 仁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으로 보고 인간 사이의 관계성의 회복을 恕를 통해 실현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仁의 실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忠과 恕를 사랑으로 보고 이를 통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 역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통한 인간 공동체의 회복 뿐만 아니라 토착화된 정약용의 仁 사상은 이것을 뛰어넘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로까지 확대 해석되는 신앙 공동체 또한 지향하고 있음을 이성배는 주장하고 있다.

> 다산은 忠恕에 대한 해설에서 仁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다산은 仁을 마음의 덕으로 본 주자와는 달리 仁과 忠恕를 사랑으로 보고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사랑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간이 지극한 정성과 성실한 태도로 수행해야하는 어떤 것이며 인간을 밝히는 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도 忠恕로 표현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신은 남에게 주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결실이 풍부한 사랑의 행위와 선업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된다. 修身事天의 길도 人倫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사랑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적

---

[386] Ibid.

[387] 안영상, 63 에서 재인용.

태도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人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388]

忠恕를 근간으로 하는 仁의 개념이 기독교의 아가페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종교적 성격이 강한 아가페와는 상반된 특성 또한 가지고 있다.[389]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인의 심성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仁 사상을 통해 타인을 사랑하는 행위는 이타적인 인간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행위이며 동시에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390]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한인 이민교회들은 한국인으로서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의 인(仁)을 예수의 사랑 (Agape)즉 타인과 인류를 위해 무제한적이고, 무 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토착화와 신학화의 시도를 통해 교회 안에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2 세대 들을 예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노력을 통해 1.2 세대 모두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두 세대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Agape 사상을 통한 가정과 이민교회내 세대간 화합방안 모색

우리는 가족을 떠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곳이요, 우리가 성장하는 울타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391]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지지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사랑과 인정 그리고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기대를 충족 시켜주는 가족 관계는 구성원들에게 기쁨과 안정감을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인 이민 사회내에서 가정과 교회는 2 세대 자녀들과의 분리와 단절을 경험하고 있고 그 결과 많은 수의 2 세대들이 그들의 모 교회인 한인 교회를 떠나고

---

[388] 이성배, 38-39.

[389] 최홍순, 유교적 仁 개념과 기독교적 사랑 개념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Vol. 12 (1997 년 12 월), 404.

[390] Nolan, Albert,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정한교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0), 52.

[391] 김상임, 우리 가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새가정사*, No. 556 (2004 년 5 월), 60.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세대간 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잃어 버렸기 때문이다. 대화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닌 쌍방간의 오고가는 관계 언어 이어야 한다.[392] 다시 말하면 나의 의미 분출로서의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루어지는 쌍방간의 대화가 바로 진정한 관계적 대화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족의 심성에 깊은 영향을 준 유교의 仁 사상을 기본적인 배경으로 세대간의 관계 회복 및 타인을 사랑하는 헌신과 희생의 그리스교적 '살신성인 (殺身成仁)'의 아가페적 사랑의 실천을 통해 대화와 만남의 부재를 통한 단절과 분리로 고통받는 한인 이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 성이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수의 사랑 아가페는 타인과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와 희생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의 이웃과 잘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잡고 있는 인 사상 역시 아가페의 정신과 같이 사람을 사랑하는 애인 (愛人)의 정신으로 남을 높여주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도 권하지 않는 충서(忠恕)의 배려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배려는 자기와의 사적인 유혹으로부터 순리와 원칙이라는 극기복례 (克己復禮)의 실천을 통해 마침내는 타인과 심지어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자 (聖子)에 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와같이 한국인의 심성에 자리잡고 있는 인의 정신으로 인해 가정과 교회에서 예수의 가르침인 아가페 사상을 공유하며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심성중 하나인 인 사상을 세대가 함께 공부함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같은 하나님 그리고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란 구성원들의 공통된 신념과 목표 속에서 문화적 생활체를 이루고 제도적 조직 속에서 도덕적 행동을 지향하는 사람과 사람간의 삶이요 모임이다.[393] 따라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1 세대와 2 세대가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

[392] 이종헌, 대화를 넓혀가자, 새가정사, No. 206 (1972 년 8 월), 59.

[393]문홍주, 교회 공동체, *기독교사상*, No. 360 (1988 년 12 월), 145.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일것이다. 그것은 바로 1 세대들의 희생과 눈물을 통해 2 세대들을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노력과 결단이 있을때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로만이 아닌 가슴과 가슴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하여 쌓여진 대화와 만남을 통한 공감대를 통해 2 세대들이 한인 이민 교회의 내적 교제권 안으로 들어와[394] 1 세대들과 함께 교회의 목표와 비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 세대가 머리를 맞대로 고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94] 교회성장연구소 편, *한국교회 새신자 정착모델 베스트 4*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23.

Ⅵ. 프로젝트 실행 (Project Running)

지난 12 년간 성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교육이 전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2 세대 자녀들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소는 가정이며 이러한 자녀들과 또한 가장 많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부모들이다. 따라서 성은 장로교회에서의 2 세대들을 대상으로한 교회 교육 특별히 세대간의 만남과 이를 통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교회안에서 1 세대들만의 단독적인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각 가정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다

가정과 교회가 협동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와 과제는 무엇보다도 가족 개개인이 특정 가정의 성원으로서, 동시에 그가 속한 교회의 성원으로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 즉 전인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성은 장로교회가 모든 다양한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이민가정을 보호하며 또한 창조적 관점에 근거한 미래의 긍정적인 새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395]

프로젝트를 실행함에 있어서 첫째로 생각한 것은 교회와 가정의 협동에 대한 문제였다.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육적 내용들은 교회 안에서는 어느정도 실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가정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실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민의 힘든 상황속에서 가정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회의 자원이 가정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로 교회와 가정에서 1 세대와 2 세대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들간의 만남과 대화를 이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95] Edge, F, B, *효과적인 성서교육*, 노윤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122-123.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반복적인 훈련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정착되고 또한 이것을 통해 세대간의 보다 나은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프로젝트가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이와같이 교회와 가정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에 근거하여 세대간의 만남을 이끌어내고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 특별히 본 연구의 주제인 배타적 공동체에서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변화를 통한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 성은장로교회는 세가지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만남으로 이것을 위해 가정예배와 공동예배를 준비하여 실행하였고 두번쨰는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간의 만남으로 1 세대와 2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캠프를 준비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미래 2 세대들의 리더십 함양을 위해 2 세대들을 지원하고 섬김을 통한 세대간의 만남을 돕기 위해 한글학교 지원과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1. 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만남

1)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별 통합예배[396]

지금까지 성은 장로교회의 예배는 2 세대들을 제외한 1 세대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왔다. 2 세대를 역시 1 세대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자기들만의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1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는 이와같이 세대간에 드리는 예배 공간이 분리되어 각자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서로다른 세대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신앙적 상호 공감대를 전혀 가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 세대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서 예배 드리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는지 또는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님과 선생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 교육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396] 세대별 통합예배는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에 어른과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모여 수동적으로 또는 실험적으로 드리는 세대 간 연합예배(Intergeneration Worship) 과는 구분하여 예배 회중들이 예배의기획과 예배의 진행, 그리고 예배의 참여를 함께 하는 예배를 말한다.

이와같은 1 세대 부모들의 2 세대 자녀들을 향한 무관심과 이해부족은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성공에 집착하여 자녀들의 이곳 미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교육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민자로서 이곳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2 세대 자녀들을 두고 있는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 대부분은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그들의 자녀들과 신앙적 공감대를 가지고 함께 신앙을 키워나가기 보다는 미래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희생과 봉사로 자녀들의 교육에 올인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다고 하여도 2 세대 자녀들과 신앙적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성취한 것을 즐길 수 없게 된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예배를 실행하게 된 이유는 성은 교회에 출석하는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은 말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부모들과의 대화와 만남의 단절 문제에 힘들어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의 종교적, 신앙적 차이로 인한 갈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대간에 깊이 갈라진 불신의 틈은 2 세대를 하여금 그들의 모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Silence Exodus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 월부터 성은 장로교회는 고등부를 졸업한 2 세대 학생들을 위해 영어예배를 준비하였다. 교회와 당회 모두 새로 개설된 영어예배가 개설되면 상당수의 교회를 떠난 2 세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교회의 생각은 오판으로 끝이났고 6 개원이 지난 현재까지도 총 예배 인원은 6 명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같이 2 세대들은 1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들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신앙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1 세대들과는 다른 자기들만의 신앙과 신학적 정립을 위해 갈등하고 있다. 이와같이 1 세대들을 향한 2 세대들의 잘못된 이해와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방법으로 1 세대들과 2 세대들은 상호간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배를 통해 한 하나님이 성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함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 모든 세대가 드리는 세대 통합예배를 싱행하게 된 이유는 예배는 언어와 문화의 다름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에 보면 인간의 시기와 욕심은 결국 바벨탑 사건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분리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향락과 퇴폐적인 문화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이 때에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솔직히 인정하고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를 통해 한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한 신앙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들 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에밀 브른너의 지적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가 신앙적인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때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세대 통합예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회의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했다. 미국장로교 규례서에 의하면 예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회의 지도하에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397] 이러한 당회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미국장로교 교리서의 예배 모범중 W-3.002 형식의 자유[398]와 W-3.003[399] 참여와 지도력의 부분들을 강조하여 성은장로교회 안에서 가정예배와 공동예배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고 모든 당회원들의 공감을 얻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1) 세대별 통합예배를 위한 기구구성

세대별 통합예배란 성은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함께 경험하는 예배로서 나이와 성별 그리고 문화를 초월하여 성은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수 많은 한인 이민교회들은 2 세대 자녀들과의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상화에서 예배의 공동체성과 소통의 공동체성을 상실한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와같이 예배를 통한 대화와

---

[397] 미국장로교 헌법 규례서에 의하면 당회는 개체교회의 선교와 정치에 책임이 있다. 당회는 예배모범의 원리에 따라 말씀의 설교, 성례전의 나눔, 그리고 음악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제공하며 관리하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398] 교회는 언제나 예배에 있어서 형식과 자유 사이에서 긴장을 경험해왔다. 교회 역사상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순서를 위한 제정된 형식을 제공했다. 또 다른 이들은 말씀에 충성하려는 노력으로 예배 공동체의 어떤 고정된 형식을 만들어 주는 것에 반대해 왔다. 미국장로교는 예배의 모든 형식이 잠정적이고 개혁에 종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 교회는 성령의 창조성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399] 예배 순서는 그 안에서 교회가 지역 환경과 마찬가지로 교인의 필요까지를 보살펴주는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을 역시 반영해야 한다. 예배 순서의 권위는 당회에 속하지만 예배 순서는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위해 마련되고 장려되어야 한다.

소통 그리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교회들로부터 2 세대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적 현실 속에서 성은 장로교회는 2 세대들이 모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을 막고 더 나아가 한인 이민교회들의 잃어가는 공동체성을 예배를 통해 회복하기 위해 세대별 통합 예배를 기획하게 되었다.

(2) 실행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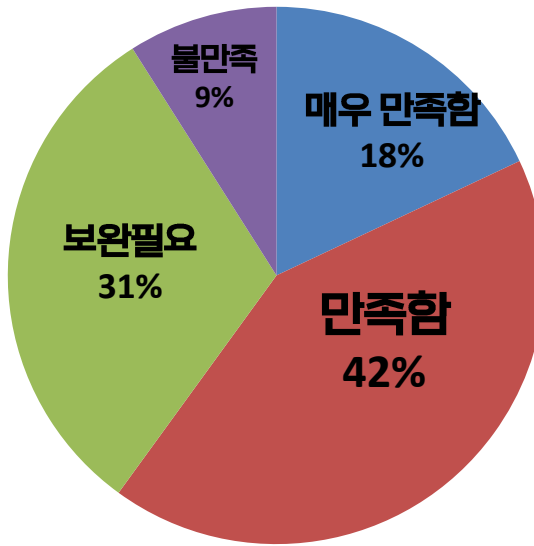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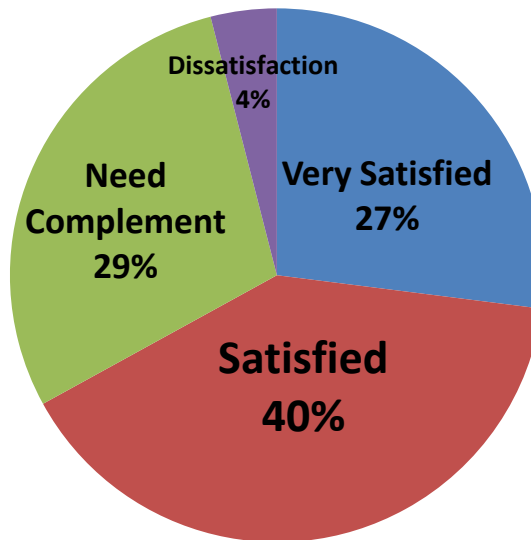
* 세대별 통합예배 준비위원회 구성 당회원 대표, 안주집사 대표, 남.녀 선교회 대표, 중.고등부 대표, 주일학교 대표, 중.고등부 교사 대표, 주일학교 교사 대표, 교육부 전도사
*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예배의 중요성에 대한 담임목사 주제설교 (3 주)
*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중.고등부(주일학교)자체 예배시 담당 목회자(설교자)에 의한 설교 (3 주)
* 세대 통합예배 준비를 위해 세대별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 기획 및 준비 (매달 1 번)
* 세대별 통합예배 이해를 위한 세미나 개최 (분기별 1 회)
* 분기별 1 회 및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신년예배) 세대 통합예배 실시.

(3) 실행 결과

세대별 통합 예배를 실행한 결과는 두 세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물론 언어의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번거로움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의 예배가 반드시 살아야 한다는 주제 하에서 담임 목사님의 지속적인 설교와 세미나개최 및 교회 홍보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① 1.2 세대들의 세대별 통합예배에 대한 평가

1세대들의 평가
불만족
9%
매우 만족함
18%
보완필요
31%
만족함
42%

2 세대들의 평가
Dissatisfaction
4%
Need
Complement
29%
Very Satisfied
27%
Satisfied
40%

2. 교회와 가족 상호간 프로그램을 통한 세대간의 만남

1) 세대별 통합 가족수련회 개최

성은 장로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해서 지난 12 년간 가장 안타까왔던 사실은 세대간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건강한 이민 가정을 만들어 주는 일에 교회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한 이민 가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1 세대와 2 세대가 힘을 합칠 때에만 성은 장로교회 더 나아가 이민교회의 미래는 밝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고 전 세대가 참여하는 성은 장로교회 가족 수련회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

성은 장로교회 가족 수련회(가족 캠프) 프로젝트의 취지는 첫째로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1 세대 2 세대 모두가 드리는 참다운 예배를 통해 모두가 성은 장로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임임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또한 성은 장로교회 가족 수련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공예배가 할 수 없는 다양한 의식[400]을 시도함으로 예배를 통한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했다. 이와같은 세대간의 다양한 예배의 경험은 2 세대 들로 하여금 1 세대 교회에 대한 수직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여러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둘째는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간의 깊은 신뢰 관계의 형성이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는 열매는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1 세들은 지난 수 십년간 2 세들을 미래를 위해 희생하며 돌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 세대들의 마음이 2 세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련회 기간 동안 아름다운 자연과 여유로운 시간속에서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이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바쁜 이민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상호간 잃어버린 가족애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통해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400] 시간과 조건에 따라서 아침(명상의 시간) 및 저녁(감사의 예배), 밤(프로그램 예배) 마다 그 특성에 맞는 예배순서와 진행을 계획할 수 있으며 또는 예배장소에 따라 산상예배, 물가예배, 광야예배 등으로 계획할 수 있으며 예배 형식에 따라 촛불예배, 홀로예배, 소그룹 예배 등으로 계획할 수도 있다.

자녀들의 몸과 몸이 부딪히고 감정이 교류되는 경험을 통해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만남의 장을 제공함으로 서로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세대간의 공감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통해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성은 장로교회 공동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믿음의 성숙된 모습은 개인의 수준을 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 훈련은 교회 안에서 보다는 교회 밖에서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수련회 기간을 통해 1 세대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2 세대들은 자기 중심적이로 이기적인 생활로부터 벗어나 다른 사람 특히 1 세대들을 이해하게 됨으로 공동체의 중요성과 성은 장로교회의 공동체로서 소속된 존재로서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게 하여 공동체를 통한 신앙생활의 훈련과 이를 통한 세대간의 화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설명한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성은 장로교회 가족 수련회의 몇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았다.

1.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가정과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의존된 관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즉 협동의 참의미를 경험하게 된다.
2. 이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3. 세대간의 다름을 초월하여 대화와 만남을 통해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4. 이민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온 세대가 함께 해결책을 찾게 된다.
5. 다른 가족의 삶의 방식을 통해 나타난 건전한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
6. 공동생활의 규범을 배우며, 더불어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7. 영.심성 훈련과 육체의 건강을 위한 기회가 된다

(1) 세대별 통합 가족 수련회를 위한 기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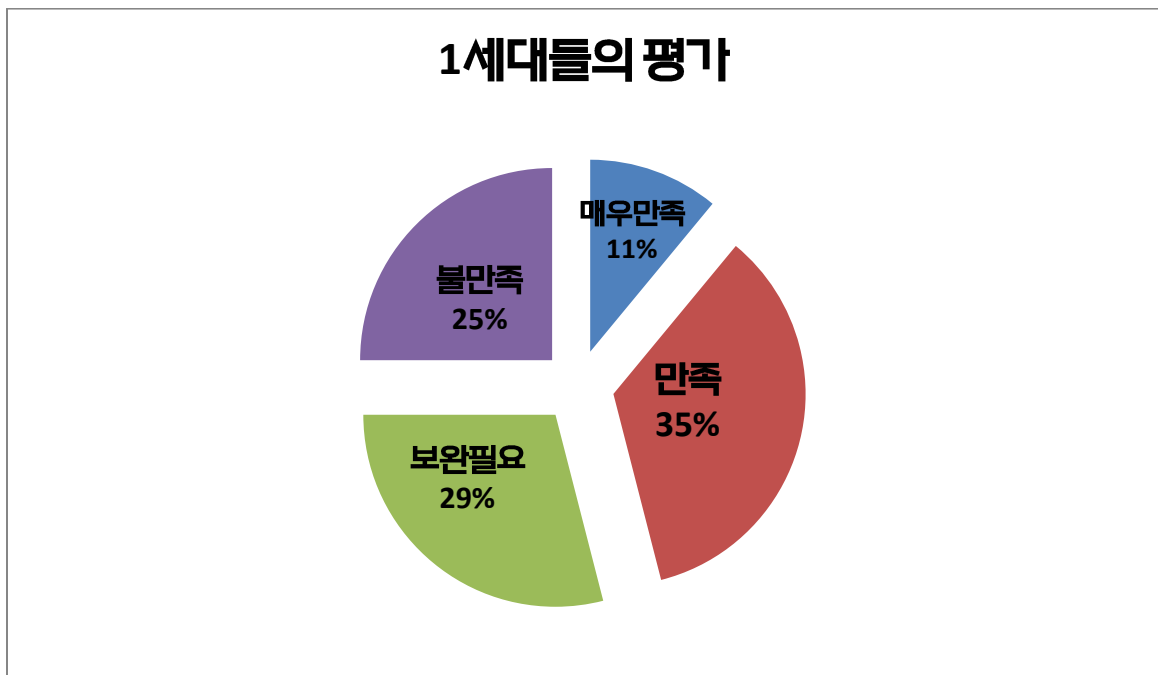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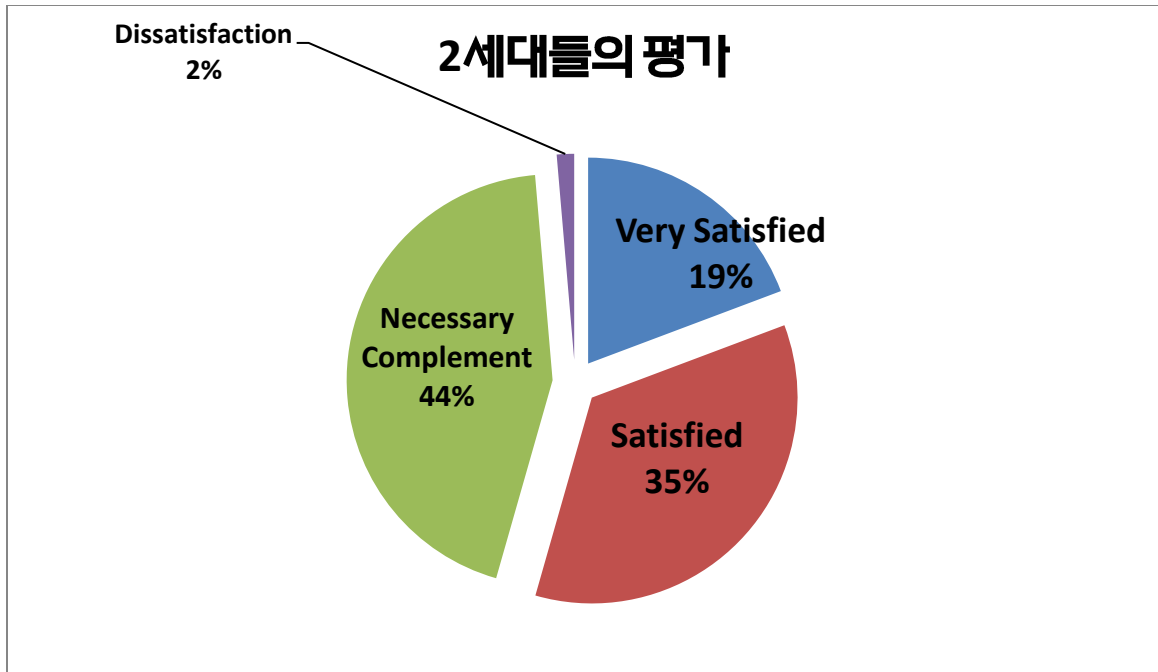
지끔까지 2 세대 자녀들은 어른들만을 위한 수련회로부터 완전히 배제 되어왔다. 따라서 가족 수련회라는 본연의 이름에 걸맞는 수련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교회의 최고 연령에서 부터 유치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만드는 진정한 세대별 통합 가족 수련회를 만들고 돕기 위한 기구구성을 기획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가족 수련회 프로젝트를 실행하였다.

(2) 실행 사항

* 세대별 통합 가족 수련회 준비위원회 구성 -당회원 대표, 안주집사 대표, 남.녀 선교회 대표, 중.고등부 대표, 주일학교 대표, 중.고등부 교사 대표, 주일학교 교사 대표, 교육부 전도사
* 가족 수련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모임 (4 월부터 매주 모임)
* 가족 수련회 실시 (2010 년 5 월 29-30 일)
* 장소: Libenzel Christian Retreat Center

(3) 실행 결과

세대별 통합 가족수련회를 실행한 결과는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 임에도 불구하고 두 세대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각 세대에서 평가한 결과는 아래 도표와 같다.

1.2 세대 모두 처음 시행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열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위에 도표가 말해주는 것 처럼 1 세대들은 지금껏 자기들 위주로 해오던 행사에서 세대별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바뀌게 됨에 따라 경험하게되는 언어적 불편함과 행사 진행상의 혼선과 미숙한 진행으로 인해 차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상당해 비중있게 조사 되었다.

반면 2 세대들은 그 동안 1 세대들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가족 수련회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 세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행사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1 세대들에 비해 불만족 스럽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적게 조사된 반면 내년 행사 시에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조사된 것이 이례적이다.

3. 2 세대들을 지원하고 섬김을 통한 세대간의 만남

1) 한글학교 지원

모든 대화와 만남의 기초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다시말하면 대화와 전달이 어떻게 진행 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만남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 의미없는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 세대와 2 세대간의 참 만남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1 세대들이 2 세대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지도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2 세대드로 하여금 1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한글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2 세대들이 1 세대들과 대화와 만남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Project 의 주요 목적이었다. 이와같은 취지에서 한글학교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한글학교 실시 : 한글학교 교사모집 및 훈련		
* 한글학교 실시		2010 년 1 월 -
* 한글학교 커리큘럼		
1 단계	초급 1	기초적인 문장, 간단한 표현
2 단계	초급 2	기초적인 단어 및 문장, 다양한 표현
3 단계	중급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어 등으로 일상적인 대화 가능 수준
4 단계	중급 2	구체적이고 폭 넓은 의사소통 가능 수준

2) 2 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연합 수련회 (KPC NE SUMMER RETREAT) 지원

해마다 성은 장로교회는 1 세대 교인들의 신앙 성숙과 발전을 위해 춘계 그리고 추계 두 번의 부흥성회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 세대 자녀들의 리더십을 위한 수련회는 자체적으로 여름에 한번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가 전부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나고 자라가는 2 세대들의 Leadership 발전을 위해서 성은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여름 청소년 연합수련회(Mission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Conference) 를 개최하였다.

특별히 이번 청소년 연합 수련회는 미국장로교 동북대회(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Northest East) 산하 미국장로교 교회들을 대상으로 연합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큰 교회에서부터 작은 교회로서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없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12 개 교회 150 명이 참가하는 수련회로 진행되었다. 연합수련회 라는 특성상 처음 행사를 주최하는 교회로서 제 1 회 Fallinmg in Love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Conference 행사는 성은 장로교회에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은 장로교회는 행사를 주관하는 호스트 교회로서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연구자가 행사 코디네이터가 되어 수련회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도움을 제공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단순히 2 세대들의 Leadership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 세대와 2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과 관심 속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행사에 참여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곳을 거쳐간 대학생 리더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또한 이러한 대학생 리더들은 역시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이곳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이 사회에 필요한 Leadership 을 발휘하고 있는 1.2 세대 Professional Mentors 들에 의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두번재로 한 교회의 일방적인 행사 기회가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 수련회의 특성상 각 교회의 지도자와 학생 리더들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준비함으로 연합 수련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세번째로 행사가 성은 장로교회가 중심이 된 미국 장로교 동북대회의 연합 수련회로 진행됨에 따라 개 교회 수련회에서는 할 수 없는 좋은 초빙 강사와 찬양팀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 개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과 질적 향상 그리고 학생들의 리더십 배양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교회 중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연합 수련회의 취지에 맞게 비록 교회와 교단은 다르지만 모두가 Korean-American Christian 으로서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여 장차 이곳 이민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차세대 리더로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곳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다.

* 청소년 겨울 연합 수련회 준비위원회 구성 (11 개교회)	
김성진 목사	뉴저지 성은 장로교회
박대웅 목사	뉴저지 소망 장로교회
조나서 전도사	헤켄섹 교회
박이삭 목사	엘리자베스 교회
이창우 목사	주 소망 장로교회
심로버트 전도사	뉴 가든 교회
김수연 전도사	뉴욕 동양제일 교회
이원삼 집사	로체스터 연합 장로교회
조준형 목사	롱아이슬랜드 장로교회
장요섭 전도사	은평개혁 장로교회
안헬렌 전도사	퀸즈 중앙 장로교회
*연합 수련회 준비모임 (5 회)	
* 장소: 뉴저지 크리스챤 아카데미	
* 일시: 2010 년 7 월 29-30 일 (1 박 2 일).	

.

Ⅶ. 과제 평가(Project Evaluation)

1. 시행과정

1) 의식의 문제

성은 장로교회는 성도들 개 개인의 신앙의 수준, 배경, 학력, 경제수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5 년간 이민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하며, 기쁘고 슬픈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민 자로서의 외로움과 고단함을 함께 나누어온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지난 1 년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보람과 한계점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1 세대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문제 해결노력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적인 성은 장로교회는 구성원들 간 깊고 끈끈한 정으로 묶여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 여년 간 모든 교회 회중들이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민자로서의 힘든 삶을 함께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성도들을 강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인들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처음 교회를 창립한 몇 몇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와 함께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그 관계의 친밀성은 그 어느 단체와 공동체 보다 더 견고하고 튼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이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타적 경향성은 무 의식적으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2 세대들 에게까지 확대되게 되었고 지난 12 년간 2 세대들은 성은 장로교회의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 왔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처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설득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까지 1 세대들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2 세대들과 함께 공유하며 나누는 일은 이론적으로 가능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성은 장로교회 교회와 교인들의 의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연구를 위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의 의식 변화를 위해서라도 평가와 연구를 거쳐 계속 진행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2) 부족한 만남의 기회 해결을 위한 노력

이민자의 삶은 본질적으로 고단한 삶이다. 말과 문화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이곳에서 이방인과 주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인내와 고통이 수반되는 삶의 과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 세대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전혀 새로운 이곳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그들에게 상처로 남겨지게 되었고 마음을 열고 2 세대들과 만나고 포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 세대들은 자기만의 문화와 공동체에 더욱 더 집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본 연구자가 처음 성은 장로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시작할 무렵에는 2 세대들이 예배하는 공간이 1 세대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로부터 1 마일 이상 떨어져 있었다. 따라서 1 세대들이 자기들만의 예배와 행사를 통해 이민자로서의 애환을 달래고 있는 동안 2 세대들은 이러한 1 세대들로부터 배제된 채 한국의 문화와 이곳 주류 사회의 문화 어느 쪽에서 속할 수 없는 주변인 중의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었다.

진정한 이민 교회의 신앙 공동체는 1 세대들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1 세대들의 양보와 희생 그리고 2 세대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양 세대들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서 생길 수 있고 그 시작은 세대간의 만남으로 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1 세대들과 2 세대들간의 인격적 도덕적 만남 뿐만 아니라 공동예배를 통한 세대간의 만남은 성은 장로교회의 신앙공동체 형성과 말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1 세대 2 세대 모두 한 형제 자매라는 신앙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은 말과 언어가 다른 두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보다 진실한 예배를 위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두 세대가 함께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인만큼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도 두 세대 모두 자기의

언어로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각자 예배를 드리는 것 만큼 편안하지 않은 상황들을 두 세대 모두 희생과 관용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자세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한 우선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은기간 보다 더 철저한 예배의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겠고 더 나아가 세대간의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통해 상대방이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겠다고 생각했다.

(3) 섬김이 아닌 권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성은 장로교회에서 2 세대들이 1 세대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1 세대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위의 문제이다. 1 세대들은 이민 사회의 고단함과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가정과 교회 내에서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과 행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고 자란 2 세대 들에게 1 세대들의 이와같은 경직된 구조는 적응하기 힘든 체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1 세대들의 신앙적 말과 행동들이 교회를 떠난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적용없이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이중 인격적인 모습으로 2 세대 들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자가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봉사할 때 아이들에게 종종 들은 이야기는 자기의 부모들이 너무나 이중 인격자이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학생들로부터 많이 들었다. 이와같은 상황 속에서 1 세대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목회 패러다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수직적이고 경직적이며 외형 중심적인 신앙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섬김의 목회로의 전환을 위해 힘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 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고 그들을 섬기고자 시작한 한글학교와 청소년 겨울 연합 수련회 프로젝트는 취지는 좋았지만 운영미숙과 자원자 부족 그리고 부족한 교사 수급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 교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

1) 의식변화 실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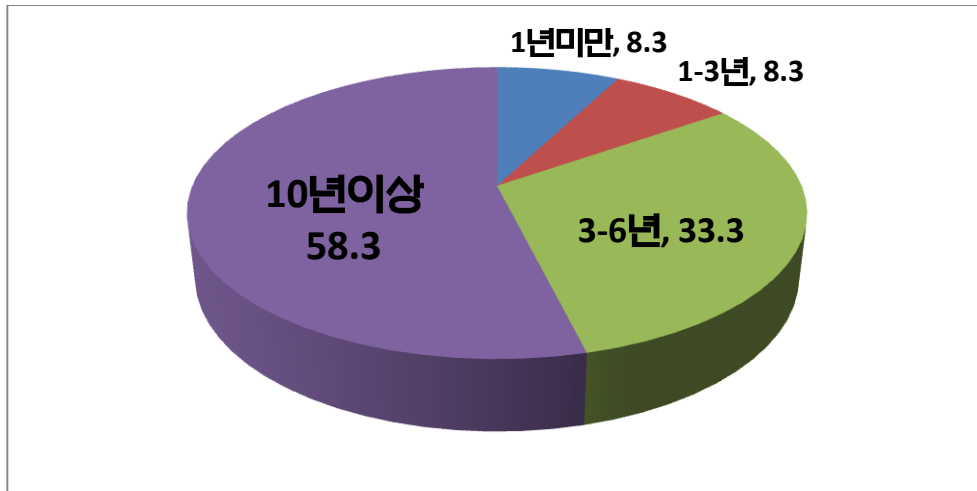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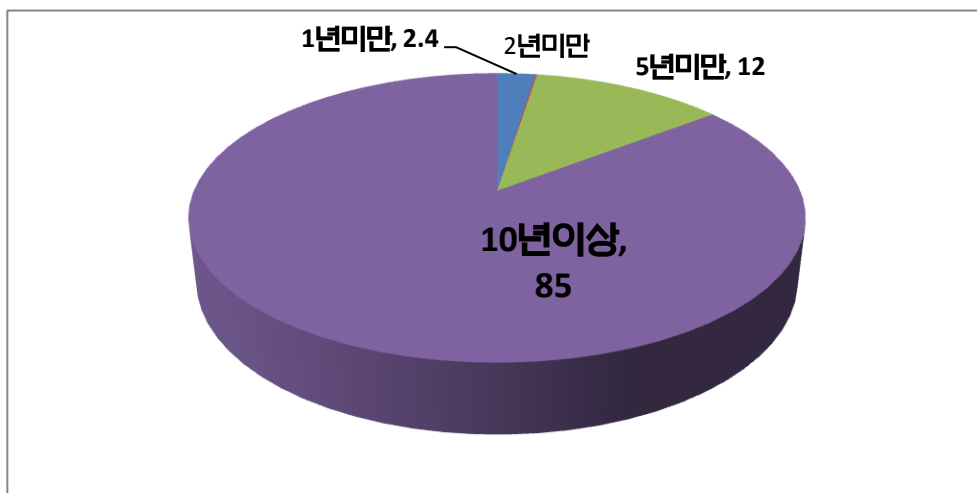
(1) 2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1 세대 부모들 의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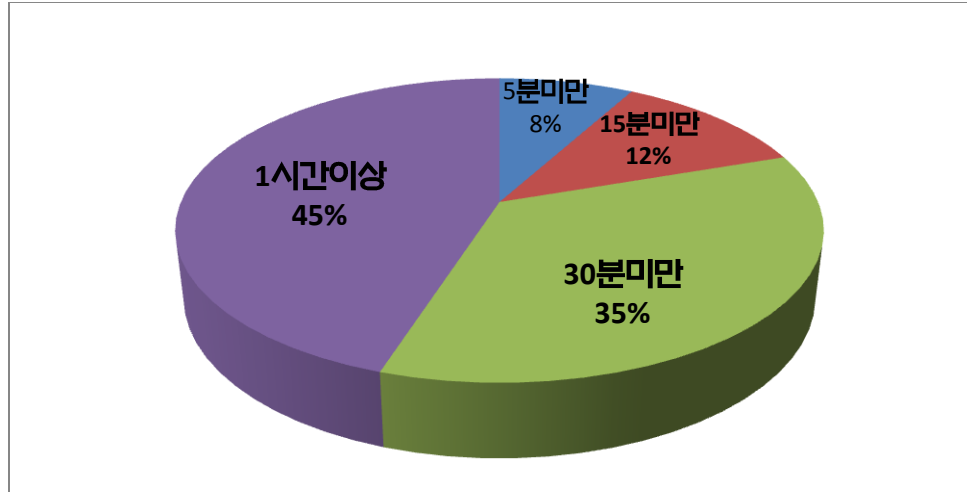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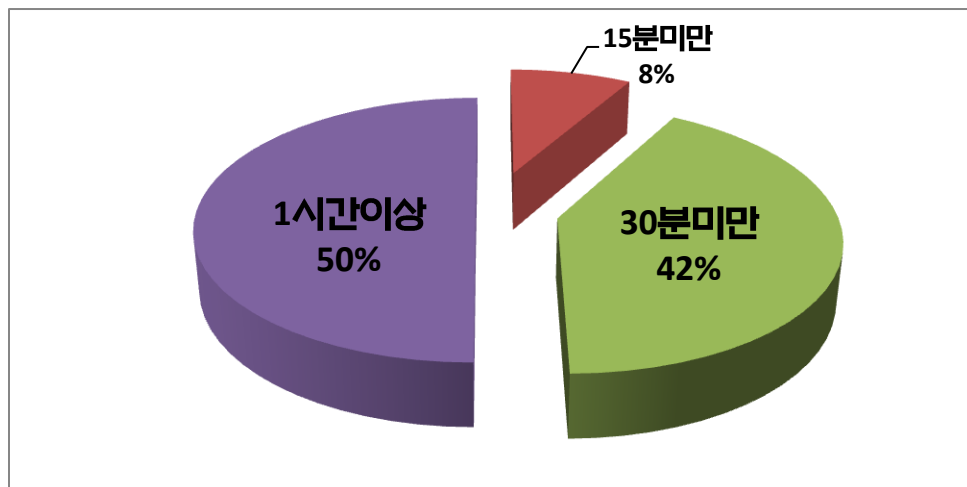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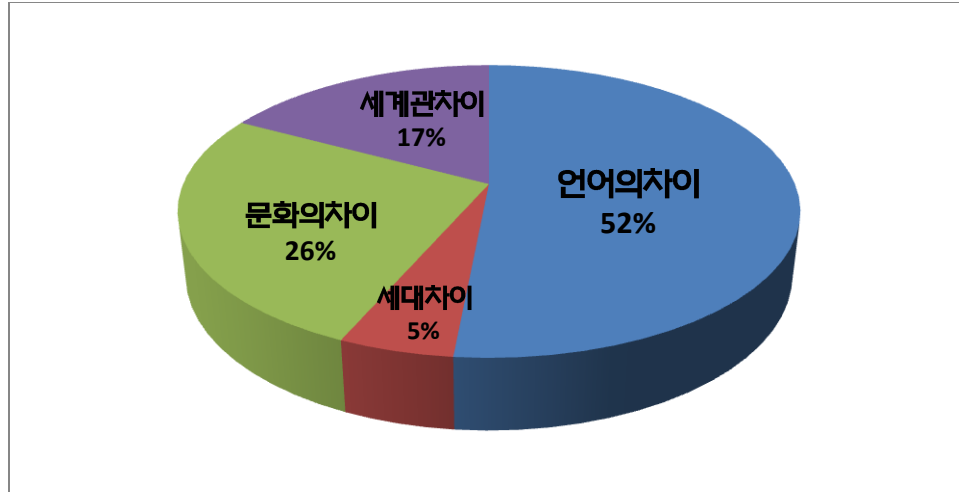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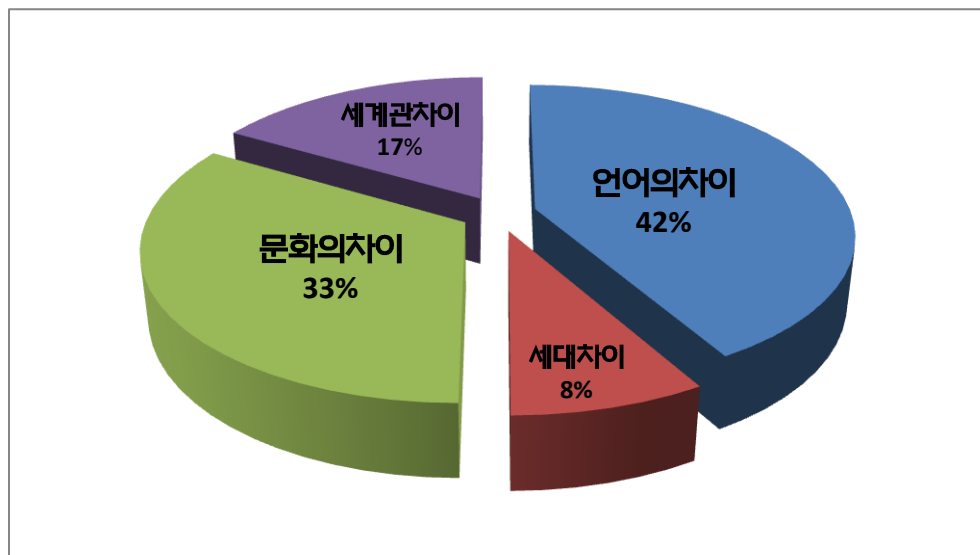
본 프로젝트는 성은 장로교회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먼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실천과 구조적인 교회변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은 장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까지 2 세대 자녀를 가지고 있는 1 세대 부모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2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이것을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세대간의 대화와 만남을 통한 관계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다시 설문조사를 하여 변화된 모습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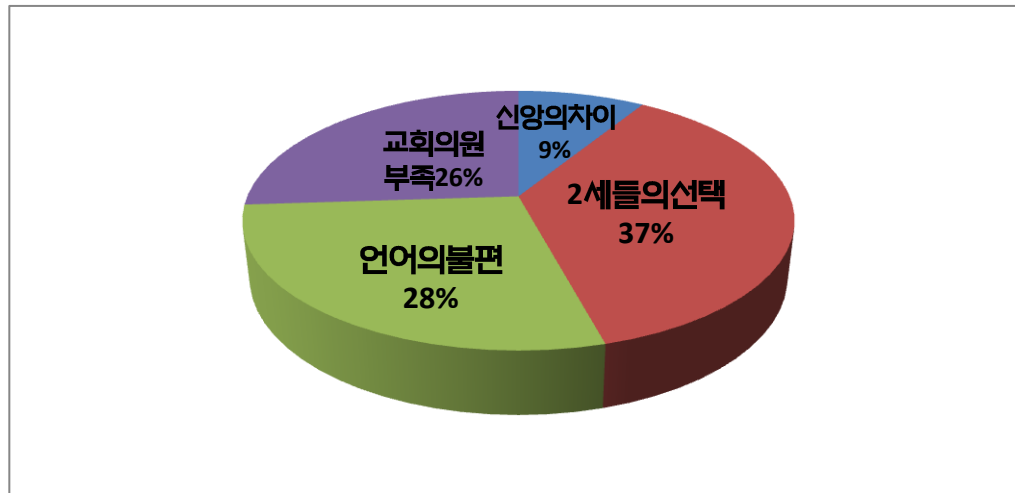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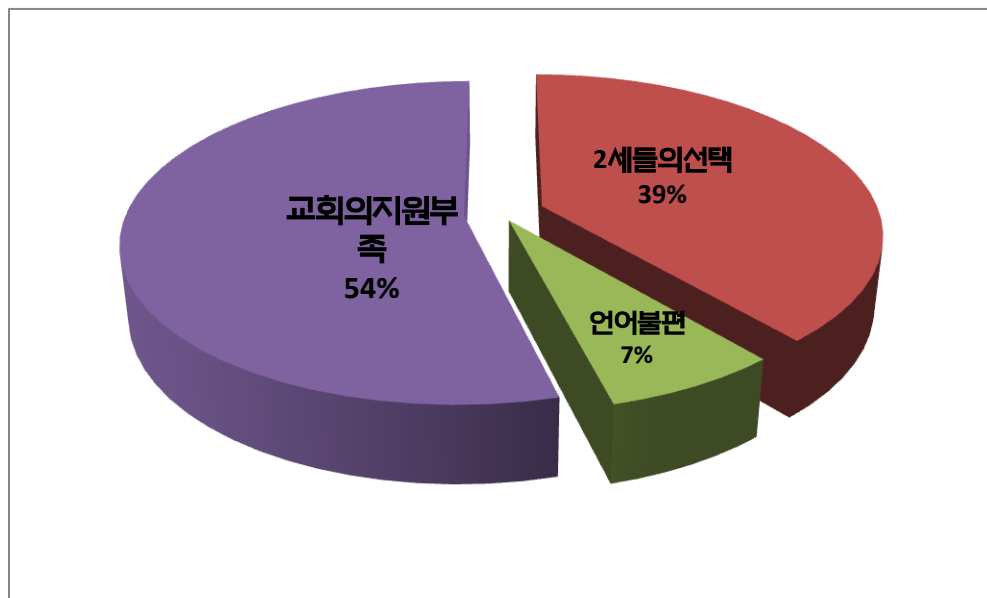
1 차 설문조사는 세대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2 세대 자녀들에 대한 1 세대 성은 장로교회 부모들과 현재 본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선한목자 장로교회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차 설문조사에 응답해준 분들은 총 41 명이었는데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각 항목에서 먼저 표시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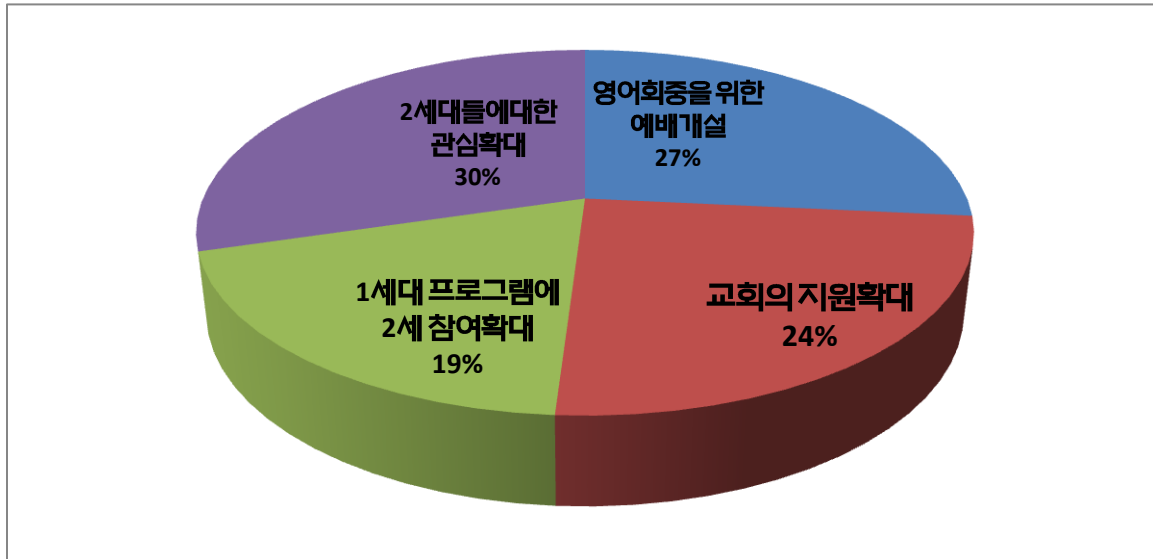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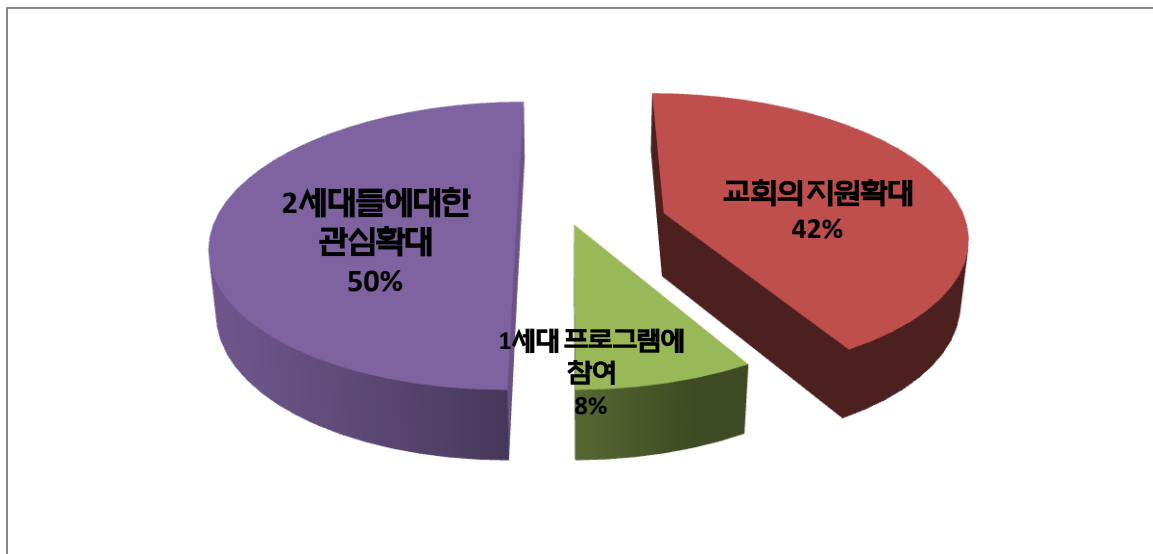
그리고 세대간의 관계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에는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러나 성은 장로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 소규모의 교회이며 다시 2 세대 자녀를 둔 부모들의 수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응답자의 수는 14 명이었으며 그들이 응답한 내용은 뒤에 분속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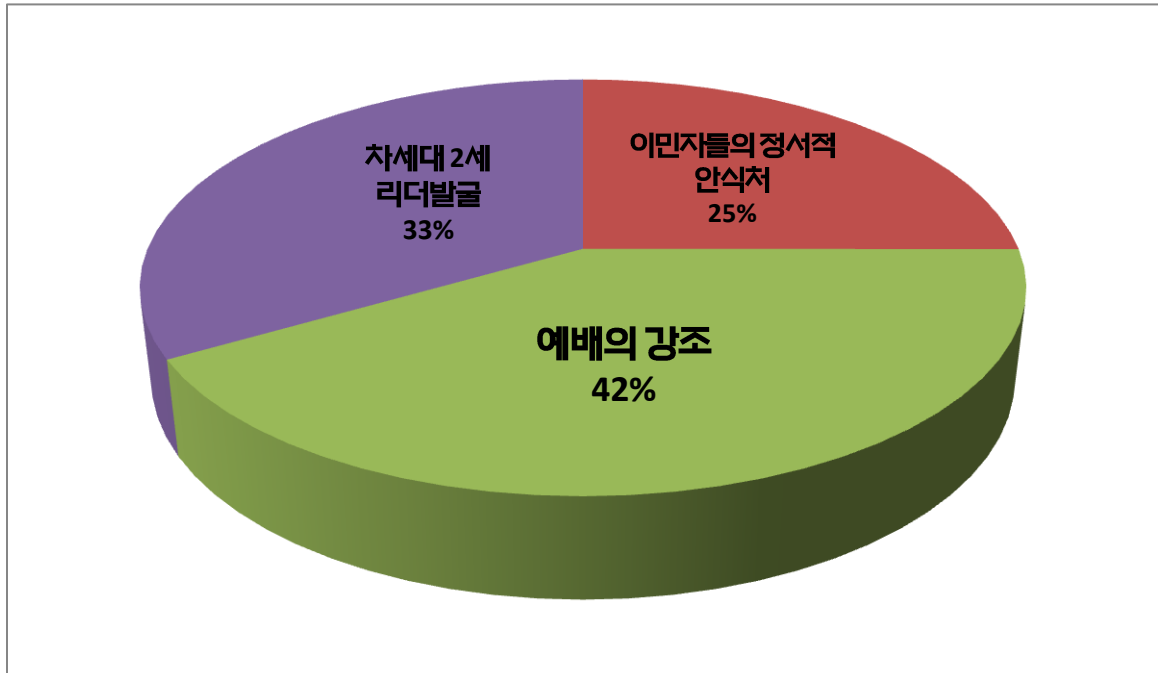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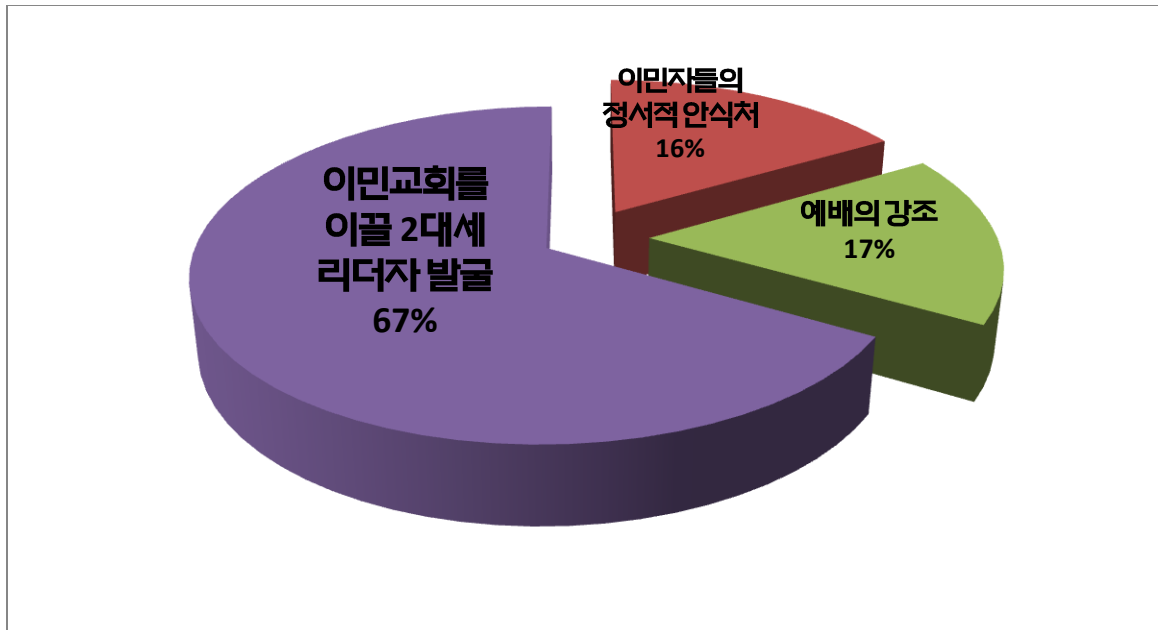
① 이민 생활의 기간

설문 조사에 응답하여준 이민 생활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1 차 설문 조사에 응해준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온지 5 년 이상이거나 그 이상인 분들이었다. 이민 생활에 이제는 어느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 분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 설문조사에 응해준 분들의 이민 생활의 기간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이민의 생활이 오래된 만큼 교회를 다닌 기간도 상대적으로 오래된 분들이 많았다. 참고적으로 설문에 응대준 분들의 교회생활 기간을 알아보았다.

② 2세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바쁜 이민의 생활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의외로 많은 1 세대 부모들이 자녀들과 대화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녀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을 대화의 시간으로 포함했는지 또는 진지한 대화가 아닌 것도 대화로 포함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분석이었다고 생각한다.

관계개선 프로그램에 참가 후에 참가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이것을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 분 이상 2 세대 자녀들과 대화한다는 응답수가 1 차 설문조사 때보다 조금 더 늘어났는데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것 이라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③ 세대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서

이제 세대간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행한 후에 나타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프로그램 진행 전 세대간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큰 원인으로 조사된 언어의 차이가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소폭으로 줄어든반면 문화의 차이로 인한 영향이라는 의견이 상당부분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④ 2 세들이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 응답자들의 상당수가 2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원인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과 언어의 불편함 그리고 교회의 지원부족을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변해 주었다. 그리고 의외적으로 세대간 신앙의 차이 때문이라는 응답도 6 명이나 해주었다.

세대간 관계개선 프로젝트를 마친 분들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주었다. 특이한 점은 언어 불편이라는 점이 많이 줄어들고 또한 2 세들의 선택이라는 것이 소폭 줄어든 반면 교회의 지원 부족이라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점이다.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의 지원확대의 필요성이 많이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⑤ Silence Exodu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교회가 해야할 일에 대하여

2 세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민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설문자들은 대체로 고른 대답을 해주었다. 한 교회에서 진행된 설문조사가 아닌 서로 다른 배경과 상황을 가진 교회와 그 곳에 소속된 설문자들을 통해 얻어낸 결과 때문이라 생각한다.

세대간 관계개선 프로젝트를 실행한 이루 두드러진 변화는 2 세대들을 위한 관심의 확대와 또한 교회의 지원확대이다.

⑥ 이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이민교회는 지난 수 십년 간 이민자들을 위해서 한국 전통문화의 보전, 이민자들의 정서적 안식처, 예배의 강조 그리고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2 세대 리더자 발굴들 여러가지 봉사를 해오고 있다. 이런 다양한 이민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 어떠한 것이 가장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항인지를 설문자들에게 물어보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민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요소에 대해서 세대간 관계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이전에 설문자들은 1 세대 중심의 예배에 그 촛점을 맞추어 응답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1 세대 중심의 예배의 강조가 많이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2 세대 리더자 발굴의 비율이 많이 증가하게 된 점이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설교와 세미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 교인들의 2 세들을 향한 의식 개선이 가지고 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 세대들을 향한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2 세대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기회들을 통해 공통의 공감대를 만들고 이를 통한 관계개선을 통해 미래 이민 교회를 이끌어갈 2 세대 리더들을 만드는 일에 성은 장로교회는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Lowis Joseph Sherrill 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 교육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변화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실존적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도하고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401] 이 말은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참된 변화의 시작은 반드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따라서 나와 다른 상대방과 진정한 관계 맺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가 추구하는 진정한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먼저 이곳의 복합문화 속에서 왜 두 세대간에 대화의 단절과 이에 따른 복잡한 갈등의 구조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또한 이것의 해결을 위한 신학적, 성경적 해석과 더불어 변화의 시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식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다. 왜냐하면 1 세대와 2 세대 간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없이 무조건 의식변화를 위한 실행들을 실천에 옮긴다면 모든 세대가 원하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가치는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402]

---

[401] 최임선, *신앙의 발달과정* (서울: 종로서적, 1989), 3

[402] Ibid.

또한 이와같은 목적과 함께 1 세대와 2 세대들에게 의식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2 세대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번씩 세대간의 화합을 위한 설교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작과 더불어 세대간 함께 드리는 예배와 프로그램 그리고 1 세대들의 2 세대들을 섬기고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들을 통해 그 동안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생긴 불신과 원망의 골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1 세대 중심의 프로그램과 권위 중심의 행정에서 점차로 2 세대들을 포용하고 이해하려는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을 놓았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싶다.

2) 실천적 변화

앞서 의식의 변화에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통한 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실천적 변화에서는 이러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 두 세대가 신앙 및 Korean-American 공동체로서의 진정한 공동체 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방안들을 생각해 보았다.

개인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정체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과거의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발전하게 된다.[403] 따라서 두 세대가 좋은 관계를 통해 진정한 신앙 및 민족 공동체로서 Korean-American 만의 자랑스러운 공동체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이곳에 한인 이민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또한 어떠한 역사적 상황과 다이내믹한 과정들 속에서 왜 이렇게 세대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었는지를 고찰해 봄으로 그것에 대한 서로간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실천 과제로서 Korean-American 의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이곳 복합 문화의 상황에 맞게 변화시켜 교회의 축제로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축제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세대간의 신뢰와 어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민족 공동체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세대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문화든지 다른 문화의 영향 속에서는 단순동화, 실망, 저항, 그리고 내면화의 과정을 거쳐 결국에는 자신의 문화와

[403] Jack L. Seymour. Donald E. Miller, *Contemporary approaches Christian Education*, 맹용길, 임영금 역 (서울: 한국 장로교 출판사, 1997), 80.

상대방의 문화를 통한 재 통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성은 장로교회도 이제는 1 세대와 2 세대 양쪽의 문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모습들을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재 통합의 과정을 통해 교회 안과 밖의 말과 문화가 다른 이웃과 문화에 대하여 보다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회 안에서 1 세대들과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세계관이 다른 2 세대들과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양보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공감대를 통해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민족적 공동체로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공동체 역시 '만남'과 '대화' 그리고 이를 통한 관계를 통해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데[404]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회복과 더불어 수평적인 세대간의 관계 회복을 통한 진정한 코이노니아(Koinonia)의 회복을 통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405] 지금껏 성은 장로교회의 예배와 구조는 소수의 몇 엘리트들이 다수의 성도들을 치리하는 형태로 이러한 전 근대적인 구조 속에서는 세대간의 화합과 이를 통한 공동체의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소수가 다수를 치리하는 방식에서 서서히 모두가 평등하게 초대 교회처럼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더불어 성은 교회의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1 세대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세대가 함께하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될 수 있기 위하여 지금껏 1 세대들이 누려왔던 편안함과 안락함을 2 세대들을 위해 약간을 포기하려는 구조적인 변화 역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실천적인 노력들을 통해 여전히 아쉬움은 남지만 성은 장로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1 세대들만을 위한 수동적이고 또한 배타적인 예배가 아닌 전세대를 아우르는 평등적 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동시에 이러한 노력을 통해 얻게 될 세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의 신앙적 공동체 형성을 통해 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보다 좋은 관계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관계로 성은 장로교회 안에있는 모든 세대들이 함께 참 만남과 대화를 통해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회복되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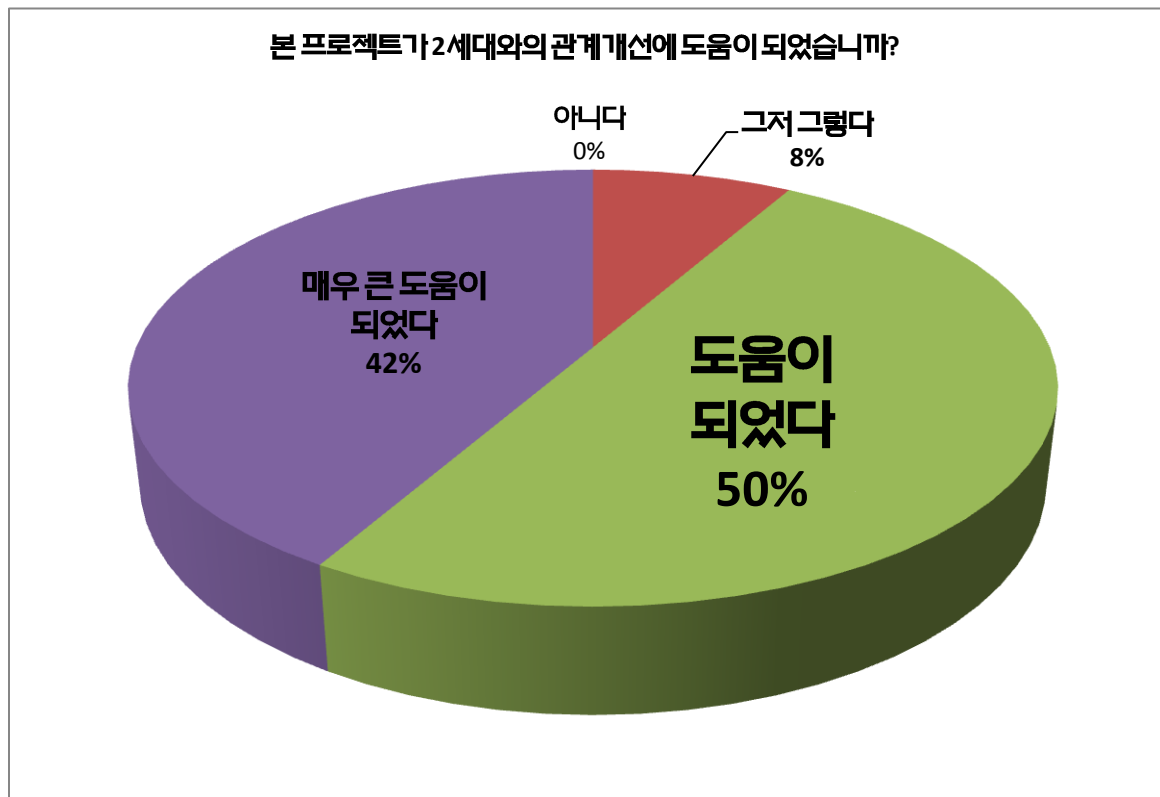
[404] 은준관, *교사의 교육신학* (서울: 종로서적, 1988), 47.

[405] Ibid.

3) 구조적 변화

1 세대들이 가지는 2 세대를 향한 배타성의 극복을 통해 신앙적 그리고 Korean-American 공동체의 균형 잡힌 수평적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직은 미약하지만 성은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배타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2 세대들을 포용하는 수용적 공동체로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고 싶다.

3. 프로젝트 실행 결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과연 이것이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의 의식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래서 본 연구가 추구하는 배타적 공동체에서 수용적 공동체로서의 관계변화를 통한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많은 염려가 되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미숙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오랜 시간동안 익숙함에서 오는 매너리즘에서 오는 벽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다행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이 수렴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 결과가 본 프로그램이 성공했다는 결과를 주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성은 장로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2 세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의식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한 사람의 성향과 그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난 25 년간의 성은 장로교회가 교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으로 각 사람에게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이것은 한번의 프로젝트로 결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변화를 통한 성은 장로교회의 실천적 그리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은 장로교회는 2 세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이것을 수용하고 적용하기 위한 보다 분명한 실천 방안들과 프로그램들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과 연계된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세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차세대 이민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들을 배출하기 위해 교회의 비전과 노력들이 올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은 장로교회는 성도 각 사람의 의식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1 세대 교인들의 노력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2 세대들을 생각하며 스스로 2 세대들을 대하는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쌓여갈때 본 연구가 추구하는 수용적 공동체 더 나아가 모든 세대가 함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Ⅷ. Site Team Evaluation

1. Site Team 운영과 활동

Site Team 의 구성은 주로 성은 장로교회에서 2 세대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를 제외한 연구반 명단은 아래 표와 같다.

Site Team 들은 성은 장로교회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력이나 성은 장로교회에서의 직분과 역할 보다는 본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이 연구를 통해 2 세대들을 보다 더 이해하기 원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성은 장로교회에서 직 간접적으로 2 세대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예배 위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김승섭 집사는 현재 NJ 의 Rampo College Assistant Professor of Biochemistery 이며, 이창성 백은이 집사는 신학생으로 교사로 봉사중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성숙 집사는 중학교때 이곳으로 이민을 온 1.5 세대 교사로서 누구보다 2 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다.

연구반원	성별	연령	교회직분	전문분야
김승섭	남	44	집사	교수
이창성	남	44	집사	교사
임소연	여	41	집사	교사
김성숙	여	41	집사	교사

1) 분석 및 평가

네 집사들 모두 교육부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와는 개인적으로 깊은 신뢰의 관계를 유지해 왔고 본 연구자를 도와 논문을 완성하는데 큰 힘과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2 세대들을 향한 사랑과 열린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의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의 진행은 본 연구자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동시에 도전이 되었다.

매주 교회의 모든 예배 및 교육 활동 후에 Site Team 미팅을 가지고 본 연구자가 연구하는 프로젝트들이 성은 장로교회에서 잘 적용되며 또한 모든 프로그램 실행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Site Team 멤버들과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행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먼저 의식의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매달 1 번씩 1 세대들과의 관계 개선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통해 2 세대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또한 정기적인 학부모.교사 모임을 가짐으로 1 세대들과 2 세대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의식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혀보고자 노력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 월달 가족 수련회 기간중에 있었던 세미나를 통해 두 세대가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음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두번째 실천적 변화에 대한 노력으로 가족 수련회, Falling in Love 청소년 연합 수련회, 그리고 한글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별히 가족 수련회는 그 동안 가정에서 아무런 대화와 만남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 모두에게 참으로 가족의 소중함과 이민 가정으로서 건강한 가족의 회복만이 결국 건강한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식과, 실천적 변화를 통한 교회내의 구조적 변화로서 가정 예배와 공동예배의 실시를 이야기할 수 있다. 미약하나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담임 목사님 이하 당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1 세대 성도들의 마음이 2 세대들을 향하여 서서히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말과 언어가 다른 1 세대들과 2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이하 당회원들의 배려와 성도들의 협조로 절기별 특별 예배를 2 세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다. 공동예배 그리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느낀 점은 기독교의 절기 속에 스며들어온 아름다운 한국 기독교의 전통을 예배를 통해 2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1 세대들 역시 2 세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약간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민 교회를 책임져야할 2 세대들을 향해 좀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던 참으로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

Ⅸ. 목회자의 유능성 개발 (Personal Evaluation)

1. 예배 전문가

존 맥아더는 예배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의해 자기의 양심을 새롭게 일깨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각을 정화시키는 것이며,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게 하며,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406]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하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 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약의 성전 개념에서 온 부정확한 생각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성전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음을 볼 수 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선포 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성가대의 합창을 감상하며, 또한 찬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익숙해져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크신 감동을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다.[407] 그렇기에 진정한 예배란 우리만의 전통과 언어를 통한 편안함 만을 추구하는 예배, 그리고 그 안에서 촉발되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형식이나 마음에 거리낌 없이 온전한 순종과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이라는 생각한다.

이렇듯 예배 전문가로서 성은 장로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히 1 세대적인 외형이나 분위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통해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 세대와 2 세대 모두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모든 세대가 한 신앙과 한 믿음의 고백을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과 담임 목사님과 당회의 동의를 얻어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공동 예배를 절기별로 드릴 수 있었다. 그 결과 이러한 세대가 함께드리는 공동예배를 통해서 그 동안 언어와 문화 그리고 상호간의 불신과 편견으로 상처받고 단절되어온 성은

---

[406] John Mac Arthur, *The Ultimate Priority* (Chicago: Moody, 1983), 147.

[407] Erwin W. Lutzer, *Pastor to Pastor*,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사, 1990), 129-130.

교회내의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이 이 모든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정적인 조건들을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나아감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값진 시간들 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1 세대들이 드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2 세대 자녀들을 초대하는 과정을 통해 언어와 문화의 단절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 세대간의 보다 긴밀하고 견고한 신앙 공동체로서의 관계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배 전문가의 되기 위한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한 교회내의 세대간 화합과 하나됨의 분위기를 통해 성은 교회 역사에 맞는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희망하기는 세대간의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된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시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1 세대들의 아름다운 신앙과 영성을 2 세대 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노력으로 결실을 맺고 이러한 세대간의 견고하고 신뢰하는 공감대 속에서 1 세대들은 2 세대들이 이곳에서 그들이 해야 할 역할과 비전을 보고 지혜롭게 자라나 차세대 성은 장로교회를 이끌어가는 차세대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낮아지는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예배 전문가의 입장에서 가지게 되었다.

2. 상담 전문가

상담은 성장과 인간을 돕기 위한 한 방법으로 인격의 발달을 자극하려고 노력한다. 즉 개인들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 내적인 갈등, 또 불안정한 정서 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상실이나 실망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도한다. 또한 삶의 형태가 자멸적이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그외에 기독교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노력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난 후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408]. 이렇듯 상담 전문가로서 교회 안에서 목회관계를 통해 방생하는 여러가지 성도들 상호간의 문제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1 세대들의 지나친 문화 정체성의 고수에 따른 문화적 배타성과 이를 등해 언어와

[408] Gary R.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 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0), 19.

문화가 다른 2 세대 자녀들간에 발생하고 있는 세대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전문 상담자들과는 달리 목회 상담자는 대개의 경우 내담자(성도)의 개인 및 가정 그리고 집단생활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다른 일반 상담자들과는 달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며 종종 신뢰받는 친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로서 목회자는 기도와 성경읽기와 같은 영적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성장 분야의 전문가 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전문 상담자들과는 달리 하나님, 가치관, 죄, 용서, 죄책감, 및 기타 종교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다[409].

이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상담자로서 목회자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상담 기술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담 기술들 보다 더 상담 전무가이자 목회자로서 상담자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내어 놓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담자의 인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보다 성숙한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필요한 덕목들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온정이다. 상담자로서 목회자는 피 상담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관계없이 그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그에게 진실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성실함이다. 상담자는 거짓을 피하고 어떤 우월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개방적이며 동시에 진실한 사람이어야 한다.셋째로 감정이입이다. 상담자는 피 상담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내적 갈등과 상처는 무엇인지 상담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민감하고, 그것들을 이해하며, 이러한 이해를 말이나 행동을 통해 피 상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로 관심이다. 상담자는 눈의 접촉, 자세, 그리고 몸짓을 통하여 피 상담자에게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섯째 경청이다. 경청이란 수동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 이상이다. 여섯째 반응이다. 상담자는 들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말로 반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교육이다. 상담자는 피 상담자가 삶의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을 배우도록 지시와 예증과 지도에 의해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밀이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상담을 했다 하더라도 비밀을 지켜주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

[409] Gary R. Collins,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4), 18.

이러한 일곱가지의 상담 전무가로서의 덕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1 세대 부모들과 2 세대 자녀들간의 공감대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보다 원할한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하였다. 다행인 것은 1 세대 목회자로서 영어 중.고등부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세대간의 필요와 요구를 누구보다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현재 성은 장로교회의 현실 속에서 세대간의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양쪽 모든 세대들의 의견들을 수렴했고 관계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두 세대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두 세대간 보다 많은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를 위해 세대간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책을 구입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세대간의 화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성은 장로교회에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렇게 쌓여진 세대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전문가로서의 노력은 몇 개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실현되게 되었고 마침내 미비하지만 설문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3. 심방(가정사역) 전문가

심방의 성경적인 근거는 창세기 3 장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난 후 두려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장면에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신 성육신의 사건과, 많은 무리 중에 삭게오의 집에 친히 들어가셔서 유하시면서 삭게오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상담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심방이란 일상적인 용무로 사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심방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심방을 받는 사라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상담을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위로와 권면, 돌봄과 치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다[410].

이러한 심방의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그렇다면 심방 전무가로서 심방(특별히 세대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을 통하여 목회자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410] 이대희, *심방설교 이렇게 준비하라*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0), 14.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들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첫째로, 심방은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교회는 몸 된 공동체로서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공동체이다. 따라서 심방은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아울러 살아있는 유기체의 조직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작은 관계의 단절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영적 흐름을 막는 것처럼 심방은 이러한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한 소통을 이루어 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둘째로, 서로 지체간에 성령의 영적 교통을 이루는 일이다. 몸 된 교회는 심방을 통하여 서로 지체간에 인격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다. 몸의 피가 순환하듯이 심방을 통한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목자와 지체 그리고 지체들 상호간의 영적 교통을 이루어갈 수 있다. 셋째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유기적인 성장을 함께 이룬다. 심방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가능성 있는 부분은 더욱 격려하면서 서로 상호 연락하는 유기적인 신앙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방은 어려운 성도의 상황을 돌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이다. 심방을 하면서 목회자는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런 일을 통하여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제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온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민 사회는 그 특성상 부모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다. 이러한 사정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로 나아 지겠지만 처음 한국에서 이곳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정일수록 정착하기에도 벅찬 부모들이 가정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자녀들과의 보이지 않는 벽을 실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 환경의 특성상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직장과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곳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1 세대 부모들은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나왔어도 대부분의 한인들이 세탁소와 네일가게 같은 곳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곳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서 견고하게 유지되어온 아버지 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가 흔들리게 되었고 말과 문화가 다른 자녀들과의 갈등은 이민 가정을 더욱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민 가정의 현실 속에서 상담 전문가로서의 임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곳의 복합 문화속에서 이민을 통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심방을 실시하였고 개인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 있을 경우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교회 차원에서 그 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가정 방문을 통해 세대간에 느끼는 갈등이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1 세대 부모들과 그들의 자녀들 사이에 말할 수 없었던 단절의 이야기와 상황들을 서로간 자연스러운 자리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함으로 관계의 회복을 돕고 이들 가정들을 단순히 돕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의 장까지 이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X. 결론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를 통해 이민 교회안에 있는 세대간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본 연구자가 지난 12 년간 성은 장로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쉼 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었던 의문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2 세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지난해 6 월 부터는 영어 목회담당 목회자를 구하는 등 예전 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의문은 이민 교회의 목회적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은 채 단순히 영어 목회를 인도할 목회자 만을 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한인 이민 교회는 한국으로부터 이민을 온 사람들을 위한 교회이다. 그래서 말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국과 같은 정서와 느낌을 전달해야 하고 동시에 이민 생활에 지친 이민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어왔다. 또한 한국에서 가져온 배경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이민의 환경에서 주변인으로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이민 교회는 한인 1 세대 이민자들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민족적 그리고 신앙적인 중심지인 것이다.

그러나 한인 이민교회가 이러한 인종적 교회(Ethnic Church) 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면 갖추어 갈수록 교회의 내부 구조는 더욱 더 수직적, 경직적, 그리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1 세대들과는 말과 문화가 다른 2 세대들이 1 세대들의 교회 구조 속에서 소외당하고 결국에는 Silent Exodus 라는 이름으로 대거 교회를 떠나가는 현상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2 세대들을 인도할 영어 목회자를 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인 이민교회의 목회적 패러다임을 바꾸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지금까지 지배하고, 독점하며, 다스리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고, 초대 교회가 그렇게 하였던 것 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목회적 패러다임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섬기고 돌보는 교회가 되려면 섬김의 교회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예수는 자신을 섬기는 자로 선포하고 실천하셨다. 이러한 고백으로 모인 사람들은 섬김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구조를 형성한다. 이 섬김의 구조를 이루는 요소는 세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양성이다. 섬김의 교회 구조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구조이다. 한인 이민교회 신앙 공동체는 계급, 성, 인종, 문화적으로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절되고 나누어진다. 그러나 한인 이민교회가 배타적 공동체에서 수용적 만남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한인 이민 교회는 반드시 섬김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서 언어와 문화가 주는 차별의 장벽을 넘어 대화와 만남을 통해 서로 화합하는 섬김의 구조가 요구된다.

둘째는 동반자의 정신이다. 섬김의 교회 구조는 동반자를 발견하고 함께하는 일이다.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1 세대들 뿐만 아니라 2 세대들 역시 한인 이민교회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어 미래 한인 이민 교회의 모습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가 아니라 '우리' 라고 하는 공동체 성이다. 존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에 인간의 노력과 참여하는 동반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존 웨슬리의 신인 협동설은 교육 목회의 근간이 되는 참여와 협동적 배움의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1 세대들은 2 세들을 동반자로 섬김으로 이를 통해 상호 관계성을 배워야 하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연합을 2 세대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은 자기 희생이다. 섬김의 교회 구조는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이 따르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다. 한인 이민 교회 안에서 1 세대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은 참으로 대단하다. 외국 교회들 조차 한인 이민자들의 교회를 향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희생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모든 1 세대들의 긍정적인 모습들이 이제는 2 세대들을 향하여 보다 더 겸손하고 희생하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때 2 세대들 역시 1 세대들을 향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오해로 부터 벗어나 진심으로 그들의 모 교회인 한인 이민 교회로 되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한인 이민 교회는 이제 섬김의 영성을 위해 교회의 유형이 탈바꿈 되어야 한다. 섬김의 구조로서 한인 이민 교회의 이제 세대간의 화해와 연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된 양 세대가 이제는 시선을 밖으로 향하여 이곳 미국 땅에서 과거의 자신들과 같이 말과 언어와, 성과 피부색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섬김을 통한 선교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ppendices

세대 통합예배

예배 준비 (예배실 정돈) [O 표는 무릎꿇음/ △표는 일어섬]

찬 양 -------------------- <169 장, 176 장, 181 장> ------------------- 다 함 께

말씀풀이 1 ---------- <호 1:2-10, 시 82, 골 2:6-19, 눅 11:1-13> --------- 김정문 목사

예배 부름 --------------------------- <초대사> --------------------------- 사 례 자

○ 말씀 선포: 구약 ----------------- <호 1:2-10> ---------------------- 김승섭 집사

△ 시편 찬송 ----------------------- <초대사> --------------------------- 다 함 께

○ 말씀 선포: 서신서 --------------- <골 2:6-19> ---------------------- 임소연 집사

△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 함 께

△ 말씀 선포 ---------------------- <눅 11:1-13> ------------------------ 사 례 자

○ 찬 양 ------------------------- <주기도문> ------------------------ 다 함 께

○ 봉헌 찬송 ----------- <346 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 다 함 께

하나님전상서 --- 김주은 어린이

성도의 교제 -- 김성숙 집사

중보 기도 --- 다 함 께

성 찬 식 --- 다 함 께

주님의 기도 -- 다 함 께

말씀풀이 2 -----------------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 김정문 목사

응답 찬송 ------------------ <520 장, 나를 사랑하신 주> ------------------ 다 함 께

○ 파 송 사 -- 사 례 자

○ 마침찬송 ----------------- <59 장, 주 함께 하소서> -------------------- 다 함 께

성은 장로교회, 세대 통합예배 성찬식 예문

〈성찬식〉

주님의 기도 -- 다 함 께

[초대와 응답]

목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창 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처럼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회중: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처음 기원]

목사: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과 함께 저희의 생명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이웃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훼손하고 생명의 질서를 어겨서 한순과 불만과 고통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조화와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몸이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회중: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구원과 은총에 영광과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목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회중: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목사: 이제는 주님 닮은 성도로서 다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성령임재의 기원]

목사: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즙이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회중: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목사: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회중: 창조주 성령이시어, 오시옵소서.

[제정사]

목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선하다"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귀며 서로 심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자 받아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회중: 주님, 주의 몸을 따라 항상 사귐으로 응답하게 하소서.

목사: 또 식후에 잔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회중: 주님,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저희에게 흘러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분급]

[감사기도]

다같이: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부터 우리 성은교회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새사람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아이. 아멘.

성은 장로교회 가족 수련회 프로그램의 설계

1.주제 : 하나님 안에서 하나되는 우리 가정

참 만남과 대화를 통해 1 세대와 2 세대간의 관계개선을 위해 이민 가정들과 교회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겠는가에 촛점을 둔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말과 문화의 차이에도 세대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웃과 가정과의 사귐을 통해 열린 가족의 모습을 되찾는다.

2.프로그램 지침

1) 하나됨을 위한 예배

개회 예배는 가급적 자연속에서 드리고 폐회예배는 실내에서 드리는 것이 좋겠다. 예배 담당자는 개회, 폐회 예배시 한 가족 단위로 순서를 맡겨 사회, 기도, 성경봉독, 찬양을 각 가정 단위로 인도하도록 한다. 폐회예배전에 세족례는 목사님이 주관하고 곧이어 폐회예배시 성찬식도 준비한다. 자연에서의 명상, 기도회 시간은 둘째날 아침 숲속에서, 세째날 아침은 냇가 골짜기에서 드리도록 한다. 먼저 찬양, 기도, 성경읽기와 안내를 통해 명상을 안내한 후 명상의 시간을 20-30 분 갖도록 한다. 이때 구체적인 명상주제를 주도록 한다.

2) 가족 단위의 대화의 시간

숲속이나 골짜기에 가족별로 자리를 마련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 우리 가정사/ 이야기

① 부모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
②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 (딤후 1:8 참조)
③ 자녀들의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

* 우리 가정의 장점 발견하기

* 가훈에 대한 이야기
* 기타

(2) 성스러운 공간 만들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계속 같은 방법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두개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깊은 감정적인 문제들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의식을 통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의식(ritual)은 부모와 자녀의 필요를 동시에 채워줄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가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결할 수 있는 가족간의 의식이 부족하다. 심지어 식사마져도 텔레비젼 때문에 혹은 다른 활동들 때문에 희생되어 가족 구성원들을 분열시킨다. 부모들이 지도력을 가지고가족이 다함께 할 수 있는 공동의 시간을 계획하지 않는 한, 가정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정에 따라 들어오고 나가는 하숙집으로 변하게 된다. 이민가정을 강화하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가족의식을 들자면 주말의 저녁 식사, 그리고 가정예배이다.

*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드리는 세족식 (요한복음 13:1-17).**

묵상을 위한 질문

1.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시는가?
2. 예수님은 머리와 가슴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3. 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가?
4.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5.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어떤 의사 소통을 하시는가?

(3) 식탁 친교를 통한 교육의 기회 (누가복음 14:1-14).

복음서 기사에서 예수님은 종종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친교를 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전통적으로 배타적인 식탁을 포괄적인 것으로 바꾸셨다. 누가복음 14:7 에서 예수께서는 이름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손님들이 식탁에서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셨다. 가르침을 위한 좋은 순간을 포착하시고 예수께서는 친구, 친척, 부자들을 점심이나 저녁에 초대할 것이 아니라 대신에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 즉 가난한자, 앉은뱅이, 저는 자, 눈먼 자들을 초대하면 축복을 받으리라고 하신다 (누가복음 14:12-14).

예수님의 포괄성에로의 부르심이었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당신이 마지막으로 식탁 친교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가?
2. 누가 식탁의 중심에 앉았는가? 누가 식탁 끝에 앉았는가?
3.당신은 어디에 앉았는가?
4.당신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4) 산책 (자연과의 대화)

산책을 하면서 새, 나무, 꽃 등을 관찰하자. 그리고 자연의 소리를 듣자. 맑은 하늘을 쳐다보고 큰 숨을 내쉬어 보자. 그리하여 시편기자가 노래한 것과 같이 "여호와여 손수 만드신 것이 참으로 많사오니 어느것 하나 오묘 하지 않은 것 없고 땅은 온통 당신것으로 풍요합니다"(시편 10:24) 라고 노래하자. 이 시간에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산책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서로간에 질문을 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또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은?

(5) 창조적 가정예배

잠들기전 각 숙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 이 때의 모든 순서는 각 정에 위임한다. 각 가정 나름대로 의미있는 가정 예배순서를 준비하여 드리게 한다.

3) 세대간 함께 드리는 QT

(1) 첫째날

* 인도자 :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 회　중 :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 인도자 :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찌로다.
* 회　중 : 해 돋는데서부터 해 지는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
　　시리로다.
* 다같이 : 여호와는 모든 나라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위에 높으시도다.
* 찬　양 : 한마음 주소서
* 성　경 : 요 17:20-23 성경을 읽은 후 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인도.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신 기도였습니다.

오늘 이시간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가 비옵는 것은 우리로 하나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① 성경 말라기 4:4-6 을 조용히 읽는다

② 빌립보서 4:1-3 을 읽고 교회가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멍에를 같이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③ 에베소서 1:10 을 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

* 찬 양 : 기도를 마친 후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1 장을 부른 후 대표기도나 주의 기도로 마친다.

* 말 씀 : 에베소서 4:1-6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다.

각자가 다음 주어진 문제들을 정리하면서 묵상한다.

① 우리는 누구인가?

② 우리는 무엇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구체성은 무엇?

③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④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오.

⑤ 하나되게 하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두 가지만 결정해 보시오.

(이 문제들에 관하여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각자의 정리가 끝나면 지도자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라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몇사람으로 하여금 말하게 한 후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하게 한다)

(2) 둘째날

***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권위**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1-4).

*** 묵상을 위한 질문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1. 제자들이 생각하는 권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권위를 비교하라.
2. 어떻게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이 가정과 교회에서 1 세대와 2 세대간의
   다이나믹스 와 연결되는가?
3.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18:2)?

* **적용**

1.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삶을 사는 것의 덧없음을 알기.
2. 안으로 향하는 것을 배우기.
3. 당신 자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 에게 귀 기울이기.
4. 내적으로 대화하기.
5.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6. 내적인 권위에 따라 살기

4) 가족신문 만들기

실내에서 각 가정에 모조지 2 장과 매직, 싸인펜, 크레용을 주고 가정을 소개할 수 있는 기사들을 쓰게 한다. 신문명은 [00 네 가정신문]이 좋겠다. 자기 가정을 표현하는 상징 그림을 그리거나 가훈을 주제로 사설을 쓰고, 각 가족의 특징도 소개할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가족 공동체 의식을 키우게 된다. 만들어진 신문은 끝날 때까지 전시하고, 끝난 후 가정에 돌려준다.

5) 주제강의와 워샵

① 1.2 세간의 다른 점과 그 필요성
② 세대간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공동의 변화 모색
③ 가정 안에서 일어나기 쉬운 세대간 갈등의 해결 방안

6)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시간

7) 가족간의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 **나는 우리 식구를 잘 압니다.**

① 이 가족의 키는 얼마입니까?

② 이 가족의 몸무게는 얼마인가?

③ 이 가족의 목둘레는 얼마인가?

④ 이 식구가 좋아하는 음식은?

⑤ 좋은하는 빛깔은?

⑥ 취미는?

⑦ 자녀의 학교, 학년, 반, 선생님 이름은?

⑧ 가족의 전화번호,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소셜넘버, 이베일 번호는?

8) 감사의 글 쓰기

그 동안 이민생활의 고단함을 함께 지내 온 가정의 식구들에게 서로 감사의 글을 쓰도록 한다.

① 가족단위로 둥그렇게 앉아서 백지에 자기의 이름을 적는다.

② 자기 이름을 쓴 백지를 옆 사람에게 돌린다.

③ 그것을 받아든 사람은 해당되는 이름 밑에 그동안 지내오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내용과 앞으로 하고 싶은 말을 간단히 적는다.

④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족 전체가 돌아가게 한다.

⑤ 이때 조용한 음악을 배경으로 처리하면 훨씬 온화한 느낌을 줄 수 있다.

⑥ 다 끝났으면 자기 것을 찾아 읽는다.

9) 성은 공동체 (세대간의 견고한 신앙공동체) – 고전 12:12-27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모두 몸의 비유를 사용하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일치성을 표현하고 있다. 유월절 밤에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면서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막 14:22,24)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

* **묵상을 위한 질문**

1. 바울에 의하면, 각기 다른 지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2. 전체 몸 중에서 당신의 교회에서 무시되거나 잘 돌보아지지 않는 지체는 무엇인가?
3. 무시되어 온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한가?

＊ 적용: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부모와 청소년의 밤)

(1) 성은 공동체 저녁 파티 및 축하잔치 (1부)

2 세대들로 하여금 수련회 마지막날 저녁 1 세대들을 위해 특별히 저녁을 준비하도록 하라. 식당을 아름답게 장식하라. 부모님을 자리에까지 안내한다. 음식도 손수 대접한다. 어머니들 중 많은 분들이 음식을 대접 받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역할은 주로 그들이 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들이 부엌으로 달려가지 않도록 확실히 지킨다. 부드러운 음악 찬양을 저녁 식사시간에 배경 음악으로 연주한다. 어른이 아닌 2 세대들 중 한명이 식사 기도를 하게한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접시를 나르기로 미리 정해 둔 사람들이 뒷정리를 하게 한다. 여기서도 어머니들이 무의식적으로 도우려고 하면 막는다.

(2)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게임 (2부)

서론: 노래를 시작함으로써 게임을 마음으로 준비한다. 1 세대 부모와 2 세대 청소년이 함께 하는 게임은 신랑신부를 위한 게임을 변형시킨 것이다. 부모와 청소년을 위해서 6 개의 질문을 2 세트로 준비해 준다. 컬러펜으로 마분지에 질문들을 적어 둔다. 질문은 가벼운 것으로 시작해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심층적인 질문으로 옮겨간다. 질문의 범주는 어머니/딸, 아버지/아들, 어머니/아들, 아버지/딸로 나눌 수 있다. 전체적인 시합은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이루어진다. 문제가 주어지면 부모와 자녀들은 그들의 답을 마분지에 적어 동시에 위로 올려야 한다. 일등과 꼴찌를 위해 상품을 준비한다. 세대간에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은 상을 주고 더욱 대화가 필요한 가정은 분위기를 복돋아 준다.

＊ 1 세대 부모들을 위한 질문 일례:

1. 당신의 아들/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아들/딸이 가장 좋아하는 음악 그룹은 누구입니까?
3. 당신의 아들/딸이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4. 당신의 아들/딸은 어느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까?
5. 당신의 아들/딸은 무엇을 전공하기를 원합니까?
6. 당신의 아들/딸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 2세대 청소년들에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볼 질문 일례:**

1.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는 무엇입니까?
2.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입니까?
3. 어머니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4.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디서 처음 만났습니까?
5. 어머니가 중학생일 때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무엇입니까?
6. 어머니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 2세대 청소년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질문 일례:**

1.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2.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악은 무엇입니까?
3. 아버지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은 무엇입니까?
4. 아버지가 자랄 때 역할 모델이 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5. 아버지가 당신을 외식하러 마지막으로 데리고 나간 때는 언제입니까?
6.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게임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이 많이 웃으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모들은 다른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들의 가정사를 다른 방법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예를 들면, 자녀들의 대학 선택과 전공을 놓고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한 갈등을 공동체 안에서 유머로 다루게 되면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계기가 일어나 건전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Falling in Love 2010

The 1st Korean Presbyterian Council in Northest Synod Youth Retreat

Isaiah 43:1-3

⊙Previous Meeting

Date : Aug 10, 2010

Location : The Korean Grace Presbyterian Church

Attendants : Rev. Daniel Song : azsong@hotmail.com (tel (201)522-2777)
Rev. SungJin Kim : sungjinkim625@hanmail.net (tel (732)545-1512)
Isaac Ahn(안일웅) : Isaac_ahn@yahoo.com (tel hp(732)991-8968)
Jeya So : pilgrimyouth@hotmail.com (tel (201)503-9383)
Benjanmin A. Kang : benjanmin.Kang@ptsem.edu (tel (609)203-6823)
Joohee Son(손주희) : sonjoo@hotmail.com (tel (201)944-6494)
박대웅 JDSN : Daewpark@hanmail.net (tel 225-9499)
Jona So : (tel (609)497-7530/ hp (201)240-5544)
Roberto Shim(심재용) : robertoshim@hotmail.com (tel (347)645-6445)
Su Yon Kim (tel (212)587-5984/hp (917)597-5422)
조준형 목사님 : (tel (718)454-9007)

⊙Participants

-The following is the minutes from the previous meeting with all the updates added.

1. **Number of Churches & Students participating**

☞SungJin Kim MSN -Grace Church -14
☞박대웅 MSN -Somang Church -8
☞Jona Suh JDSN -Hackensack Church -5
☞Isaac Ahn MSN -Elizabeth Church -9
☞이창우 목사님 -Lord of Hope Church -5 (732)248-7806
☞Roberto Shim JDSN -New Garden Church -4
☞Staten Island Presbyterian Church -5
☞Su Yon Kim -New York Dongyang First Church -3
-(212) 587-5984 (Mon thr Fri)
☞ -이 원삼 집사님 Korean United Church of Rochester -14
-(585) 271-1689
☞조 준형 목사님 - The Korean Church of Long Island -7
☞장 요섭 전도사 -은평개혁 장로교회 -5
☞Hellen Ahn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21

2. **Number of Student Enrolling**

Approximately 110 (2)

3. **Number of Pastors (10) *Praise Team (9)**

4. **Number of Churches & Counseler Volunteer(Enrolling)**

☞ Grace Church (3)
☞ New York Dongyang First Church (1)
☞ New Garden Church (2)
☞ Staten Island Presbyterian Church (2)
☞ Korean United Church of Rochester (2)
☞ Korean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5)

▣ **15 (17)**

Total : 149

⦿ Goals and objectives

1. to invite students into these divine encounters that are necessary For the 21st Century Korean-American community
2. to imprint strongly in the minds of young people the God's love, which are how high, wide, and deep has been cared them
3. to encourage small group (organiged geographically by schools that they attend, so that the small group could be activated after event)
4. to implement young professional mentorship 5. to encourage students to receive "The Call" - development and Steering of future careers.

⦿Dates

August 2010 Calendar						
Sun	Mon	Tue	Wen	**The**	**Fri**	**Sat**
22	23	24	25	**26**	**27**	**28**

Main Event : August 26 & 28 (Thursday – Saturday) * Confirmed

Place : NJ Christian Academy Main Hall/ Bethel Hall/
Amen Hall①,②,③

Registration Deadline :

*Extended until Aug 19, 2010

⊙Contact

1. Worship Preacher

   A. Isaac Ahn (732) 991-8968 Fax) (908) 354-4278
   Email : Isaac_ahn@tahoo.com
   *invited and accepted

2. Parise Team

   A. JFM 김 태형 (201) 927-7961
   *invited and accepted

3. Greetings (Keynote(Opening) speech)

   A. The President of Korean Presbyterian Council in Northeast
   - Rev. JungMoon Kim (*invited and accepted)

4. Small Group Leader Training Program (Guide Lines for Group Activities)

   -Aug 19(Mon) 6:00 P.M at Somang Presbyterian Church Worship and Lecture (Lead by Isaac Ahn) (Provide Dinner)

5. Special Activity Leader

   -Benjamin A. Kang – Benjamin.Kang@ptsem.edu (tel (609)203-6823)
   Invited and Accepted

6. Photo and Video Recoder

⊙Possible Layout of Program

①Pilgrim's Progress

1st Course : We are cooperative Community in Jesus Christ (Amen Hall ①)
2st Course : Throw away away our idols (Amen Hall ②)
3st Course : Temptation and Test (Amen Hall③)
4st Course : The Course of Tempation
5st Course : Jesus Christ's Love (Tennis Court)
6st Course : Born Again!! (Main Hall)

②Ice Breakers and Lead Skit Presentation

- This is the time when we could worship God with everything that we have… mean everything. (so be creative!!) And during the skit, you have to use the theme (word by word) in the skit. There are some things we look for in the skit (creativity, unity, biblical application, quality of performance).

③ Breakout of the Group

- Instead of having everyone in a humongous dysfunctional group, Breaking the group into several groups seems necessary due to The large number of students
  - Tentative Makeup of a Small Group

10 Students + 1 Mentor

④ Group Activities (QT, Workshop, Skit, In(out)door Activity)
- Except for the orientation, greeting & Keynote speech, meal times, And worship the activities should be focused on small groups.
- Outdoor Activity (2 Vollyball nets, 2 basketball court, 1 tennis court)

⑤ Small Group Mentors
- Need to be more mature and able to nurture their group members.
- Role of Group Members
  A. Listener
  B. Motivator

⑥ The main programs in charge

- Opening Worship : Isaac Ahn MSN : (Tel (609)497-7530) * Confirmed
- Ice Breaker : Benjamin A. Kang JDSN * Confirmed
- Orientation : SungJin kim MSN * Confirmed
- Opening Speech : Rev. JungMoon Kim * Confirmed
- Campfire : Roberto Shim JDSN(심재용) * Confirmed
- Treasurer : Su Yon Kim JDSN * Confirmed
- Photo or Video :
- Registration : DaWung Park JDS, Joohee Son * Confirmed
- Skit Presentation : Benjamin A. Kang JDSN * Confirmed
- Pilgrim's Progress :
-Outdoor(Indoor) Activity : Su Yon Kim and Roberto Shim(심재용) And DaWung Park, 조준형 목사님.Jona So
- Speaker : Isaac Ahn MSN * Confirmed
- Nurse : Su Yon Kim JDSN * Confirmed
- Security : 조 준형 목사님,박 대웅 MSN, Roberto Shim, Jona So

♣ **Worship Committee** :
Led by – Jona Suh(서 용정 전도사) : (tel (609)497-7530)
* Confirmed

☞ Lead Opening Worship
☞ Preparing Opening Worship and progress
☞ Preparation each Worship Service (worship coordination)
☞ all music/ praise activities of the retreat
☞ all speakers and their accommodations and transportation
☞ all equipments – mics, amps, guitars, and…

♣**Registration Committee** :
Led by – 박 대웅 MSN : daewpark@hanmail.net (tel (201)892-1825/225-9499)
* Confirmed

☺ Treasurer – Joohee Son (손 주희) : sonjoo@hotmail.com (tel (201)944-6948)
* Not Yet Confirmed

☞pre –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 of the retreat
☞collection of all registration fee and hand it over to the treasurer
☞ sending out registration form to all churches

☞ calling the churches and promote the retreat
☞ room assignments and name tags
☞ room assignment for Small group meeting (Worship, Quite, Time, etc)

♣Publication Committee :

Led by – Pilgrim Church * Confirmed
* Jeya So : pligrimyouth@hotmail.com (tel (201)503-9383)

☞ making the registration form
☞ making the programs for the retreat
☞ making any sign for the retreat site
☞ making a map to the retreat for mailing out
☞ booklet (program)
☻ Photo or Video (Digital) - *Not Yet Conformed

♣ Fellowship Committee

Led by – Roberto Shim(심 재용) : robertoshim@hotmail.com (tel(347)645-6445)
Joseph Jang : joseph – chang@hotmail.com (tel(732)247-8025)

☞ all activities for the retreat (afternoon games and evening activities)
☞ welcoming the campers
☞ snacks
☞ night and morning call
☞ camp fire
☞ Ice Breakers and Lead Skit PRESENTATION
☞ Security

⦿ Falling in Love Retreat Schedule

Thu 8/22/02
11:00 am Registration
12:00 pm Lunch (Group Leader's mt)
1:00 pm Opening Worship
2:00 pm Orientation
2:20 pm Ice Breakers
3:30 pm Group Meeting ①(Skit Pre)
5:00 pm Dinner
6:00 pm Praise and Worship
8:00 pm Group Skit Presentation
10:00 pm Group Meeting ②(Worshop①)
11:30 pm Light Out
<Staff Meeting>

Fri 8/23/02
7:00 am QT ① Wake Up
8:00 am Breakfast
9:00 am Praise and Wirship
11:00 am Group Meeting ③ (Worshop②)
12:00 pm Lunch
1:00 pm Stationary Out Door Activity
3:00 pm Swimming
<Pilgrim's Progress Preparation>
5:00 pm Dinner
8:00 pm pilgrim's Progress
10:00 pm Campfire
12:00 pm Light Out
<Staff Meeting>

Sat 8/24/02
7:00 am QT ② Wake Up
8:00 am Breakfast
9:00 am Praise and Worship
11:00 am G.M④ and Evaluation (Clean Up)
12:00 pm Lunch

Go Home

☺**Income** :

☞ Registration Fee $12.050.00 Per Students $ 100.00 and teachers $ 50.00

☞ Donation from KPC (KPC Official Check) :

Total: $ 1.862.00 (T-Shirts, Honorarium For Speaker $ 400
Honorarium For Praise Team $400.00)

☞ KCCI : $150.00 + Grace Church $ 50.00 = $ 200.00

☻ **Expenses** :

- T- Shirts : $1.062.00

Speaker : $400.00 to be paid by the KPC Council official check
Praise Team : $400.00 to be paid by the KPC Council official check
Facility Rates : $11.372.00 *Deposit $500.00 410.872.00
Promotional Items : $588.64
Lunch(for staff meeting) : $378.37.00

♣ Total Income : $12.050
♣ Total Expense : 14.201.00

☉**Final things that needs to be discussed**

- Half Price for small group leaders(teachers) *Support by church
- Bring thin blanket
- Each church Bring snacks, sodas, cupramuns or fruits
  - ☞ Grace Church – water Melons
  - ☞ Somang Church – Snacks for 22 night
  - ☞ Elizabeth Church – cupramuns 3 box
  - ☞ Lord of Hope Church
  - ☞ New Garden Church
  - ☞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Albany
  - ☞ New York Dongyang First Church – Snacks for 23 night (Apple, Cupramuns)
  - ☞ Korean United Church of Rochester
  - ☞ The Korean Church of Long Island
  - ☞ NY Somang Presbyterian Church
  - ☞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Staten Island
- Contact churches which want to participate Retreat and inform about
  - ☞ Information about Youth member (Male/Female, Name, Grade)
  - ☞ Room Assignment for sleeping, QT, and Group Meeting.
  - ☞ Small group leader's fee for retreat. Which may be supported by church.
  - ☞ Small group leaders meeting : Aug 19 (Mon) At Somang Church (6P.M.)
    - ask more Small group leaders and then organize group.
  - ☞ Things to brings for retreat
    - Bring equipments for outdoor activities (volleyball net, volleyball, Soccer)
- Needed Firstaid Kit (* Prepared by Su Yon Kim jdsn)

⊙ Future Outline

- Different Approach to Followup after the Event

☞Evaluation Meeting
☞ Reservation Facility for Next Event (Aug
☞ Biannual Letters from the Headquater
Quarterly letters from the small group mentors
Annual Conference for Parents, Small Group Mentors, Youth Pastors (Local school teachers and advisors should be contacted and invited)

* **2010 KPC NE SYNOD Summer Youth Retreat T-shirt Degign**.

- **Materials that need to be prepared**

☺ Individual
- Thin Blenkit, Sleeping bag, Towel(soap…), swim cloth, warm cloth for night

☻ Churches
- Mosquito preventor, The B ibles, Sports Equipments, Snecks

▣ Head Quarter
- Mosquito Sticks

- **Evaluation for 2010 Falling in Love Youth Retreat**
Sep, 7 at the Korean Grace Presbyterian Church (11 A.M.)

설문 조사지

1. 귀하의 성별은? 남 여

2. 미국으로 온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1 년 미만 ② 1-3 년 ③ 3-6 년 ④ 10 년 이상

3. 교회를 다니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 년미만 ② 2-5 년 ③ 5 년이상 ④ 모태신앙

4. 2 세대 자녀들과 대화를 하루 중 어느 정도 대화하십니까?

① 5 분 미만 ② 15 분 미만 ③ 30 분 미만 ④ 1 시간 이상

5.자녀들과는 일주일 중 얼마정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까?

① 없다 ② 1 번 ③ 1-3 번 ④ 4 번 이상

6. 세대간의 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언어의 차이 ② 세대차이 ③ 문화의 차이 ④ 세계관의 차이

7. 현재 한인 이민교회를 떠나는 2 세들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신앙의 차이 ② 2 세들의 선택 ③ 언어의 불편함 ④ 교회의 지원부족

8. 2 세대들이 모 교회를 떠나는 Silence Exodus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영어회중을 위한 예배 개설 ② 2 세대들을 위한 교회의 지원확대

③ 1 세대 프로그램에 2 세대의 참여 확대 ④ 2 세대들을 위한 관심의 확대

9. 이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한국 전통문화의 보존 ② 이민자들의 정서적 안식처 ③ 예배의 강조

④ 이민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2 세대 리더자 발굴

10. 세대간에 함께 드리는 공동예배, 가족 수련회가 2 세대 자녀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아니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X. 참고문헌

A. 한국 서적

김진홍. *베들레헴 물방아 도는 내력*. 서울: 도서출판 대장간, 1996.

김기현. *기독교의 세계종교*. 서울: 쿰란 출판사, 2008.

김남식. *기독교 커뮤니케이션학*. 서울: 베다니, 1999.

김종선. *디아스포라 신앙의 자리*.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9.

교회성장연구소. *한국교회 새신자 정착모델 베스트 4*.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9.

권상길. *디아스포라 2 세 교육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권상길. *코메리칸 자녀교육*.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9.

민병갑. *미국속의 한국인*. 뉴욕: 가나안인쇄, 1991.

배규환. *매스미디어와 정보사회*.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4.

박수암. *요한복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박이문. *논어의 논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신세대의 이해*. 서울: 삼성복지재단, 1996.

신영복. *강의*. 서울: 돌베게, 2004.

신정하. *예수안경*. 서울: 두란노서원, 2003.

양명득.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윤 사무엘. *미주 한인교회 100 년의 발자취와 비전*. 서울: 보이스사, 2002.

은준관. *교사의 교육신학*. 서울: 종로서적, 1983.

이대희. *심방설교 이렇게 준비하라*. 서울: 아가페 출판사, 2000.

이명권. *공자와 예수에게 길을 묻다*. 서울: 크나투스, 2008.

이병렬. *내 백성 이스라엘아*. 서울: 페트라 성경원어 연구원, 1988.

이병렬. *히브리민족 신앙의 뿌리와 역사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서울: 요단출판사, 1985.

장로회신학대학.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기독교방송, 1987.

정진일. *유교의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1978.

정석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 서울: 쿰란출판사, 2005.

조경철. *신약성서가 한눈에 보인다*. 서울: 땅에쓰신 글씨, 2007.

조태연. 차정식. 유승원. *뒤집어 읽는 신약성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차정식 외. *한국인을 위한 최신연구 신학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차배근. *커뮤니케이션 개론*. 서울: 세영사, 1977.

차준식. *현대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2005.

최영진.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 문화사, 1999.

최임선. *신앙의 발달과정*. 서울: 종로서적, 1989.

최한구.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성광사, 1994.

최한구. *마틴부버의 생애와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2.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Ⅰ*. 서울: 기독교문사, 2000.

한동구. *오경이해*.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1995.

허영엽. *성서의 풍속*.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6.

B. 번역 서적

Bernhard W. Anderson. *구약성서의 이해 II*. 제석봉 역.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91.

Clotair Rapaille. *컬쳐코드*. 김성수 역. 서울: 미션월드, 2006.

Clyde M Narramor. *가족예배는 이렇게*. 백인숙 역. 서울: 나침반사, 1982.

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Edge, F, B. *효과적인 성서교육*. 노윤백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

Erwin W. Lutzer. *목사가 목사에게*.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사, 1990.

Frank Viola. *1 세기 관계적 교회*. 백은영 역: 서울: 미션월드, 2006.

Gary R. Collins. *크리스챤 카운슬링*. 피현희,이혜련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0.

Gary R. Collins.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역. 서울: 두란노서원, 1984.

G.R. Beasley-Murray. *World Biblical Commentary*. 이덕신 역.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1.

Handric Kraemer. *The Communication of the Christian Faith*. 임춘갑 역. 서울: 종로서적, 1981.

Henri J.M. Nouwen. *예수의 이름으로*. 두란노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출판사, 2008.

Hans Ku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Howard J Clinebell.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4.

Jackl. Seymour. Donald E. Miller. *Contemporary Approaches Christian Education*. 맹용길, 임영금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7.

Julia Ching. *유교와 기독교*. 변선환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94.

Matthew Henry. *요한복음*. 이기문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97.

Nolan. Albert.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 정한교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0.

Paulo Freire, *페다고지*. 성찬성 역. 서울: 한마당, 1997.

Robert E. Webber. *God Still Speaks*.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96.

Robert Kysar. *John the Marerick Gospel*. 나운채 역. 서울: 성지출판사, 1996.

C. 외국 서적

Andrew Sung Park. *The Wounded Heart of God*. Nashville: Abingdon Press, 1993.

AiRa Kim. *Women's Straggle for New Lif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Y Press, 1996.

Elaine Howard Ecklund. *Korean American Evangelicals*. NY: oxford press, 2006.

Eleanor Scolt Meyers. *Envisioning the New City*. Louisville: Westerminster/ John knox Press, 1992.

E. Stonequist. *Marginal Man*. NY: Russell and Russell, 1961.

Grace Ji-Sun Kim. *The Grace of Sophia*. Cleveland, Ohio: The pilgrim press, 2002.

G.R.Clark. *the Word Hessed in the Hebrew Bible*. Sheffield: Sheffield Academy Press, 1993.

Harvie M.Conn. *The American City and the Evangelical Church*. NY: Baker, 1994.

Ho-Youn Kwon, Kwang Chung Kim, and R. Stephen Wamer. *Korean Americans and Their Religions*.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1.

Inn Sook Lee, Timothy D. Son. *Asian American Christion Ministry*. Seoul: Voice Publishing House, 1999.

John H. Berthrong and Evelyn Nagai Berthrong. *Confucianism*. Oxford: One world Publications, 2000.

John Mac Arthur. *The Ultimate Priority*. Chicago: The Pilgrim Press, 2002.

Jung Young Lee. *Korean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2003.

Jung Young Lee. *Marginalit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K.D.Sakenfield. *Faithfulness in action*. Philadelphia: Fortress, 1985.

Martin Buber. Between Man and Man. London: Hunt, Bamard, 1947.

Milton J. Coaltert, John M. Mulder and Louis B. Weeks. *The Diversity of Discipleship*. Westminster: Johnknox Press, 1991.

Paul Tokunaga. *Invitation to Lead*. Illinois: Intervarsity Press, 2003.

Peter C. Phan, Jung Young Lee. *Journey at the Margin*.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9.

Pyong Gap Min. *Asian American Contemporary Trends and Issues*. New York: Johnknox press, 1992.

Rebecca Y. Kim. *God's New Whiz Kids?*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Ronald Takaki. *Strangers from a Difterent Shore*. Boston: Little, Brown and Comporn, 1989.

R. Stephan Wamer and Judith G. Witner. *Gatherings in Diaspora*. Pennsylvania: Temple University Press, 300.

Sang Hyun Lee. *Korean American Ministry*. NJ: Han Geul Printing Co, 1987.

Stanley J. Grenz. *Theology for the Community of God*.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1994.

The Otgice of Generou Assembly. *The constif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KY: The Office of Genecal Assombly, 2001-2002.

Tony Cames and Fenggang Yang. *Asian American Religion*.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4.

We-ming Tu.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96.

Wonhee Anne Joh. *Heart of the Cros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Young Lee Hertig. *Cultural Tug of War*.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D. 간행물 (저널)

권순구. "신학과 윤리에서의 관계개념." *대한기독교서회*. No.15 (1983 년 여름).

권용근. " 기독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신학과 목회*. Vol.7 (1993 년 3 월).

권혁승. "쉐마 와 유대인의 신앙교육." *활천*. No.530 (1998 년 8 월).

김건한. "교육적 만남의 본질과 진정한 가르침의 의미." *교양교육 연구소 논문집*. No.4 (1999 년 봄).

김계호. "미주 한인 이민교회 백년." *기독교 사상*. No.4 (1997 년 4 월).

김문식. "소학과 아동교육." *전통과 현대*.Vol.5 (1998 년 여름).

김상균. "그리스도교적 입장에서 본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심리학적 이해." *카톨릭 신학과 사상*. No.5 (1991 년 5 월).

김상임. "우리 가족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새가정사*. No.586 (2004 년 5 월).

김수정. "[정체성들의 결합] 한인 2 세들의 종교적 정체성의 우위성." *언론과 사회*. No. 3, 4 (2003 년 봄).

김세광. "세대 간 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 *성실문화*. No.47 (2006 년 봄).

김세광. "한국교회 예배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안적 모색." *신학과 실천*, Vol.15 (2008 년 봄).

김용복. "공동체 운동과 커뮤니케이션." *세계의 신학*. No.56 (2010 년 봄).

김은심, 배향자. "한의 개념분석." *노인간호학회지*. No.2 (2000 년 가을).

김춘기. "만남의 주제로 본 요한복음." *신학과목회*. No.25 (2006 년 봄).

김호현. "요한복음대의 연구." *대한신학교논문집*. No.6 (1986 년 봄).

노희원. "눈모다 더 희게." *한국성서연구원*. Vol.3 (1997 년 9 월).

문흥주. "교회 공동체." *기독교사상*. No.360 (1988 년 12 월).

민병갑. "재미교포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 *정신문화연구원*. No.18 (1997 년 봄).

박양식. "마르틴 부버의 이상적 공동체." *기독교사상*. No.10 (1990 년 10 월).

박종균.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기독교." *세계의신학*. No.56 (2010 년 봄).

박종근. "이민교회의 어제,오늘,내일." *생명샘*. No.11 (1983 년 11 월).

박종호. "이민교회의 리더십." *목회와 신학*. No.193 (2005 년 3 월).

안영상. "아가페(카리스타와)비교를 통하여 본 정약용의 인." *교회사연구*. No.24

(2005년 봄).

양춘길. “미국 교회의 교육현황.” *연세대학교 연신원 목회자 하기 신학세미나 강의집*. No.19 (1999년 봄).

옥성득. “미국 한인 개신교회의 사회적 책임.” *한국 기독교와 역사*. Vol.28 (2008년 가을).

유의영. “한인사회 공동체적 기반으로서의 미주한인교회.” *신학논단*. Vol.35 (2004년 봄).

이성배. “유교의 인과 그리스도교의 사랑.” *대구카톨릭신학교 카톨릭사상연구소*. Vol.3 (1989년 봄).

이정용. “주변성: 다문화적이고 다인종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신학적 방법.” *세계의 신학*. No.15 (1983년 여름).

이원일. “제2세대 한국계 미국인.” *기독교교육정보*. No.21 (2008년 12월).

이종헌. “대화를 넓혀가자.” *새가정사*. No.206 (1972년 8월).

이호우. “민중신학과 한사상에 대한 연구.” *일립전총*. No.7 (2007년 봄).

임종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대한기독교서회*. No.5 (2003년 5월).

정명자. “실존적 만남과 기독교적 만남.” *광신논단*. No.1 (1994년 봄).

정정숙. “이스라엘 종교교육연구.” *신학지남*. No.3 (1981년 가을).

최종수. “미주로 떠난 사람들과 이민교회.” *기독교사상*. No.4 (1997년 4월).

최혜림. “대인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 *카톨릭신학과사상*. Vol.54 (2005년 12월).

최홍순. “유교의 인개념과 기독교적 사랑개념의 비교연구.” *공주대학교 인문 사회과학 연구소*. Vil.12 (1997년 12월).

한동구. “신명기의 교육사상.” *복음과신학*. No.1 (2008년 봄).

Elizabeth Joy. “달릿의 입장에서 본 사마리아 여자.” *민중과신학*. No.9 (2002년 봄).

S. F. Krieger and W. Kroes. “Child Reading Attitudes of Chinese, Jewish and Protestan Mothers.” *The Journey of Social Psychology*. Vol.86 (1972).

E. 논문자료

김현수. “*이정용의 신학 방법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10.

박은혜. “*유대인의 가정교육에서 비춰본 한국 기독교 가정교육의 방법 모색.*” 미간행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7.

박현광. “*청소년 교육에서의 대화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손호익. “*민중의 한과 공동체성.*”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9.

신정식. “*한의 치유에 관한 목회상담적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4.

엄아영.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1999.

오상영. “*아가페 치유상담의 원리와 적용에 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999.

유정인. “*신앙공동체와 교육목회의 관계성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윤화영. “*참 만남의 순간을 통한 삶의 창조 경험에 관한 목회상담적 고찰.*”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9.

이동성. “*에밀브룬너의 만남의 진리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1977.

이용갑. “*교회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상징에 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05.

이지현. “*유교윤리에 대한 공동체주의 관점과 개인적 관점.*”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이화진. “*요한공동체 안의 여성 제자그룹.*”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06.

양용복. “*구약성서에 나타난 헤데드에 관한 연구.*”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2003.

조연형. “*요한복음에 나타난 여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호서대 연합신학대학원, 2006.

최상길. “*종교교육적 핵심가치의 비교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최주호. “*한국인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 대학원, 2009.

채수영. “*요한복음의 여성신학을 위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4.

평동원. “*공자의 인 사상에 대한 소고.*”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2010.

한혜은. “*유대인 가정교육 형식에대한 고찰.*”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F. Web Site

http// www.koreanamericanchurch.blogspot.com (16 April 2009) 이대호,

한인교회 영어목회 사역의 두가지 문제.

http// www.koreatimes.com (05 May 2008) 뉴욕 한국일보 사설, 이민 가정의

가치관 전수.